

베트남을 위한

중장기 원조사업계획

Country Program Paper: Vietnam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계우 · 박찬용

베트남을 위한

중장기 원조사업계획

Country Program Paper: Vietnam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계우 · 박찬용

베트남을 위한 중장기 원조사업 계획

C o u n t r y P r o g r a m P a p e r : V i e t n a m

이 계 우 · 박 찬 용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고 추진하는 등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 동남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사태를 계기로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단은 MDGs의 효과적인 달성과 함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무상원조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단 창설 이래 최초로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별 원조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원조사업을 일관된 전략 하에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총체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별 원조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원조효과성 향상,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등 국제 원조공동체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에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우리의 주요한 원조사업 대상국인 베트남의 실질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원조접근방식과 함께 동 국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계우 교수와 안동대학교 박찬용 교수의 책임 하에 위탁 연구과제로 집필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보고서가 앞으로 우리나라 개발원조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 국별 원조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5. 9.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김 석 현

베트남 지도



目次

베트남을 위한 중장기 원조사업 계획

要約

- I. 베트남의 發展趨勢와 課題
- II. 최근의 對베트남 지원전략과 프로그램
- III. 對베트남 援助事業 計劃

I. 베트남의 發展趨勢와 課題

- 1. 政治的 發展 26
- 2. 經濟·社會的 發展 26
- 3. 當面課題와 挑戰(2005~2010) 36
- 4. 政府의 向後 中短期 政策(2006~2010) 42
- 5. 韓國-베트남 經濟關係 45

II. 最近의 對베트남 支援戰略과 프로그램

- 1. 主要 海外 供與國 및 機關의 援助戰略과 프로그램 48
- 2. KOICA의 援助戰略과 프로그램 55

III. 對베트남 援助事業 計劃

- 1. 援助事業戰略 66
- 2. 援助事業計劃 72
- 3. 援助事業計劃의 執行 75
- 4. 援助事業評價와 成果測定指標 76
- 5. 援助事業의 危險管理 78

參考文獻

- 〈附錄 1〉 해외 공여국과 공여기관 현황
- 〈附錄 2〉 우리나라 ODA 사업 현황
- 〈附錄 3〉 사회안전망 현황
- 〈附錄 4〉 개별 원조사업(프로젝트) 개요

要約



I. 베트남의 發展趨勢와 課題

II. 최근의 對베트남 지원전략과 프로그램

III. 對베트남 援助事業計劃

I. 베트남의 發展趨勢와 課題

1. 經濟・社會的 發展

■ 베트남의 경제는 1990년대를 통해 GDP 규모가 2배로 증가, 국민저축률도 GDP의 27%에 도달, GDP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비율은 38.7%→24.3%로 감소, 2차 산업은 22.7%→36.6%로 크게 증가, 서비스 산업도 38.6%→39.1%로 다소 증가

■ 최근 5년간 경제사회 발전(2000~2005)을 보면 경제는 고도의 성장률(연평균 7.2%)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개인소득도 꾸준히 상승하였고, 빈곤가구의 수가 급격히 감소됨.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상응하는 베트남의 개발 목표 중 중요한 교육, 보건, 환경지표를 상당부분 달성하였거나 만족할 만한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정부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개발, 공업 생산, 과학기술연구능력 배양, 첨단산업단지 개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등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종합적 개혁, 즉, 제도개혁,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현대적 지배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2. 베트남의 향후 당면과제와 도전 (2005~2010)

■ 경제구조 문제

-시장중심경제로 신속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업화와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음.

-공기업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재정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또 능률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상태이나 성장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함.

■ 빈곤퇴치의 어려움

-베트남 빈곤인구의 약 90%가 농촌과 산간지역에 집중되어있으나, 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해 빈곤축소에 고비용이 필요

-농촌 빈곤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빈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간 그리고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에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음.

-자연재해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빈곤층을 새로이 창출하기도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

■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문제

-기본적 사회서비스인 교육과 보건 분야는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정책과 집행이 미비하고 비효율적

-정부의 보건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보건예산배정이 형평과 효율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소수인종 거주 지역에서는 취학적령 아동의 약 20%

가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재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경제의 글로벌화 필요

-베트남 경제의 글로벌화 정책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가속화 필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의 비율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아직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차이를 두는 두 가지 가격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음.

3. 정부의 향후 중단기 정책 (2006~2010)

■ 기업환경의 개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예:기업법, 공기업법, 토지법, 파산법 등)

-금융제도 강화를 통해 저축을 도모하고, 세무행정 개선을 통해 세수입 증가

-공기업의 주식화를 가속화하고 독점규제를 강화
-2005년 말까지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 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5개년계획 기간에 투자는 GDP의 37~38%에 달할 것이며, 그중 25~26%는 국내저축으로 충당하

Ⅱ. 최근의 對베트남 지원전략과 프로그램

1. 주요 해외 공여국 및 기관의 원조전략과 프로그램

■ 최근 사업수행

- 베트남은 도이머이(Doi Moi : 재건)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선진 공여국과 해외 공여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원조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주요 공여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25개국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19개의 국제기구, 국제민간원조기구(INGO)들이 있음.
- 2002년까지 베트남에 공여된 총 원조액은 승인 기준으로 205.7억 달러에 달하나 실제 지출기준으로 보면 2002년까지 원조총액은 124.6억 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베트남 정부 내부의 수원액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

- 베트남정부는 ODA 수원사업 개선을 위해 「2001.5.4 ODA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따른 실제 ODA 사업의 우선순위 분야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무상원조 우선순위 : 빈곤완화(특히 농촌 및 벽지), 보건, 인구 및 개발, 교육, 인적자원개발, 사회문제(고용 창출, 상수도, 전염병 예방, 사회악), 환경보호, 과학연구·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연구, 행정 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 유상원조 우선순위 : 기아퇴치 및 빈곤완화, 농업·농촌개발, 교통 및 통신, 에너지, 사회 인프라(공공복지, 교육행정, 상하수도, 환경), 경제사회문제 해결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업체지원, 재정수지 개선 지원
- 이와 같이 베트남정부는 ODA 예산 중에서 무상원조는 사회개발 그리고 유상원조는 인프라구축에 집중할 것임을 알 수 있음.

고, 나머지 12%는 해외저축 특히 외국정부의 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

- 정부재정의 적자를 건전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세제를 개선하고 징수행정을 강화하여 매년 12%의 증가를 통하여 정부의 수입이 GDP의 22%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함.
- 투자는 성장과 빈곤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히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빈곤해소와 인력개발

-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강화하며 빈곤지역과 마을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빈곤 해소책 강구
- 취업기회의 확대를 꾀하고, 특히 비영농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모든 조직과 기업이 노력하도록 독려
- 임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추구
- 현대화, 공업화와 정보화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자, 관리자 및 기능자 등의 고급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을 다양화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

■ 행정개혁

- 제도개선,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내지 제거,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이러한 행정개혁과 경제개발을 추진해나갈 주체인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덕성 향상을 강조

4. 한-베트남 경제협력관계

■ 교역관계

- 1992년 수교 이후 수출은 약 5억 달러에서 2004년 32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여 4대 교역국이 됨.
- 수입의 증가는 미미하여 무역흑자가 지속되어 2004년에는 25억 달러에 달함(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8%).

■ 직접투자

-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1.3%에서 2.9%로 증가하여 2004년에 1억 7천만 달러에 달함.

■ 인력수입

-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3위의 중요한 인력공급원이며 2004년에 약 3,000명이 입국

■ 주요 공여국 · 공여기관별 원조동향 및 특징

－베트남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일본은 2002년에 375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지원금 규모는 베트남 총 수원 ODA의 5분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규모임. 일본 다음으로는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있음.

• MPI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원조자금은 경제인프라에 66%(교통에 22.6%, 전력발전 및 송전에 20.3%, 농업발전에 14.9%, 음용수 공급 및 도시인프라에 8.3%), 인력/사회개발에 14%(교육 · 훈련 · 기술에 8.3%, 의료 및 사회부문에 5.8%), 기타에 약 20%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공여국의 對베트남 원조방향은 공여국과 베트남과의 지역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에 따라 다소 상이

• 아시아 · 오세아니아에 있는 일본, 한국, 호주는 베트남 원조의 기본방향이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에 입각하여 지원

• 유럽의 공여국들의 對베트남 지원의 방향은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주로 환경보존 및 자원개발 등에 집중

•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가 일본 다음 규모의 원조를 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일본의 對베트남 지원사업은 성장촉진, 삶의 질 향상, 구조적 발전을 망라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지원하고 있음.

• 2002년 일본의 ODA에서 철도개선사업, 호지민시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최대였으며, 에너지는 對베트남 일본 ODA의 두 번째 우선 지원 분야이었으며, 대부분이 유상원조 사업 금액임.

－호주는 한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국가 원조를 주로 하는 국가로서 호주 원조의 특징은 한국 및 일본과 같이 베트남 정부와의 파트너십과 상호협력 정신에 기반을 두고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 호주의 對베트남 지원은 전액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원조분야는 인적자원개발(2002년 호주 ODA 25% 이상이 HRD 분야에 집중)이고, 최근에는 빈곤해소, 경제사회개발, 정부능력배양 등에 집중

－프랑스의 對베트남 원조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베트남 원조에 대한 기본정책은 언어 및 문화 개발과 농촌개발,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지원 등 프로젝트 실시를 통한 경제지원 등이며, 대부분이 유상원조임.

－덴마크는 2002년 베트남 내 공여순위 6위를 기록하였는데, 덴마크 정부의 對베트남 원조 특징은 호주의 경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 무상지원이라는 점이며 중점지원분야는 수산업, 상수원, 농업임.

－독일은 2002년 공여순위 9위를 기록. 중점지원분야는 개혁정책, 민간기업 촉진, 교육 · 보건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강화, 빈곤완화, 교통수송 체계 개발, 농촌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며, 독일의 총지원액 중 상당부분이 역시 무상원조 자금임.

－스웨덴 역시 대부분 무상원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분야는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경제, 행정, 사회 개혁, 소외계층 및 지역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지원, 소외지역 에너지 사업 등임.

－캐나다의 對베트남 원조도 대부분 무상이며, 중점협력분야는 빈곤해소와 민간부문 개발능력 강화 등임.

－세계은행은 첫째, 베트남의 시장경제 전환 지원 둘째,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활동의 동등화 지원 및 국영기업 효율성 증대 셋째, 행정개혁에 집중시켜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베트남의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ADB는 1995년 이후 HRD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2년에는 교통분야가 ADB의 주요 지원 분야로 부각되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개혁지원, 기업경영분야에 대한 자문 등도 주요 지원분야임.

－IMF의 지원규모는 2002년 56백만 달러로 베트남 내 지원순위 5위를 기록하였는데, 지원분야는 주로 경제관리 및 개혁프로그램에 집중되었으며, UN 관련 기관들의 지원은 대부분 정책지원분야, 지역개발, 사회개발 및 보건 분야에 집중됨.

－이상을 요약하면 먼저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공여국들과 캐나다는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을 하나 세계은행과 ADB는 유상원조 위주로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일본은 대부분의 지원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대단히 크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

• 프랑스 및 호주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의 공여국들은 무상원조 중심의 인도주의적 빈곤완화, 사회개발과 환경자원개발보전에 노력

－선진 공여국들이 대부분의 원조분야를 이미 커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조에 의한 베트남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음.

• 그 이유는 공여국과 베트남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차이로 인한 사업추진 효율성 저하와 베트남 정부의 수원자금 투자 집행능력의 취약성 등의 이유로 원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

－따라서 현재 베트남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험공유 차원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2. KOICA의 원조전략과 프로그램

■ 사업동향

－2002년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베트남 지원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0%로써 對베트남 ODA 공여국 중 제일 높은 비중을 기록

•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일본이 4.04%, 룩셈부르크

(3.61%)와 호주(3.55%) 그리고 덴마크(2.95%)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의 對베트남 ODA 지원규모(2002년)와 비교하면 9번째에 해당하는 원조공여국임.

•일본이 374.7백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베트남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프랑스가 77.8백만 달러로 두 번째, 그리고 덴마크(48.4백만 달러), 독일(41.7백만 달러), 호주(35.1백만 달러)의 순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상원조가 한국의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 20%로 캐나다, 호주와 스웨덴의 100%, 덴마크의 99%, 독일의 69%, 프랑스의 37%, 일본의 35%보다 낮음(對베트남 DAC 공여국의 평균치는 70%임).

■ KOICA의 ODA 사업 평가

-2003년도 KOICA의 對베트남 지원사업별 지원액을 보면 프로젝트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지원액에서 약 54.4%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연수생초청사업과 봉사단파견이 각각 20.3%와 19.6%이었음.

〈연수생초청사업〉

-연수생초청사업에 대한 베트남 측의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다른 사업, 특히 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성이 대단히 희박함. 따라서 향후 연수생초청사업은 프로젝트와 함께 기획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가파견사업 등 타 사업들과도 연계되어 추진

되어야 효율적인 원조사업이 될 수 있음.

-그리고 많은 연수생을 한국으로 이동시켜 연수받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인 강사진이 베트남에 가서 강의를 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베트남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임.

-아울러 연수과정에서 실시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작성하고 강의노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연수 참가자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동일한 강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있음.

〈전문가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은 2001년의 경우 3분야에 3명을 파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극히 적은 수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미지수임.

-향후 연수생초청사업 규모는 축소하고 대신 전문가파견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전문가파견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 혹은 개별 파견방식에서 6개월 이상 장기 파견 및 프로젝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 있음.

〈봉사단파견사업〉

-해외봉사단과 협력요원의 활동영역은 주로 한국어 교육, 태권도, 간호, 기타 농업기술 지원인데 베트남 측의 평가가 아주 높은 편이고 양국 간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봉사단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각 분야에서 진출하고 있는 NGO와 협력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임.

〈개발조사사업〉

-개발조사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점검작업 성격을 갖는데, KOICA 개발조사사업은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EDCF의 투자 프로젝트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개발조사사업은 당연히 연수사업이나 전문가 파견 및 물자지원 등의 사업들과도 연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개발조사사업이 제 기능을 했을지 많은 의문이 제기됨.

〈물자지원사업〉

-물자지원사업은 무상원조가 시작된 1992년부터 최근 2003년까지 1,090천 달러 상당의 물자 및 현금이 지원되었는데, 동 사업은 단독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및 전문가 등 파견인력 활동과 연계추진 시 사업효과 제고가 기대됨.

〈프로젝트사업〉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총 25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베트남의 빈곤퇴치 및 인적자원개발 등 베트남의 개발계획에 가장 종합적·가시적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원조사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KOICA의 프로젝트사업은 연수생초청사업이나 전문가파견사업 등 다른 ODA 사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또한 각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타당성 또는 근거(rationale)가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되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아 사후에 프로젝트의 실효성 평가도 어려운 상황이 많음.

〈NGO지원사업〉

-베트남에 대한 국제 NGO지원활동은 199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KOICA의 NGO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음.

■ 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개발원조자금(ODA)은 유상원조자금과 무상원조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원조는 EDCF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KOICA에서 담당

-베트남에 대한 지금까지의 EDCF 지원 사업은 7개 사업 1,563억원으로 지원금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사업별로는 티엔탄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의 경우 지출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중에 있으며 백신생산공장 건설사업, 하이퐁 고체폐기물처리 사업 등은 구매계약 체결중임.

-수출입은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DCF가 제공할 자금의 사전조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는 사전조사사업의 위험부담 때문에 KOICA의 무상원조사업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

•그러나 베트남의 EDCF 사업이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의 결과 성사된 것은 N-18 도로개량사업밖에 없으

며, 이것은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 사업 사이에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임.

• 따라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EDCF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사사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식개발 사업이어야 할 것이고, EDCF가 준비 중인 사업은 KOICA를 통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원조가 점차 무상원조화 되어가는 DAC의 추세에 비추어 보아서 국가별, 원조형태별로 유-무상 원조의 배분정책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KOICA와 EDCF 사이에 업무분장과 협력관계에 관한 보다 명확한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

■ 다른 원조기관과의 협력사업

- 다른 원조기관(양자 및 다자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전례가 없음.

- 협력사업은 소규모인 한국의 원조사업의 효과를 배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

■ 문제점 정리

- KOICA사업은 현재까지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원조수단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對베트남 개발원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원조사업 분야설정도 우리 측과 베트남 측이 정례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베트남의

일방적인 사업신청과 한국의 승인이라는 요청주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베트남 개발을 지원할 수 없음.

- KOICA의 ODA사업은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자원봉사단파견, 개발조사, 프로젝트, 그리고 NGO사업 등 원조수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없음.

- 더욱이 투자 프로젝트사업은 어느 정도 사전·사후 평가제도가 수립되어 있지만 다른 형태의 원조에서는 각각의 사업목적과 예상효과에 관한 사전 분석이 없거나 미약하고 따라서 사후평가도 심도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사업수단별 협력사업 추진은 수요자 중심(costumer-focused)의 수요충족(demand meeting)보다는 소규모인 KOICA의 조직과 인원의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추진방식으로서 공급자위주(Supplier-Oriented)의 사업추진이 되기 쉬움.

-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개의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 KOICA의 발간문서를 토대로 보면 평가가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이중 5개의 프로젝트에 그치는 것으로 보임.

- 원조사업의 집행 중에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이 미

약하여 원조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는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정하며, 재조정하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KOICA의 연수생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연수보다 베트남 국내의 연수기관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훈련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지식기반경제가 전 세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베트남도 개발조사사업을 통하여 자체의 지식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조사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원조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문제가 됨.

- 이상과 같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베트남 개발지원사업은 적은 ODA 예산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원조가 다른 원조기관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KOICA사업이 신속하게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베트남 측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

• 이러한 긍정적 결과 덕분에 베트남은 UN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 전쟁 격전지인 중부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반한 감정도 현저히 개선

• 지금까지 KOICA사업은 개발원조 경험이 없는 신흥 공여국의 원조사업으로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제 신흥 공여국의 단계를 지나 제2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III. 對베트남 援助事業 計劃

1. 원조사업전략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협의

– 한국의 對베트남 원조는 앞으로 3개년 원조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순차적으로 3개년계획을 수정 · 보완함(3-year rolling plan).

■ 정책대화(Policy Dialogue)의 정례화

– 베트남정부로 하여금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기초하여 무상원조사업 요청서를 매년 4월 초에 제출하게 하고, KOICA는 원조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에 비추어서 수원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중장기 원조계획초안을 매년 8월 이전에 만들.

- 이 초안을 매년 가을 정례고위정책회의에서 베트남당국과 최종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그 집행방법을 논의
- 이러한 방식은 원조계획이 베트남의 경제사회개발정

책의 큰 틀 안에서 논의되게 하여서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수요와 연계성을 가지게 하며, 원조사업의 효과를 고양시킬.

- 또 베트남이 중장기원조계획의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또는 일시적 필요에 의한 원조자금을 신청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참여(partnership)와 주인의식(ownership)을 강화하여, 원조사업의 집행단계에서 효율성을 고양시킬 것임.

– 따라서 최초의 원조사업계획안도 베트남정부와 2005년 하반기 초에 협의하여 2005년 말까지 확정하고 새해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목적(또는 효과) 중심의 원조사업 계획

– 원조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원조사업 계획을 구성, 즉 각종 사업을 그 추구하는 목적과 효

과를 기준으로하여 구분하고, 그러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원조수단이나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부차적으로 고려

– 원조사업 계획이 KOICA 조직의 바탕이 되는 원조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면 수단 간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지 않게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형태의 원조수단이 동원되지만 상호 간에 연계성을 잃고 추진되기 쉽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일 가능성이 많음.

- 또한 수원국의 정책적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demand-driven)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고 원조공여자(supply-oriented)중심의 사업계획이 될 가능성이 많음.

– 베트남의 경제개발계획과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경제성장촉진, 제도개선/능력개발, 빈곤퇴치/사회개발, 환경/자원 보전과 같은 분야에 중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의 무상원조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에 KOICA의 원조사업은 일본과 프랑스 등이 지원하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청되는 인프라투자보다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청되지 않는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 인력자원개발이나 사회발전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는 베트남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사회개발/빈곤퇴치의 두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베트남의 ODA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우선순위와도 일치한다.

- 한국의 비교우위와도 일치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

주도적 개방정책, 시장중심의 민간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인력개발과 기술개발분야에서 한국의 축적된 경험을 전수받고자 한다.

– 경제성장을 위하여 직접투자보다는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나 공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이 자본을 동원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해야 함.

– 또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기반이 되는 공공행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제도를 개발-개선하고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는 관리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원조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적은 원조규모를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밖에 두 정부가 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이 있으면(예: 긴급재난구호사업, 특수목적의 자원봉사사업이나 전문가파견사업, NGO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의 프로젝트로서 신축성있게 조정하고 원조계획에 흡수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프로젝트 중심으로 원조사업 재편성

–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원조수단을 포괄하도록 원조사업을 재편성하고 원조사업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전-사후평가를 심도있게 시행

-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와 『기술지원 프로젝트』로 나누어지는데, 투자 프로젝트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물적-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파견, 봉사자파견, 연수생훈련, 연구조사 등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음.

- 다른 나라의 원조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평균 총사업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관례
- 이것은 원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투자사업이든지 기술지원사업이든지 동일하게 심도있게 해서 원조자원의 낭비를 막고, 또 가능한 모든 원조수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게 하고, 원조수단 상호 간에 연계성을 가져서 목적과 목표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연구조사사업의 확대

–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개도국은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지식기반 경제의 규모와 발전속도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심함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따라서 베트남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식기반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의 원조사업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의 확대는 연구조사사업에 크게 의존
-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EDCF의 차관사업으로 신청이 고려되고 있거나 이미 신청이 되어있는 프로젝트가 사전조사사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러한 사전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초기에 집행하도록 원조계획을 신축성있게 작성·보완함.

■ 북부와 중부 빈곤지역에 중점

- 소규모의 원조를 효율적이며 과시성있게 추진하려면 일정한 지역에 집중 투자함이 효율적임.
- 원조사업 계획은 북부와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조사에 더욱 중점을 둬.
-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빈곤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발전도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빈곤퇴치의 목적에 부합
- 중부와 북부지역은 주류 인종에 비하여 빈한한 소수민족이 많음.

– 특히 중부지역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곳이기 때문에 對한국감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므로 이곳에 집중된 투자와 기술지원은 한-베트남 간에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

■ 원조사업 규모의 점진적 확대

- 지금까지 매년 400만 달러(2003년) 내지 500만 달러(2004년) 수준의 원조를 승인해 왔지만 앞으로 3년간은 매년 700만 내지 1,1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
- 베트남은 아직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 450달러에 머물고 있는 빈국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한 한층 높은 수준의 원조사업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배양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또한 베트남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동의 질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임금수준은 상당히 저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지로 그 여건이 양호함.

- 더욱이 베트남은 인도차이나의 중심국가로서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APEC이나 WTO 등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역내 지지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對베트남 무상원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상품홍보와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베트남 투자 선점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다른 양자 및 다자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

2. 원조사업계획(2006~2008)

■ 사업의 규모와 내용

목적/효과	원조액(백만 달러)	원조사업 수
1. 경제성장촉진	3.5	6
2. 제도개선/능력배양	7.0	9
3. 빈곤퇴치/사회개발	13.1	19
4. 환경/자원보전	1.0	1
5. 특수목적	0.6	–
총계	25.2	35

– 對베트남 원조의 규모를 상승 조정해 나간다는 전

략에 따라 제1차년도에는 7백만 달러(약 10개 사업)에서 2차년도에는 700만~800만 달러(약 13개 사업), 그리고 3차년도에는 1,000만~1,100만 달러(약 12개 사업)의 수준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함.

– 경제성장촉진사업으로는 공기업의 주식화를 촉진하여 민영화를 도모하며, 이미 주식화된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공기업개혁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하고(2006년 50만 달러) 후속 투자사업이 예상(2008년 50만 달러)

- 증권시장과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영부진을 개선하여 국민의 저축은 물론, 대량의 국내외의 금융자원을 원활히 동원하여 투자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금융산업개혁연구조사사업을 포함(2007년 50만 달러)
- 한국의 KOTRA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설치·운영 가능성과 특실을 연구조사하는 해외무역투자개발 공사설치 타당성 조사사업 포함(2006년 50만 달러)
- 해외무역과 투자가 증대하고 외국인의 대 베트남 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이 실시되고(2007년 50만 달러) 후속 투자사업이 예상(2008년 1백만 달러)

– 제도개선/능력개발사업으로는 공기업의 간부와 공무원,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투자사업관리집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베트남 내부에 관리자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수도 하노이 시에서 시작(2006년 50만 달러)

- 이 사업은 집행과 성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 특히 중부 지역의 도시에 설치하는 제2, 제3의 사업이 2007년

- 과 2008년에 실시 될 것임(각각 50만 달러).
- 행정개혁, 특히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하여 어떤 투자가 필요할 것인가를 연구조사하는 사업이(2006년 50만 달러) 투자사업에 선행될 것임(2008년 2백만 달러).
- 투자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2008년 1백만 달러) 사전에 그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이 선행될 것임 (2007년 50만 달러).
-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담보의 수단이며 주택건설과 보급의 기초가 되는 토지관리와 그 활용에 관한 행정을 개선-개혁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실시되고(2007년 50만 달러) 뒤이어 실제 투자가 수행될 것임(2008년 1백만 달러).
- 사회개발/빈곤퇴치사업으로는 빈곤퇴치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폭넓은 사회안전망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조사사업이 시행되지만(200년 50만 달러) 특히 매년 닥쳐오고 빈곤인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연재해의 예방과 사전경고 및 대처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조사사업이 먼저 시행 (2006년 50만 달러)
- 중부지역 등 빈곤지역에서 학비때문에 전문인력양성의 기초가 되는 고교진학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험적으로 실시되어서(2006년 30만 달러) 성공적이면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속(2007년과 2008년)
- 정규교육부문 투자사업은 이미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건설과 개선사업이 중부지방 등 빈곤지역에서 제3차 및 4차 사업으로 실시(2006년과 2008년)

- 초등교육의 기초가 되며 빈부의 차이를 자아내는 기초적 원인이 되는 유치원사업(교실, 놀이시설 및 기자재 공급)을 빈곤지역에 실시(2007년과 2008년에 각각 40만 달러)
- 비정규교육 분야에서는 EDCF에 신청되어 있는 5개의 직업훈련소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연구하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안정사업의 강화방안을 연구조사하는 사업을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실시(각각 70만과 30만 달러)
- 중부나 북부의 빈곤층에게 『빈곤층 건강보험카드사업』을 2006년에 시범실시하여 성공적이면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지원(각각 30만 달러)하고 중부나 북부 빈곤지역의 마을보건소를 재건설하거나 개선하여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0만 달러) 기초의료와 예방의료의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함
- 지역병원의 건설을 중부나 북부의 빈곤지역에 제3차와 4차의 사업으로 2007년과 2008년에 실시(각각 1백만 달러). 이러한 지역병원 건설사업에는 종래에 따로 독립적으로 제공되었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사업이 흡수되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1999년부터 새마을 지도자 사업과 투자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후속 투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농촌개발 사업을 2007년에 실시(50만 달러)
- 환경 - 자원보존 개선사업으로서 긴 해안선을 따라 해양수산자원을 채취하고 있고, 내륙의 강과 호수를 이용하여 수산물 양식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자원 규모와 지속가능한 채취 -이용

- 의 확대가능성을 연구조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투자에 기초가 되며,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유용한 사업이 될 것임 (2007년 1백만 달러).
- 특수사업으로는 위에서 분류한 제한된 목적에 속하지 않지만 독립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예: 긴급재난구호사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수의 소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예: NGO 지원사업 등)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유보토록 함(각각 20만 달러).

- 이러한 기능은 각국에 주재하는 직원들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지 주재 직원에게 일임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단기 채용할 권한과 예산까지 위임해야 할 것임.

■ 사업성과 측정지표

- 3개년 원조사업의 집행 속도를 점검하고 사업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조사업계획 전체의 집행실적을 측정하는 지표와 각 개별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작성하여 이용할 것임.

3. 원조사업계획의 집행

■ 원조사업의 원만한 설계와 사전평가

- 원조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KOICA 직원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 이외에 사업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를 단기로 고용하는 제도를 확대함.
- 기술지원 프로젝트제도를 도입하여 투자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의 사전평가를 실시
- 투자 프로젝트의 사전심사도 더욱 심도있게 진행

■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원조사업의 집행 중에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원조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는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정하며 재조정하도록 함.

4. 원조사업의 위험관리

- 계획기간에 원조사업이 당면할 정치적·경제적 위험은 많지 않으나 공기업 개혁이 지연되거나 또 WTO 가입이 금년 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위험의 사전예방이 필요

- 중장기 원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KOICA의 조직과 운영절차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위험이 증가한다.

- 단기적으로는 베트남은 국가별로 중장기 원조계획을 수립하려는 KOICA의 정책을 시험하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KOICA 전체의 조직을 개혁하기 전에 베트남만을 위한 소규모의 특별작업반

(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특별작업반은 베트남의 중장기 원조계획 담당팀 (country programming unit)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능력있는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험사업이 갖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프로젝트의 숫자와 액수가 늘어나서 KOICA는 더욱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인력 확보가 적기에 되지 않으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현지에 파견된 사무소 직원의 효율적 활용이 인력 확보상의 위험을 감소시켜 줄 것임.

• 본부와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소에 과감한 권한 위임이 필요한데, 본부는 사업계획 수립, 정례적 정책협의, 사업계획 확정과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에 주력하고 사무소는 사업준비와 집행점검, 수원국과 다른 공여국과의 통상적이면서도 긴밀한 협의에 주력하면 인력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사업집행의 점점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건의하는 사업집행점검보고서를 전산으로 양식화하고, 1년에 매 사업당 2번 본부에 제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연구조사사업이 증가하고 전문가 단기고용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증액이 필수적이며, 각 분야별로 단기통보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전문가 확보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은 정규직원의 급격한 증원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의 적기집행을 위해 유용함.

■ 고교장학금 지급이나 건강보험카드 지급 등 현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므로 대상자 선정과 현금의 지급에 부정과 정실이 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베트남을 위한 中長期 援助事業 計劃



I. 베트남의 發展趨勢와 課題

II. 最近의 對베트남 支援戰略과 프로그램

III. 對베트남 援助事業計劃



I. 베트남의 發展趨勢와 課題

1. 政治的 發展

헌법상으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대통령에 의하여 대표되고 (현재 Tran Duc Luong), 대통령과 내각(현재 수반은 Phan Van Khai)은 국회(National Assembly: Quoc Hoi)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98명의 국회의원은 매 5년마다 선거되며, 마지막 선거는 지난 2002년 5월에 시행되었다. 정기국회는 매 2년마다 소집되기 때문에 유일한 정당인 공산당(특히 상임위원회: politburo)이 사실상 내각을 통제하며, 국회의원의 선거과정을 책임진다(현 당서기장은 Nong Duc Manh). 따라서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와 국회와 당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고,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입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군사

법정과 지역인민법원이 각각 2심과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성(province)과 시(municipality)는 각각 구(district)와 군(villages)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선거에 의해 조직된 인민위원회(people's council)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 經濟社會的 發展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의 회고(1986~1999)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중진개도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바다 건너 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600km 한도 내에서 인도차이나의 내륙국인 캄보디아, 라오스와 긴 경

계를 이루고 있고 동쪽으로는 3,400km의 긴 해안선을 이루고 있어서 수산·해양업과 연안석유와 가스전을 가지고 있다.

국토의 3/4는 산악지역으로서 임야가 대부분이고 경작지는 17%에 불과하고, 그 절반만이 수리관개농업을 하고 있다. 이 경작지는 북쪽의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와 남쪽의 메콩강 삼각주(Mekong River Delta)에 집중되어 있어서 8천2백만 인구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같이 높아서 평방km당 230명에 달한다. 그 결과 인구의 74%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 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연간 인구 증가율이 1.3%에 불과하지만 25%에 가까운 인구가 10~20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 이므로 이들에게 생산적인 취업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이 베트남경제가 당면한 중요과제 중의 하나이다.

베트남의 경제는 1986년에 “도이 머이(재건)” 개혁을 시작한 이래 연 평균 7%라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1998~99)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급속히 회복하였다. ‘사회경제안정과 개발전략:1991~2001년’을 통하여 ‘도이 모이’는 재정과 경제의 안정과 개발을 도모하고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이전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와 농산물가격에 관련된 농업부문 개혁을 시작하여 식량을 증산하였고, 다음에는 다른 수출용 작물(쌀, 커피, 캐슈, 고무, 차, 후추 등)의 증산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유용한 외환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통하여 베트남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GDP 규모는 2배로 증가하였고, 국민저축률도 GDP의 27%에 달하게 되었다. 경제구조도 크게 변하여 농업 등 1차 산업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7%에서 24.3%로 감소되었고, 2차 산업은 22.7%에서 36.6%로 크게 증가하였고, 서비스 산업도 38.6%에서 39.1%로 다소 증가하였다. 국민경제의 주체는 주로 공공부문이었으나 공기업도 일부 개혁을 시작하였고, 집단경제체제도 변화하여 경제 전체로는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개인과 사기업이 생겨나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되어 생산과 분배의 모든 면에서 창조적 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다. 한때 교역금지와 봉쇄를 당했던 경제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지역경제기구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수출의 증가율은 GDP성장률의 3배에 달하게 되었고, 외자와 함께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국민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1986년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은 4배 가까이 늘어났고, 매년 신규취업기회는 1천2백만 내지 1천3백만씩 늘어나고, 교육과 보건 수준도 놀라보게 향상되었다. 초등교육과 문맹퇴치 목표는 달성되었고 중등교육의 100% 취학률을 목표로 하는 도시와 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생 수는 6배나 증가했고 직업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었다. 인구의 증가율은 연 2.3%에서 1.4%로 감소하였고, 평균 수명도 65에서 68세로 증가하였다.

2) 장기발전계획(2000~2010)

베트남정부는 ‘사회경제개발 전략 2001~2010’을 통하여 저개발경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2020년까지 현대화된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과 과학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하고 국제경제와 통합하며, 국방과 외교능력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장기 전략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의 총규모 면에서 매년 7.2% 이상 성장하여 국민소득을 2000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품, 기업 및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 교역수지 및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 및 외채의 상상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저축률은 GDP의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출은 GDP 성장률의 두 배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농업 등 1차산업은 GDP의 17%, 공업 등 2차산업은 41%, 그리고 서비스 등 3차 산업은 43%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목표의 달성은 사회발전과 형평의 달성 및 환경의 보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성장률을 1.1%~1.2%로 제한하고 빈곤가구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도시 실업률도 5%이하로 달성하며 농촌의 노동력활용도를 80~85%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훈련받은 노동력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며中等교육의 취학률을 90% 이상으로 인상하며 보건수준도 상승시켜서 유아의 영양실조율을 20% 이하로 저하시키고, 평균수명을 71세로 연장시킨

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산업별 분포는 농업인구가 49%로 감소하고 공업인구가 24%로, 서비스 산업인구가 27%로 상승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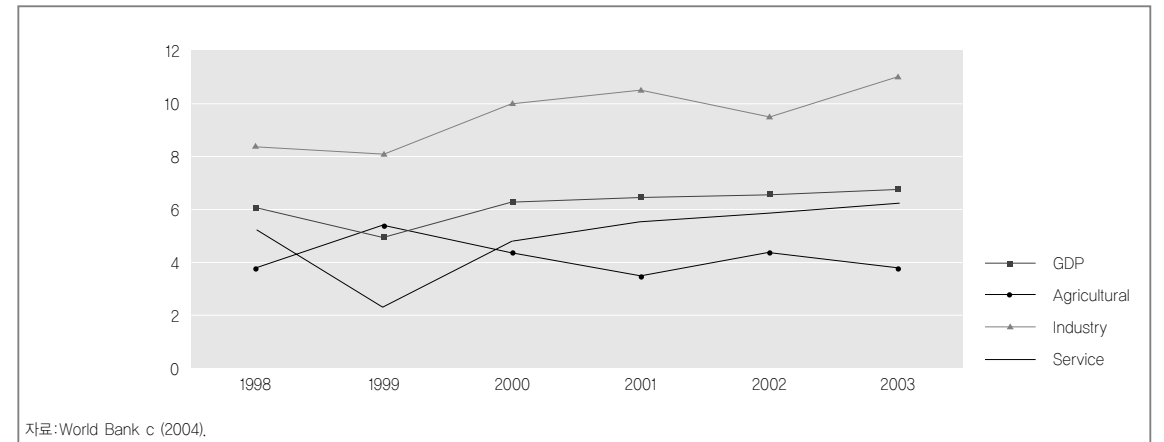
3) 최근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2000~2005)

베트남정부는 ‘사회경제개발 전략 2001~2010’의 목표를 두개의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장기발전전략의 전반 5년(2001~2005)을 회고하면, 베트남 경제는 놀랄만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경제규모는 계속 커왔고 경제구조도 다변화되고 심화되었으며, 국민개인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어서 사회적,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사회, 경제면에서 능률적인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개혁을 주도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첫째, 경제는 고도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왔다. 국제테러의 발생,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국제경제의 침체와 같은 국제적 악조건과 사스(SARS)의 만연과 비정상적인 기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평균 7.4%의 고도성장을 유지해왔다. 농업 등 1차 산업은 연 평균 3.4% 성장하였으며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10.9%, 서비스산업은 6.9%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그림 I-1 참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25%에서 19%로 계속 줄어왔으나 공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37%에서 42%로 신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5년 말이면 베트남의 국민소득은 500억 달러에 달하고, 일인당소득도 600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1〉 GDP와 경제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농업 등 1차 산업은 점차 시장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농촌경제도 점차 수출중심으로 다변화하게 되었다. 연평균 농업은 3.7%, 임업은 2.5% 성장하였으며, 수산 양식업은 11.8% 성장하여 1차 산업생산액의 16%에서 21%를 차지하게 되었고, 농업의 비중은 오히려 80%에서 75%로 줄었다. 농민소득은 주생산품의 가격과 생산량 인상을 통하여 증가하게 되었다. 또 많은 촌락이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향하여 도로, 수리관개, 전기, 수도, 학교, 보건소, 시장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의 생산과 소득 구조가 다변화하여 경공업이 농촌 전체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서비스산업이 15%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석유와 가스 외에 제조업부문으로 확대되어(가공수산물, 섬유, 의류, 신발 등), 지난 1994년 이래 수출은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연평균 15.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소유의 형태도 다변화하여 국영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11% 증

가하였지만 비국영기업의 성장률은 19%,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률은 20%에 달하였다. 소유의 다변화는 규모, 기술, 상품과 경영기법에 다양성을 가져왔다.

서비스산업도 구조가 변화하여 상업은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관광업은 급속히 증가하여 방문객이 2000년의 2.1백만 명에서 2005년에는 3.2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통신산업도 급격히 현대화되어서 그 가격이 지역 내의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금융, 은행, 보험, 회계, 법률, 전자통신, 교육, 보건, 훈련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서비스도 놀라운 증가를 보였다.

지리적으로도 사회경제발전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홍강 델타지역과 메콩강 델타지역 및 남동지역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어 왔다. 새로운 경제구역이 설정되었고 국경지역과 산업지역, 공업과 축산업의 특구지역이 생산증가에 공헌해왔다.

총지출과 저축의 균형과 재정의 균형이 향상되었다.

총지출은 연 6.2% 성장하여 국민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총저축도 상응한 증가를 보여서 총지출과 저축 간의 불균형이 점차 좁아졌다. 재정지출도 연 15% 증가하여 GDP의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수입도 연 15% 이상 증가하여 GDP의 23%에 달하게 되었으며, 재정적자를 GDP의 5% 이내로 줄이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기복을 보였으나 (2001년의 0.8%, 2002년 4%, 2003년 3%, 2004년 9.5%, 2005년 5%예상) 연평균 4.5%에 머물렀다.

투자재원의 확보는 2001년 GDP의 34%에서 2005년 37%로 증가될 것이며, 2000년 불변가적으로 계산하면 장기 전략의 목표를 16% 상회한다. 재정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하여 재정지출과 재정관련 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총재정지출 중 경제발전지출이 30%를 차지하였다. 재정지출은 총투자자본의 23%를 차지하게 되었고 재정융자는 14%, 국영기업체투자는 17.5%, 개인 및 사기업 투자는 26%, 외국인직접투자는 16.4%, 기타는 3.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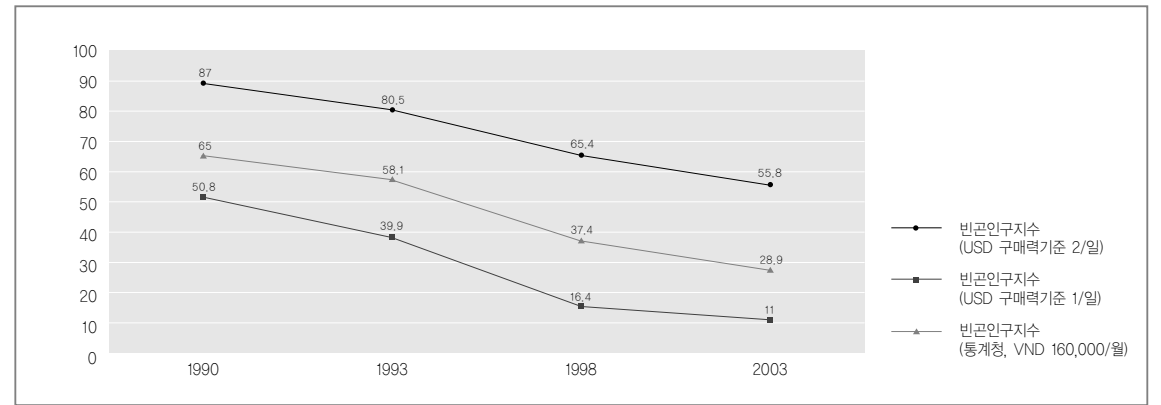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는 초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개선된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과 사회-정치적 안정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5년간 외국인 신규투자의 총합계는 150~160억 달러에 달했고 (연평균 30억 달러), 국민소득의 약 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투자의 총액도 130억 달러에 달해서 목표치를 21% 상회하였다. 외국인 기업체는 GDP의 14%를 생산하며, 가스와 석유를 제외한 수출액의 25%에 기여한다. 또 재정수입의 4.9%를 충당했으며 83,000명의 직접 취업효과를 유발하였다.

공적원조자금의 흐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에 체결된 공적원조자금은 133억 달러(연평균 27억 달러)이다. 원조차관이 103억 달러이며 무상원조가 30억 달러(연평균 6억 달러)였다. 실제로 지불된 총 금액도 82억 달러에 달했으며 (61%) 대부분의 공적원조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수출입부문의 확대도 괄목할 만하다. 2002년과 2003년에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나 5개년 전체를 보면, 수출과 수입은 연평균 약 14% 증가하여 수출입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품목별 수입구조도 점차 개선되어서 기계나 부품의 수입은 2000년의 30.6%에서 2005년에는 32.6%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료 및 연료의 수입은 63%에서 61%로 하락하고 소비재의 수입도 6.2%에서 6.4%로 근소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의 확대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 및 EU 시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며, 특히 미국시장의 개방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001년에 발효된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을 전환기로 삼아서 對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5.1%에서 2003년에 19.5%로 성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2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양자 간 및 ASEAN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이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베트남은 2005년 말까지 WTO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2〉 각종 빈곤인구지수(Poverty rates by various poverty lines, %)



자료: GSO, MOLISA and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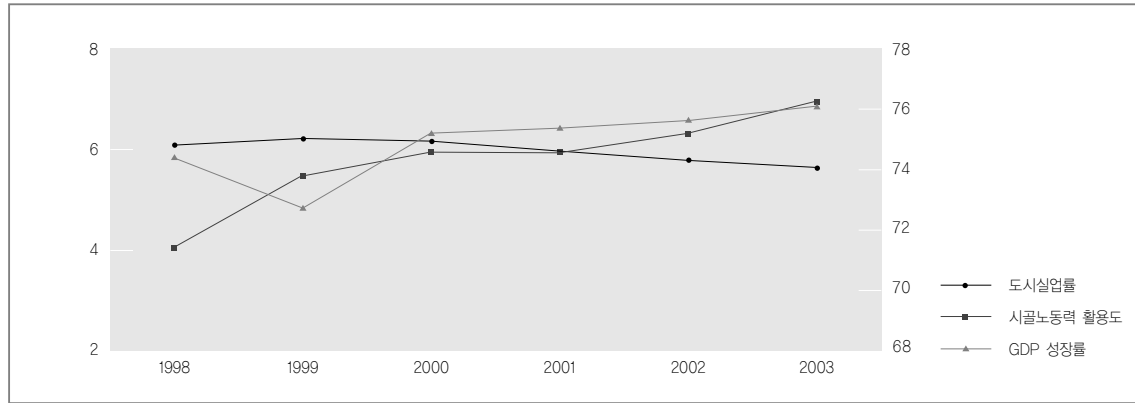
해외부채는 대부분 개발투자를 위해서 도입되었고, 경제성장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채의 규모는 아직도 낮아서 부채상환액의 수출대비 비율이 10% 이내이며 총 해외 부채는 GDP의 40%를 넘지 않고 있다. 또 외환보유고도 해외송금, 외국인 투자, 공적외국원조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적정량으로 축적되어서 적어도 10주 이상의 수입대금을 감당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국내송금만 2003년에 25억 달러에 달하였다.

둘째, 높은 성장률과 안정된 가격에 힘입어서 각계 각층의 모든 국민들의 개인소득도 꾸준히 상승하였고, 빈곤가구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서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먼저, 개인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1~2002년의 개인소비는 월평균 268,000동(Dong)¹⁾으로 1999년에 비하여 21.2% 증가하였고, 비도시지역의 개인소비수

준도 210,000동으로써 18% 증가하였다. 다음에 기아를 구축하였고 빈곤가구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0만 이상의 가구가 빈곤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2002년의 가구별 생활수준통계에 의하면 국제기준(최저 칼로리의 섭취를 위한 식비와 이에 상응하는 비음식비를 위한 1개월 개인소득 160,000동)에 의거한 베트남의 빈곤인구지수는 1990년의 65%에서 2002년에는 29%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26%로, 2004년에는 다시 24%로 감소하였다(그림 I-2 참조). 고립된 지역의 주민은 아직도 수확기 직전의 기아에 대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기아대책구호금을 받는 주민수가 2백만 명이었지만 2001년에는 그 수가 150만 내지 17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1) 베트남 화폐단위로써 1000동(Dong) 은 약 80~90원에 해당하며 미화 1달러는 약 14,000동임.

〈그림 I-3〉 GDP성장률과 고용(% , 좌축) 및 농촌 노동력활용도(% , 우축)의 관계



자료: World Bank c (2004).

2002년에 정부는 ‘종합적인 빈곤퇴치와 성장전략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을 개발하여 성장과 함께 빈곤퇴치운동을 전국적으로 펴왔고, 세계은행과 IMF에 해마다 그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상의해 왔다. 가장 기본적인 빈곤퇴치 전략은 고도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국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과연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상반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3 참조).

정부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맞추어 ‘베트남의 개발목표(Vietnamese Development Goals: VDG)’를 설정하여 빈곤층의 교육, 보건과 여성과 청소년보호 등에 중점을 둔 특별한 사회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빈곤인구감소와 초등학교 취학률 등에서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목표도 2010년 내지 2015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표 I-1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해왔다(예: ‘한 개의 지붕-물탱크-황소’ 모델 재로개발지역 및 생상품판매조직 가옥개선을 위한 협력 등). ‘베트남 조국전선’ 등의 비정부기구들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곤층에 초점을 둔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사회정책은행’도 빈곤퇴치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조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빈곤퇴치를 위한 건설공사사업이나 큰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창출은 빈곤퇴치운동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단체와 대중조직을 동원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채택하였다. 신용대출, 직업 상담과 훈련, 농업기술지도, 노동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수출특화촉락개발, 대학졸업생의 농촌 파견, 노동력해외송출, 고용박람회(Employment Fair), 국영기업의 개혁, 기업법의 제정 등 모든 방법이 빈곤퇴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기업법 제정은 6만 개의 새로운 기업의 창출과 150만 명의 취업을 유도하여서 베트남 국민의 자본주

의적 기업정신을 입증하였다. 고용박람회는 2003년 한 해에만 12곳에서 열려서 매회 70여 개의 기업과 40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참가하였다. 근로자해외송출도 매년 증가하여 2003년 한 해에 5만5천명이 해외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5년 사이에 총 750만 명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새로운 취업기회는 농업분야에서 창출되었고 전통적 수공업촌락과 수출특화촌락, 그리고

신 경작지개발지역과 공업수출 공단지역에서도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등 사기업부문에서 취업기회가 현저히 증가하여(2002~2003년에 4만 명), 공기업의 고용창출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 제조업에서 사기업은 생산액의 1/4을 차지하지만 공기업보다 4배에 가까운 고용창출효과를 보였다. 한 명의 취업기회를 창출하는데 해외투자기업은 5억 동을 투자해야 하고 공기업은 약 2억 동을 투자해야 하지만 사기업은 1억 동만 투자한다.

〈표 I-1〉 베트남의 빈곤퇴치 목표와 진행상황

	1990	2003	2010
1. 기아근절-빈곤퇴치			
① 1990~2015: 하루 1달러 이하 소득 인구를 반감	65.0%	24%	7%
② 기아 근절	30%	11%	4%
2. 보편적 교육			
① 초등교육 취학률(적령아동대비)	87%	91%	100%
② 중등교육 취학률(적령아동대비)	NA	67%	90%
3. 양성평등	(1992)	(2000)	
① 초등교육 남녀 취학률 대비	99.6%	98.1%	100%
② 중등교육 남녀 취학률 대비	86%	93%	100%
4. 아동보호			
① 1990~2015: 5세 이하 사망률 2/3 줄임(1,000명당)	58	40	32
② 1세 이하 사망률		26%	
③ 5세 이하 영양실조율	44%(1987)	29%	20%
5. 모성보호			
1990~2015: 산모 사망률 3/4를 줄임(100,000당)	249	165	62
6. HIV/AIDS			
① 발병률		0.28%	0.14%
② 말라리아 사망률(100,000명당)	NA	NA	200건
7. 환경보존			
국토 중 자연림의 범위	27%	36%	43%
8. 안전식수 보급률	48%	56%	85%
9. 주택보급			
간이주택 거주자	36.5%(1993)	23.6%	12%

자료: Steering Committee, UNDP, World Bank

셋째, 새천년개발목표에 상응하는 베트남의 개발목표 중 중요한 교육, 보건, 환경지표를 상당부분 달성하였거나 만족할 만한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문에서 중요한 목표는 문맹자를 퇴치하고, 초등과 중등교육에서 남녀차별 없이 완전취학률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15~24세의 성인사이에 문맹률은 5%에 불과하고 남녀 간의 차이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유치원 취학률은 계속 상승하여 3~5세 어린이의 4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립 유아원과 유치원 수는 눈부시게 증가하여 사립의 비율이 2000년에 51%에서 2003년에는 62%로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적령아동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지만 취학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1990년에 87%에서 2003년에는 97%에 달하였다. 졸업률도 99%를 상회하고 97%의 졸업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87%의 교사들이 정부의 기준에 맞는 자격교사이다. 중등학교 취학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 78%에 달하였고, 76%의 졸업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교사의 91%가 자격교사이다. 고등학교 취학률과 자격교사의 비율은 38%에 머물러 있다. 대학교육과 직업전문학교도 급증하였다. 대학생 수는 약 180개의 대학에서 90만 명을 초과한다. 교육에서의 경이할 만한 진전은 정부가 사회부문의 투자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지출은 2001년에 15.6%에서 2004년에는 18%로 증가했다. 예산 외에 정부는 교육공채를 발행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왔다. 2003년 말까지 3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어지고 임시학교시설도 1/3이나 대체되었다.

넷째, 보건 분야에서도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 유아사망률이나 산모사망률은 국민소득 수준이 베트남의 2~3배 되는 국가수준만큼 줄어들었다. 유아사망률(5세 이하)은 1990년의 5.8%에서 2003년에는 4.0%로 줄어들었고, 신생아 사망률(1세 미만)도 1987년의 44%에서 2002년에는 26%로 줄어들었다. 유아 영양실조율(5세 이하)도 2003년에는 29%로 줄어들었다. 유아의 6개 예방접종률도 95%에 이르고 있어 이웃나라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무료건강보험중도 2003년에 빈곤층의 23.2%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라리아와 TB 퇴치운동은 후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피임기구 활용도는 75%에 이르러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높다. 무엇보다도 전국 마을의 99%가 보건소를 가지고 있고 그중 30%는 정부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의약품의 40%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섯째, 지난 수년간 정부의 투자우위는 기간사회간접자본건설에 주어졌다. 특히 빈곤지역과 농촌 산악지역에 보건소, 위생적 식수공급, 전기 공급, 도로건설, 관개시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골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고 빈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 결과, 시골 주민 중 97%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40%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받으며 80%가 전기공급을 받으며, 도시 주민의 77%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받으며 전체 마을의 97%가 자동차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가정의 85%가 TV시청을 할 수 있으며, 93%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여섯째,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공업화, 현대화, 국제

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개발, 농업생산, 과학기술연구능력배양, 첨단산업단지개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등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농촌과 산간지역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3개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모델을 식량재배, 과수재배, 산림녹화 사업 등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하여 석유, 가스, 전기, 통신, 조선, 의류, 음식료,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주물,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작에 활용하여 기술의 향상을 보았다. 또 정부예산에서 과학기술능력배양에 할당된 비율을 높여서 100여 개의 연구소에 투자하여 40개가 건설되었고, 16개의 실험실이 완성되었다. 특히 호치민, 다낭, 하이퐁 등에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호아락과 호치민에 대규모 첨단기술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사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곱째, 정부는 종합적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현대적 지배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종합적 행정개혁은 궁극적으로 능률적인 당(黨)의 리더십 형성과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건설, 그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제도개혁,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개혁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실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법령공고 및 홍보절차의 개혁, 행정기능과 조직의 개혁, 공무원 감축, 공

무원의 효율성 제고, 급여제도 개혁, 재무행정 개혁, 전자행정을 통한 행정의 현대화이다.

제도개혁은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성공적인 개혁이다. 그 주안점은 시장경제와 민주화에 맞는 사회·경제의 개발과 행정 기능과 조직의 개선에 관련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입법사례는 외국인 투자법, 내국인 투자법, 토지법, 기업법, 노동법, 민법, 예산법, 정부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 등이다. 이러한 법령의 기본 정신은 모든 기업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고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 차이를 감소하며, 행정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일련의 법령들은 행정의 능률과 대민 봉사를 향상시키고 투자가들, 특히 민간기업의 신뢰를 공고히 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행정개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기관은 정책결정, 법령공포실시, 계획수립, 지도감독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또 지방으로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이양되었으며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업 및 비사업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조직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인사개혁도 공무원의 기술과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채용, 훈련, 급여 등 인사관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재무개혁도 정부예산회계법의 제정을 통하여 4개 계층의 정부기관(중앙, 성, 지구 및 마을)의 재무행정(입찰, 계약, 지불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3. 當面課題와 挑戰(2005~2010)

1) 경제구조의 개혁

베트남의 가장 큰 당면과제 중의 하나는 주체별 경제구조를 신속히 개혁하고 시장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생산가(生産價)는 여전히 높고, 노동의 질이 열악하여 노동생산성은 낮다.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아서 외국인투자 특히, 합작투자는 부진하다. 아직도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정부와 공기업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지배되고 있고,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 1986년의 ‘도이 모이’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전이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공기업의 구조개혁은 그 속도가 떨어져왔다. 정부는 2005년에 724개의 공기업을 주식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중 340개의 공기업은 이미 2년 전에 그 계획이 공표된 기업이었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지연되어온 기업이다. 1992년 당과 정부가 공기업의 주식화 정책을 선언한 이후 2,242개의 공기업이 주식화되었지만 전체 공기업의 자본금 중, 이미 주식화된 기업의 자본금은 단 8%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미 주식화된 공기업 중 38%는 그 주식을 외부의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않았고, 외부의 민간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주식은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주식화된 공기업도 그 경영이 현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여 29%의 주식화된 공기업이 수입의 저하를 경험했고, 10%는 적자를 경험했다. 즉, 공기업의 구조개혁이 당면한 과제

는 조속히 경영을 개선하여 주식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식화의 속도를 높이며, 경영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외국인도 포함시켜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자원이 아직도 효율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또 능률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다. 저축률은 약 30%에 달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저축과 대출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수립되지 않았고, 이자율의 규제도 특혜를 받는 산업부문이 많아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재정수입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주로 자연자원의 채취와 활용에 근거하거나 재료 및 생산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지원이나 정책지원을 통한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건설 등 고정자본 투자 사업은 계획, 설계, 감리, 감독, 평가 등 관리의 모든 면에서 인적자원과 능력이 부족하여 낭비와 손실이 크다. 많은 국책투자사업의 집행이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자원과 능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상태이나 성장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성장은 주로 생산성이 낮은 기술과 많은 원자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산업과 상품에 의존하며, 고급상품이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수출도 원자재나 부가가치가 적은 상품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또 무역중개상을 통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중이 크다. 국제수지도 취약하고 점차 적자의 폭이 확대되어 거시경제운용을 저해할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주력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기술적인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베트남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 빈곤퇴치

베트남의 빈곤퇴치정책은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각적인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취업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빈곤층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빈곤인구의 약 90%가 농촌과 산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곤인구의 절대 수는 북중부, 북동부, 메콩델타, 중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빈곤인구지수는 북동, 북서 및 북중부 지역과 고지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악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연조건에 취약하며, 교통과 접근이 어려워서 자연재해가 많으며,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어 언어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어서 수혜자 1인당 빈곤퇴치를 위한 투자와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소수민족은 전체 국민의 14%에 불과하지만, 빈곤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리고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에서 지역적으로나

〈표 I-2〉 새천년 개발목적 달성의 지역 간 차이 (단위:%)		
목적 / 효과	상위 12개성(도)	하위 12개성(도)
빈곤인구지수	9	61
출산때 의료인 입회	74	43
영아사망율	10	60
예방접종(DPT3)	94	57
상수도 접속	97	32
하수도 시설 접속	75	12
초등학교 취학률(적령아만 포함)	98	83
여성 독해자	98	82

자료: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 (2004)

소득계층 간에 심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곤인구지수의 감소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빈곤인구지수가 1993~98년 사이에는 연평균 2.8%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1999~2002년 사이에는 2.1% 포인트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빈곤인구의 비율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한한 지역의 감소율은 더 작다. 특히 소수민족은 주류민족의 빈곤인구보다도 그 빈곤인구지수가 더 늦게 감소하고 있다(표 I-3과 그림 I-4 참조).

농촌의 빈곤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곤현상도 변하고 있으나 이주현상과 이주민이 당면하는 도시에서의 취업 및 사회부조서비스의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없어서 빈곤해소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등록되지 않은 임시 이주자나 허가가 없는 이주자들은 빈곤통계에 포착되지도 않고 빈곤해소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취학에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와 농촌사이에 또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에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1~2003년 사이에 농촌의 개인평

〈표 1-3〉 지역 간 빈곤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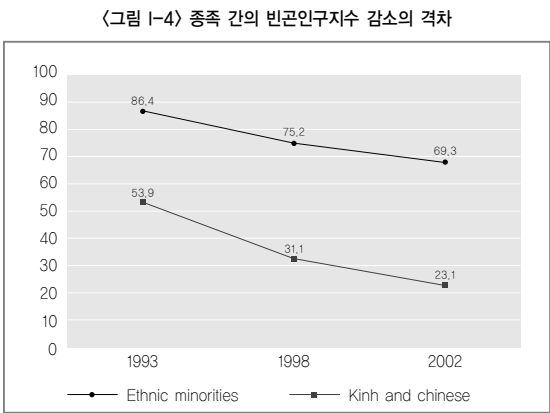
	1998	2002	변화(%)
전국	37.4	28.9	-23
- 도시	9.2	28.9	-28
- 농촌	45.5	35.6	-22
북부고원	64.2	43.9	-32
홍강델타	29.3	22.4	-24
북부중앙	48.1	44.4	-8
중앙해안	34.5	25.2	-27
중앙고원	52.4	51.8	-1
남동지역	12.2	10.6	-13
메콩델타	36.9	23.4	-37

자료: GSO, 생활수준가계조사, 1998, 2002

균소득은 도시의 44%에 불과했다. 도시의 평균소득은 농촌의 2.3배에 달했다. 1999년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격차가 전국적으로 7.4배, 도시에서는 7.6배, 농촌에서는 6.3배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13.9배, 14배, 9.4배로 각각 늘어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고, 매년 증대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농촌의 유희노동력은 줄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력의 과잉공급 상태이다. 예를 들면, 인구밀도가 높은 홍강 지역에서의 노동시간 활용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영농 활동에 노동력을 더 흡수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사기업과 외국기업의 취업기회 확대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유지해야 한다.

현존하는 자연재해 수습책은 효율적이지만 자연재해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는 미비하다. 자연재해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빈곤층을



자료: UN Country Team a (2004)

새로이 창출하기도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질병의 확대, 농토와 가축의 상실과 황폐화, 수확량의 감소는 새로운 빈곤층을 창출하거나 빈곤상태를 연장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온다. 특히 강의 범람과 홍수 등 자연재해는 매년 타이퐁 계절에 닥쳐오고 같은 지역을 강타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예방책이 미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는 자연재해의 예방계획과 정책의 수립을 강화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훈련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또 기후와 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확보험제도와 비상기금의 행정과 기금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의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그룹과 재정금융상의 위기를 통하여 심화되는 빈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그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예방계획과 사전경보조치를 취할 제도와 인력의 개발이 시급하다. 많은 인구가 빈곤선의 바로 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많은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되고(의료보험수혜자: 40%미만), 빈곤층은 소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게 될 때까지는 빈곤층을 목표로 한 사회부조정책과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조사업(social assistance program)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 기금이 미약하고, 또 수혜자를 빈곤층으로 국한하는 정책(targeting)과 행정능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많은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어 있으나 이들 단체의 정책과 관리자의 능력 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많은 격차가 있다는 당면과제가 있다.

3) 기본적 사회서비스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인 교육과 보건 분야는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 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주로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정책과 집행이 미비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 간 보건상태의 격차는 심각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중부 산악지역의 신생아 사망률은 동남지역과 홍강 지역의 2배나 되고, 동남지역과 메콩강 지역에서는 단 2%~18%의 산모만이 의사의 도움 없이 출산하는데 반하여 중부지방에서는 산모의 절반이 의사의 도움 없이 출산한다.

소득계층 간의 보건서비스 격차도 심각하다. 일인당 평균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인도나 중국보다도 높고, 말레이시아와 타일랜드 보다는 낮다. 그러나 사회보험(퇴직연금과 사망, 산전산후 비용 및 장해비용보험) 과 의무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15% 정도만이 가입해 있는 상태이고, 이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위 소득계층이거나 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 근로자들의 가족이나 다른 국민은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대부분 보험 비가입자이다. 병원의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빈민들이 실제로 병원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전국적으로 개인의 평균의료비용의 3/4은 개인이 수익자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한번 병원을 방문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상위 5등급 국민에게는 연간 식비를 제외한 생계비의 4%에 해당하지만 하위 5등급 국민에게는 45%나 된다. 결과적으로 빈민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보건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보건예산배정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의료예산의 3/4이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는 대도시의 병원이나 성 단위의 대병원의 치료서비스에 활용되고, 지방의 의료서비스 특히 공공의료 등 빈민들이 많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예방과 기초의료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 빈민들을 위한 보조금이나 이전비용(의료수가 면제 및 무료건강보험증 등)은 경상의료예산의 4%에 지나지 않는다. 무료건강보험증은 아직도 빈곤

층의 1/4 정도밖에 배급되지 못하고 있다. 각 마을에 있는 보건소의 2/3는 아직도 정부의 기준에 맞는 보건소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예산배정이 좀 더 빈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의료행정계획과 정책수립이 좀 더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 각 성과 구의 의료행정계획과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급 직원의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베트남 정부는 경이로울 만큼 교육기회를 확대해 왔지만 아직도 교육의 기회와 질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아직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기회를 향유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있다. 특히 약소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20%나 되는 적령기의 어린이들이 아직 취학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교통이 어렵고 자연조건이 열악하며, 국어 이외에 자기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가진 약소인종의 거주지 등 빈곤지역에서는 자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있다. 교육의 기회가 제약되는 중요한 원인은 교육의 직접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에 시행된 가계조사에 의하면 중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 1인당 비용(연 270,000동)이 평균 가계지출의 2%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 1인당 비용(연 455,000동)이 3%에 해당한다.

교육의 질도 아직 낮고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5학년이 되어서도 아직 독립적으로 독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60%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가 2001년에 있었다. 또 80%에 달하는

초등학교가 질이 높은 교육을 보장할 만한 기본시설(예:교실과 도서관)과 교육자재(예:컴퓨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예산의 95%가 교사들의 봉급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교육자재를 구입할 예산이 미미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에 22,000개의 교실을 신축하여 임시교실의 1/3만이 대체되었다. 부실한 학교시설 외에 빈곤지역과 약소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영양이 부실하고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의 어린이와 비교하여 언어나 수리능력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확대하여 초등교육의 기회와 질을 확보하고 향상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예산 중 교육에 배정된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여 지금은 18%에 달하지만 아직도 초등교육의 비용 중 45%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비의 부담 때문에 취학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정부는 빈곤가정에 대한 학비면제제를 쓰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까지 초등과 중등교육의 취학률을 100%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현재 수준의 교육예산보다 앞으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추가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세계은행의 예측이 있다. 정부의 예산 중 교육에 배정되는 비율이 늘어나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재원의 개발이 시급하다. 정부가 받는 외국인원조액 중 교육에 할당된 비중은 지금까지 대체로 10%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이 비율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공교육비 중 공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4) 국제경제와 통합

베트남의 국제경제와의 통합화 정책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가속화되어야 할 분야가 많다. 정부는 2005년 12월까지 WTO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또 미국과의 양자협상도 계속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최근에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통상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산업별 외국인 투자의 비율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차이를 두는 두 가지 가격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의 관행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경제와의 통합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12,000개의 베트남 기업체 중 인터넷에 가입한 기업은 7%에 지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3%에 지나지 않는다.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최근 전자상거래교환소를 마련하였지만 120개의 외국인기업을 포함해서 700개의 기업만이 새로이 가입하였다.

토지 등 자연자원의 활용과 환경보전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토지사용권증의 발행, 특히 농토 사용권은 토지 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

라 저당과 은행대부 등에 사용되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토지사용권증의 발행은 지연되어서 오직 35%의 도시지역 가구와 60%의 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토지사용권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거래를 통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적 토지사용권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토지의 목적과 등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야 모든 도시에서 심각한 주택난과 주택가격상승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토지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자원의 활용과 환경보전의 갈등을 해소할 정책적,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가환경보전정책(National Environmental Strategy)을 개발하고, 연 예산의 1%를 환경보전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개발되지 않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통계지표도 개발 공표되지 않아서 감시감독은 물론 사후평가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비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가고 있으나 정부와 비정부기관 간의 건전한 협력과 감시·비평관계가 강화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중앙의 권한과 책임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되며, 빈곤해소 등 사회복지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정부와 비정부기관 간의 관계강화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을 단위의 정부공무원의 능력배양과 함께, 비정부기관의 능력배양과 협력관계 증진도 요구되고 있다.

4. 政府의 向後 中短期 政策
(2006~2010)

정부는 장기개발전략(2000~2010)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두 개의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12월 차관 공여국과의 회의에서 중단기 정책과 후기 5개년계획(2006~2010)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투자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투자계획에서는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의 대처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다음 4가지를 강조했다. (i)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환경의 개선 (ii) 투자의 확대,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와 투자의 효율성제고 (iii) 빈곤해소와 인력개발의 진전 (iv) 행정 개혁의 추진 등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국민소득을 2000년에 비하여 두 배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기업환경의 개선

모든 부문의 투자와 생산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서두를 것이다(예: 기업법, 공기업법, 토지법, 파산법 등). 금융제도를 강화하여 저축을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증가하고, 국제기준과 협약에 맞게 개선한다. 공기업의 주식을 가속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국가독점이 기업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다. 국제통상분야에서도 기존의 ASEAN 자유무역협정(AFTA)의 약속을 이행하며 쌍무무역협정을 개발하며,

2005년 말까지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생산가의 하락 특히 제조업상품과 고 부가가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 해외 시장의 개척과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재원의 확대를 도모한다. 5개년계획 기간에 투자는 GDP의 37~38%에 달할 것이며, 그중 25~26%는 국내저축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나머지 12%는 해외저축, 특히 외국정부의 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한다. 외원은 총 140~150억 달러(연평균 30억 달러)로 예상되며 그중 60~70억 달러는 지난 5개년 계획기간에서 이월될 것이며, 후기 5개년 기간에 70~80억 달러의 새로운 외원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실제로 집행될 투자는 도입된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110~120억 달러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는 5개년 기간에 총 180억 달러(연평균 36억 달러)가 실제로 도입되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외국인의 국공채투자와 차관을 통하여 5개년 기간에 40~50억 달러(연평균 10억 달러)의 재원이 조달될 것이다.

정부재정의 적자를 건전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세제를 개선하고 징수행정을 강화하여 매년 12%의 증가를 통하여 정부의 수입이 GDP의 22%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한다. 세출도 보조금의 제거 및 축소와 자본동원의 방법을 개선한다.

투자는 성장과 빈곤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히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둘

것이다. 간선도로와 교량의 개선과 신축이 특히 주목된다. 간선도로는 물론 전국의 모든 주요 도로가 2010년까지는 모두 포장될 것이다. 또 시골도로도 신축되고 개선되어서 모든 마을이 자동차도로를 가지게 될 것이며, 70%의 도로가 전천후 도로가 될 것이다. 또 항만과 공항이 현대화될 것이다. 도시, 특히 산간지역의 중소도시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며,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교통과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에 중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전기, 특히 생산시설과 가정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서 송신과 배선에서의 전력소모율을 8%대로 낮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편-통신 특히 사회경제적 개발과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시설에 역점을 두어서 전화(100명당 25 회선)와 인터넷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우편통신 분야의 투자는 연 12% 증가하여 이 분야의 부가가치가 GDP의 3%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3) 빈곤해소와 인력개발

성장과 함께 빈곤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계층에 집중하며,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빈곤지역과 마을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빈곤해소책을 강구한다. 취업기회의 확대를 꾀하고 특히 비영농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모든 조직과 기업이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농수산물 산림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안정사업을 강화하여 산업별, 직능별, 지역별 근로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근로자의 해외취업도 적극 추진한다. 예방과 기초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부예산의 배정을 개선하여 빈곤계층이 더 많이 수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시설을 확대 개선하고, 의약품의 수입과 판매에서 독점의 기회를 제거한다. 또 임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새천년개발 목표(MDGs)도 아동사망률을 제외하고는 모든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많다.

현대화, 공업화와 정보화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자, 관리자 및 기능자 등의 고급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대

〈표 1-4〉 새천년개발 목적(MDG goals)과 목표(targets) 및 진행 상황

구분	목표 및 대상	진행 상황
극빈과 기아근절	목표1 1일 소득 1달러 이하 인구반감 (1990년~2015년)	달성 ·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1990년 50.8%에서 2003년 12%로 줄었음.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향후 10년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음. 1) 2010년까지 빈곤발생 비율을 19%까지 줄이기 2) 빈곤가계를 2000년 17.2%에서 2005년 10%, 그리고 2010년에는 7%까지 줄이기 · 베트남은 빈곤률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예정보다 앞서 달성해오고 있음. · 베트남은 2010년까지 빈곤선 이하의 가계를 좀 더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구분	목표 및 대상	진행 상황
국민과 기아근절	목표2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를 반감 (1990년~2015년)	달성 · 최소 음식물 섭취 이하(below minimum dietary intake) 인구의 비율은 1990년 30% 이상에서 2002년 11%로 감소했음. 그러나 소수민족집단은 2002년, 여전히 41.5%의 음식 빈곤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국가 평균인 10.9%와 비견할만함. · 베트남은 차후 10년간 굶주림을 몰아내고 음식 빈곤(하루에 2,1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것)발생률을 2010년 4% 이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보편적 기초교육 달성	목표3 2015년까지 전국의 소년 소녀 구분없이 모든 기초교육과정을 끝낼 수 있게 보장	실현가능성 · 교육 및 직업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에 따르면 총 기초교육 취학률은 1990년 86%에서 2002년 92%까지 증가했음. ·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2010년까지 보편적 기초교육의 강화와 양질의 교육 (2010년까지 100%의 기초교육 취학률 목표) 2) 2010년까지 보편적 중등교육 달성(2005년까지 80%, 그리고 2010년까지 90%의 취학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초과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목표4 가능한 2005년까지 기초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적어도 2015년까지는 모든 교육과정 에서 성적 불평등을 없애기	실현가능성 · 기초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의 비율은 1992년 99.6%에서 2000년 98.1%로 줄었음. 그러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86.1%에서 93%로 늘어났음. 베트남은 기초교육과정 등록에 있어서 양성간 균형을 맞추는데 거의 성공했음. ·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육 활동계획은 소녀들이 부담가능하고 수준 높은 공적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평등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음. 이 계획은 또한 모든 어른, 특히 여성들이 읽고 쓰기 능력 및 그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동 사망률 축소	목표5 1990년에서 2015년까지 5세 이하의 사망률을 2/3 줄이기	달성하기 어려움 · 5세 이하의 사망률은 1990년 신생아 1,000명 중 58명 사망에서 2003년 약 40명 사망으로 급격하게 줄었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1,000명 중 16명 사망이라는, 2/3 줄이는 목표는 낮은 시작점(low starting base)으로 인해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정부는 2005년 5세 이하 신생아 1,000명 중 36명 사망에서 2010년에는 32명 사망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모성건강증진	목표6 1990년에서 2015년까지 모성 사망률(MMR)을 3/4 감소시키기	실현가능성 · 모성사망률은 추정신뢰도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100,000명 중 249명의 사망에서 2002년 165명 사망으로 감소했음. · 이것에 기초해서 베트남은 2015년까지 100,000명당 62명 사망이라는 모성사망률 3/4 줄이기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임. 정부는 2005년 모성사망률 100,000명당 80명 사망에서 2010년 100,000명당 70명 사망을 목표로 하고 있음.
HIV/AIDS, 말라리아 그리고 다른 질병과의 전쟁	목표7 HIV/AIDS의 전염을 2015년까지 상태 유지 및 감소시키기 시작 하기	진행 중 · HIV/AIDS 전염은 아직 완전히 만연한 수준이 아니다. 성인(15세~49세) 중 HIV 발병은 2002년까지 공식적으로 0.28%임.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열쇠는 효과적인 방지책이 향후 몇 년간 취해지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음. 정부의 목적은 HIV/AIDS의 전염 수준을 2005년까지 유지시키고 2010년까지 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임.
	목표8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전염증가율을 2015년까지 중지 시킨 후 감소시키기 시작하기	· 베트남 말라리아 방지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말라리아 발생빈도 및 사망률을 1991년과 2002년 사이에 83%나 감소시켰다. 정부의 목표는 말라리아 사망률을 2010년까지 100,000명당 200건으로 줄이는 것임.

자료:아시아개발은행, 세계개발은행, UNDP, Steering Committee

학을 다양화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한다.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대학을 강화하여 기술 인력의 배양에 힘쓴다. 우수 과학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영재학교와 대학제도를 강화한다.

4) 행정개혁

제도개선,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내지 제거,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이러한 행정개혁과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갈 주체인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덕성 향상을 강조한다.

5. 한국-베트남 經濟關係

베트남 전쟁 중 활발했던 한-베 경제관계는 종전과 더불어 오랜 냉각기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도이 머이’ 개혁과 함께 서서히 재개되어서 양국이 각각 오늘날 가장 활발한 교역관계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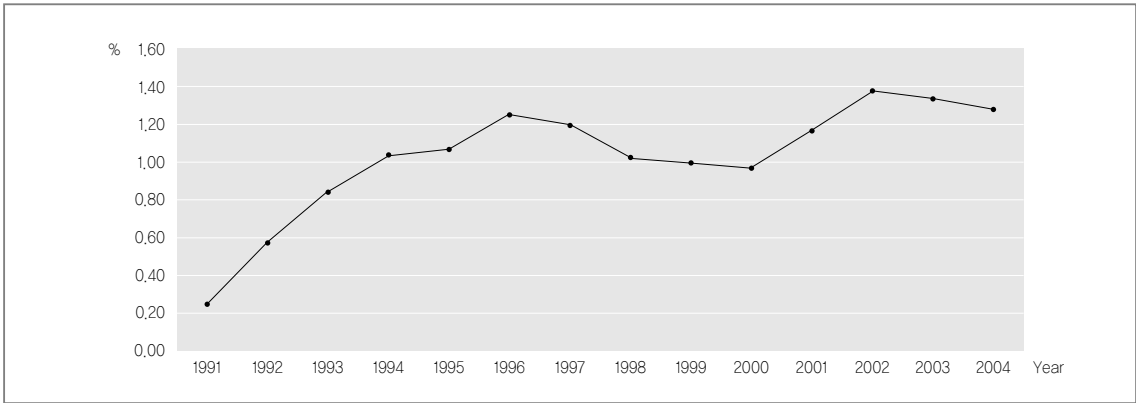
장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관계는 통상관계, 對베트남 직접투자, 그리고 베트남 노동력의 對 한국 송출을 중심으로 활발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은 급격히 증가하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며 직접투자대상국이 되었다. 對베트남 수출규모는 1992년 수교당시 약 5억 달러에서 2004년 32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여 한국의 4대 수출상대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對베트남 수입증가는 미미하여 통상관계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불균형적 교역관계를 유지해왔다. 역사적으로 높은 무역흑자로 시작한 교역은 2004년에도 25억 달러가 넘는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교역의 전체 무역흑자 중 약 8%가 對베트남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0~2004년 사이에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91% 성장하였고, 對베트남 수입은 110% 성장하여 무역흑자는 87% 성장하였다. 한국교역의 對베트남 의존도도 꾸준히 늘어나서 2000~2004년 사이에 한국의 총수출 중 對베트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0.98%에서 1.2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對

〈표 1-5〉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과 수입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의 총수출(백만 US\$)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對베트남 수출(백만 US\$)	1,686	1,732	2,240	2,561	3,226
對베트남 수출 비율(%)	0.98	1.15	1.38	1.32	1.27
한국의 총수입(백만 US\$)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463
對베트남 수입(백만 US\$)	322	386	470	511	673
對베트남 수입 비율(%)	0.20	0.27	0.31	0.29	0.30
對베트남 무역수지(백만 US\$)	1,364	1,346	1,770	2,050	2,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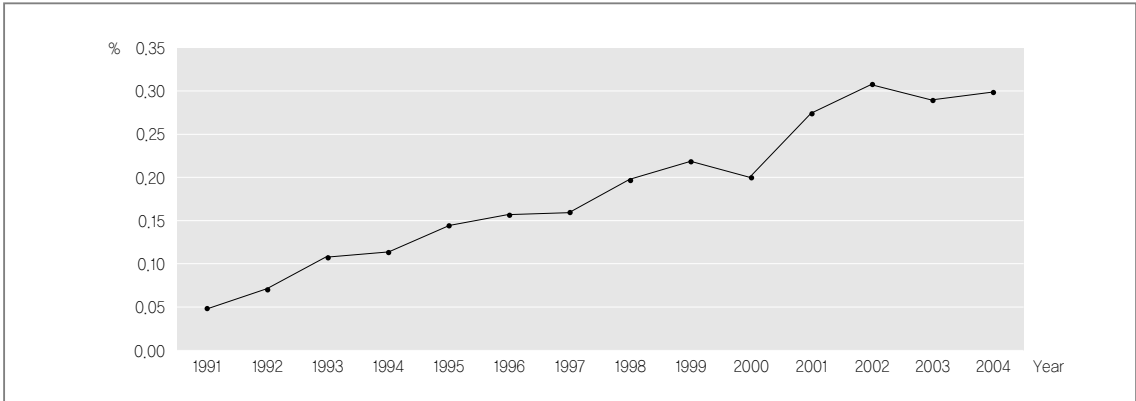
자료:Direction of Trade, IMF(2003)

〈그림 I-5〉 한국의 총수출 중 對베트남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Direction of Trade(IMF)

〈그림 I-6〉 한국의 총수입 중 對베트남 비중(%)



자료: Direction of Trade, IMF(2003)와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수입은 더욱 빨리 성장하여 한국의 총수입 중 對베트남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0.20%에서 0.30%로) 증가하였다(표 I-5, 그림 I-5와 I-6 참조).

둘째, 같은 기간에 對베트남 직접투자에서도 베트남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여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121%(1.33%에서 2.94%로) 증가하였고 최근에 그 증가속도가 가속화되었다(표 I-6과 그

림 I-7). 2004년 對베트남 투자는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

셋째, 베트남인의 대 한국 송출도 전체 인력수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해외인력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표 I-7). 2004년에 약 2,900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표 I-6〉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Total invested amounts	1,116,120	1,219,358	1,263,497	2,303,533	3,136,771	4,419,666	3,652,421
Invested amounts to Vietnam	0	16,775	28,017	90,610	182,840	101,304	134,218
Percentage of investment to Vietnam	0.00%	1.38%	2.22%	3.93%	5.83%	2.29%	3.67%
Invested amounts to China	42,468	141,127	263,682	632,846	841,647	906,980	730,007
Percentage of investment to China	3.8%	11.6%	20.9%	27.5%	26.8%	20.5%	2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Total invested amounts	4,768,584	3,276,790	4,995,872	5,075,356	3,565,603	3,797,359	5,714,975
Invested amounts to Vietnam	70,073	38,218	66,358	48,521	141,626	155,541	168,046
Percentage of investment to Vietnam	1.47%	1.17%	1.33%	0.96%	3.97%	4.10%	2.94%
Invested amounts to China	691,507	353,768	683,611	592,314	986,177	1,539,214	2,187,36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그림 I-7〉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중 對베트남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표 I-7〉 한국의 對베트남 노동력 수입

국가별 연도별 입국현황													국가별 배정현황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2004	2005
네팔	793	195	281	333	194	584	814	326	742	1,541	1,156	6,959	902	-
미얀마	1,000	38	68	214	236	306	20	280	28	662	501	3,353	647	-
방글라데시	1,535	3,066	2,984	957	546	1,577	1,137	1,702	29	-	-	13,533	-	-
베트남	2,550	4,584	4,358	3,247	1,525	3,638	5,780	930	1,417	3,600	2,871	34,500	2,631	2,070
스리랑카	811	202	1,436	905	163	299	666	268	415	1,889	1,028	8,082	1,160	1,650
인도네시아	927	4,463	7,152	5,704	3,424	8,381	5,418	3,450	4,467	7,717	3,449	54,552	2,899	3,650
중국	7,593	3,587	4,953	3,319	1,757	9,040	7,301	3,700	2,551	5,482	3,766	53,049	2,693	2,750
필리핀	2,744	3,249	1,699	2,167	1,272	3,322	3,815	1,079	1,451	3,682	2,099	26,579	1,996	2,650
파키스탄	617	436	544	649	106	768	1,058	265	554	675	2,025	7,697	2,075	1,700
이란	249	28	235	73	3	-	-	-	93	186	79	946	255	-
우즈베키스탄	-	878	1,046	1,279	436	875	1,847	267	826	3,655	1,713	12,822	1,591	1,480
태국	-	356	826	1,009	388	818	1,418	259	727	1,536	1,735	9,072	2,389	2,490
몽골	-	-	-	-	247	233	209	46	248	2,193	1,170	4,346	1,154	860
카자흐스탄	-	-	337	236	250	513	877	130	267	1,583	1,328	5,521	1,595	-
캄보디아	-	-	-	-	-	-	-	-	-	756	598	1,354	1,013	700
계	18,819	21,082	25,919	20,092	10,547	30,354	30,360	12,702	13,815	35,157	23,518	242,365	23,000	20,00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Ⅱ. 最近의 對베트남 支援戰略과 프로그램

1. 主要 海外 供與國 및 機關의 援助 戰略과 프로그램

1) 최근 사업수행

베트남은 도이머이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선진 공여국과 해외공여기관들로부터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대규모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주요 공여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25개국이 있으며 공여기관으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19개의 국제기구, 국제 NGO 등 369개 국제민간원조기구(INGO)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중 베트남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클 정도로 대 베트남 원조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 절대액으로 보면 DAC 국

가 중에서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2002년까지 해외에서 베트남에 공여된 총 원조액은 승인기준으로 205.7억 달러에 달한다. 1986년 이후 완만한 증가를 기록하다가 1991년과 1994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그 후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6년과 2001년에 최고치를 경신하여 각각 22억 달러와 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제지출 기준으로 보면, 2002년까지 베트남에 공여된 원조총액은 124.6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2002년도 지출기준 수원실적은 12.8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무상지원은 4.9억 달러로 총 수원액의 38.4% 수준에 달하였다.²⁾ 이처럼 베트남에게 원조된 승인기준 액수가 지출기준 액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베트남 정부 내부의 수원액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ODA 총괄 기관은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³⁾로 우리나라 구(舊)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관인데, 초기에는 베트남 정부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의 효율적 ODA 수원정책 및 절차개선 노력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 II-1>에는 1986년부터 2002년까지의 베트남 ODA 수원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지출기준으로 볼 때 2000년에 최고의 수원액 지출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대한 2003년 ODA 지원액은 2002년 대비 14%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에 기록했던 최고 지원액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2002년에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빈곤완화와 성장전략(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을 위한 자금이 2003년 초까지 집행되지 못 한데 기인하며 아울러, ODA 프로젝트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⁴⁾ 구조조정과 “빈곤완화와 성장전략”을 위한 차관 등 신속히 지출되는 차관의 비중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줄어 들고, 대부분의 원조가 프로젝트나 기타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원조이다.

〈표 II-1〉 베트남의 ODA 수원 현황(1986~2002) (단위:백만 달러)

연 도	승인기준	지출기준		
		계	무 상	유 상
1986	132.5	150.5	135.6	14.9
1987	117.6	115.0	115.3	-0.3
1988	151.2	151.8	150.8	0.9
1989	133.5	121.0	122.5	-1.5
1990	184.5	188.9	193.6	-4.7
1991	335.6	222.1	229.1	2.8
1992	711.4	573.7	268.2	305.5
1993	863.9	253.8	296.6	-42.8
1994	1,698.5	905.2	641.2	264.0
1995	1,838.8	837.3	576.9	260.5
1996	2,200.3	939.0	467.3	471.7
1997	2,163.5	998.3	463.9	534.4
1998	2,057.5	1,177.4	440.0	737.4
1999	1,934.3	1,428.7	467.0	961.7
2000	1,776.4	1,683.2	481.1	1,202.1
2001	2,377.2	1,434.5	512.8	921.7
2002	1,899.4	1,276.8	489.9	786.9
계	20,576.0	12,464.2	6,049.0	6,415.2

자료:OECD a (2004)

베트남 정부는 ODA 수원사업 개선을 위해「2001.5.4 ODA 운용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수원사업 개념, 절차, 책임 등에 대한 명확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ODA 사업의 분권화를 도모한 것이다. 「2001.5.4 ODA 운용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ODA 운용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사회경제개발 요구에 보다 올바르게 부응하고 기아퇴치, 빈곤완화, 인적자원개발 등에 목

3) 계획투자부(MPI)의 ODA 담당부서인 대외경제관계국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대외원조는 아태·미주 및 총괄 조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대 베트남 ODA에 대한 정보공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ODA 관련 사이트 오픈(<http://www.mpi-oda.gov.vn>)한 바 있다.

4) 베트남 계획투자부(MPI)는 2004년도 9월까지 누계기준 차관 17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9억 달러 이상의 ODA 자금을 접수(계획기준)하였는데, 대표적인 차관사업은 세계은행 지원 하에 추진 중인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수리관개(irrigation) 프로젝트이며 무상지원 사업의 경우, 미국의 학교 위생 및 영양에 관한 교육지원사업(7백만 달러)이 대표적이다.

2)베트남 UNDP 사무소에 따르면 베트남이 2002년도 14억 달러, 2003년도 16억 달러의 ODA를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표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실제 ODA 사업의 우선 순위 분야를 무상원조 와 유상원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원조 우선순위〉

- 빈곤완화(특히 농촌 및 벽지)
 - 보건, 인구 및 개발
 - 교육, 인적자원 개발
 - 사회문제(고용창출, 상수도, 전염병 예방, 사회악)
 - 환경보호, 과학연구· 기술 지원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연구
 - 행정 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 〈유상원조 우선순위 분야〉
- 기아퇴치 및 빈곤완화, 농업· 농촌개발
 - 교통 및 통신
 - 에너지
 - 사회 인프라(공공복지 사업, 교육행정, 상하수도, 환경 보호)
 - 사회경제문제 해결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생산업체 지원
 - 재정수지 개선 지원

이와 같이 무상원조의 우선순위 분야는 사회개발이고 유상원조 우선순위는 주로 인프라 구축인 것으로 볼 때 향후 베트남 정부는 ODA 예산 중에서 무상원조는 사회개발 그리고 유상원조는 인프라구축에 집중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해외 공여국이나 기관 등에서도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 공여국· 공여기관별 원조동향 및 특징

베트남에게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02년에 375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 일본의 지원금 규모는 베트남 총 수원 ODA의 5분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규모이다. 일본 다음으로는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사이에 세계은행과 ADB 등과 같은 공여기관이 있으나 이들 기관은 유상원조가 대부분이라 공여국들의 원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공여국들의 공여방식을 보면, 양자 공여국에 의한 지원실적이 총 ODA 지원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여국들의 총지원액의 46%의 자금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MPI(2004)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해외원조자금의 분야별 배분비율을 보면 교통에 22.6%, 전력발전 및 송전에 20.3%, 농업발전에 14.9%, 음용수 공급 및 도시 인프라에 8.3%, 교육· 훈련· 기술에 8.3%, 의료 및 사회부문에 5.8% 그리고 기타에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의 對베트남 지원에서 HRD 분야에 대한 ODA 지원액은 2002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나 농촌 지역에 대한 기초보건 분야는 아직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수준의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도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공여국의 對베트남 원조방향은 공여국과 베트남과의 지역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對베트남 공여국들을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여

〈표 II-2〉 DAC 회원국의 對베트남 원조공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A)	(A/2002년 각국의 총ODA)*100
일본	388.6 (101.4)	680.0 (146.5)	923.7 (133.0)	459.5 (138.3)	374.7 (133.3)	4.04
프랑스	66.2 (28.2)	79.2 (31.9)	52.9 (26.2)	61.8 (24.6)	77.8 (28.9)	1.42
덴마크	40.9 (40.4)	39.4 (38.9)	41.0 (40.7)	60.2 (60.6)	48.4 (47.9)	2.95
독일	54.8 (40.7)	66.1 (36.0)	33.3 (28.9)	37.9 (43.5)	41.7 (29.4)	0.78
호주	40.8 (40.8)	40.2 (40.2)	35.7 (35.7)	38.9 (38.9)	35.1 (35.1)	3.55
네덜란드	23.2	11.7	18.8	36.2	30.1	0.90
영국	7.3	8.4	7.9	23.7	26.5	0.54
스웨덴	33.7 (33.4)	33.1 (32.9)	37.3 (37.3)	34.9 (29.6)	24.4 (24.4)	1.23
캐나다	9.2 (9.2)	11.3 (11.3)	14.6 (14.6)	11.8 (11.8)	20.0 (20.0)	1.00
미국	-9.6	-0.2	6.8	8.7	14.7	0.11
스위스	11.5	8.9	10.7	10.8	12.4	1.32
벨기에	9.7	14.0	38.0	9.4	11.6	1.08
노르웨이	7.9	7.1	6.2	5.7	8.0	0.47
스페인	10.9	3.0	4.3	6.6	7.4	0.43
핀란드	8.7	7.7	5.8	5.2	7.2	1.56
룩셈부르크	4.5	3.0	5.0	4.6	5.3	3.61
뉴질랜드	2.3	2.0	2.0	1.7	1.7	1.39
오스트리아	1.3	1.6	3.0	4.3	1.6	0.31
아일랜드	0.1	0.1	0.2	0.2	0.1	0.03
그리스	0.0	0.0	0.0	0.0	0.0	0.00
이태리	0.9	1.1	0.4	0.0	-2.3	
포르투갈	-	-	-	-	-	-
DAC 계	712.6	1,017.7	1,247.6	822.1	822.1	1.41
한국	11.62 (3.1)	7.17 (6.5)	16.0 (5.4)	38.1 (5.4)	22.6 (5.9)	8.10

주1): 괄호안 숫자는 무상원조 액수를 나타냄

주2): OECD/DAC 회원국은 2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DAC 비회원국

자료: OECD a (2004)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국과 유럽의 공여국, 그리고 미주의 공여국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원조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있는 일본, 한국, 호주는 베트남 원조의 기본방향이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에 입각하여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반자적 파트너라고 하는 의미는 공여국과 베트남 간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역사적인 이유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베트남의 발전이 공여국의 발전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 공여국들의 對베트남 지원 방향은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주로 환경보존 및 자원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유럽 공여국들이 베트남과 지리적 거리가 멀고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관계가 없어 이들 국가와 베트남 간에는 지구환경 오염을 방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빈곤축소를 다루는 정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캐나다도 유럽 공여국들과 별 차이는 없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가 일본 다음 규모의 원조를 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의 對베트남 원조 방향도 한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 최대의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베트남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인지 2002년의 경우 DAC 회원국 중에서 10번째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원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즉, 역사적 이유로 인해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의 경우가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특별히 더 적은 지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공여국들의 원조정책 중에서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프랑스의 정책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줄 것이므로 이들 국가에 좀더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일본〉의 對베트남 지원사업은 성장추진, 삶의 질 향상, 구조적 발전을 망라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 특히 경제인프라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베트남 경제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왔다. 일본은 베트남 중소기업과 민간부문 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제인프라(교통, 전력, 정보, 통신) 개발을 지원하며, 인적자원개발을 돕고, 아울러 국영기업 개혁

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건강과 의료서비스, 농업-지역발전, 환경에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구조적 발전을 위해 법적 체계의 발전과 행정개혁(공무원과 재정개혁)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02년 일본의 ODA에서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최대였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개선사업, 호지민시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항구확장 프로젝트 등이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는 對베트남 일본 ODA의 두 번째 우선지원 분야이다. HRD 부문에 대한 일본 ODA의 지원은 전년대비 2배로 증가했으며 주로 벽지지역의 초등학교 건축 및 교육훈련 사업에 치중되어 지원되었다.

〈호주〉는 한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국가 원조를 주로 하는 국가로서 호주 원조의 특징은 한국 및 일본과 같이 베트남 정부와의 파트너십과 상호협력 정신에 기반을 두고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대 베트남 지원은 전액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원조분야는 인적자원개발(2002년 호주 ODA 25% 이상이 HRD 분야에 집중)이고, 최근에는 빈곤해소, 경제사회개발, 정부능력배양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원조기구인 AusAid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호주는 2003~2007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시장경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구축, 경제성장 유도, 메콩 델타 및 중부지역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⁵⁾

〈프랑스〉의 對베트남 원조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베트남 원조에 대한 기본 정책은 언어 및 문화 개발,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실시를 통한 경제지원 등이다. 아울러 중점지원분야는

기초교육, 훈련 및 기초보건인데, HRD의 경우 전체 ODA 지원액의 17%를 점유하였는데 대부분이 프랑스 자국으로의 유학자금 지원에 할당되었다. 프랑스의 원조기구인 AFD는 지금까지 28개 프로젝트에 약 4억 8천만 유로 규모의 대 베트남 ODA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등 향후 베트남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는 2002년 베트남 내 공여순위 6위를 기록하였는데, 덴마크 정부의 對베트남 원조 특징은 호주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무상지원이라는 점이다. 덴마크의 중점지원분야는 수산업, 상수원, 농업이고 지원액의 52%를 차지하는 천연 자원관리, 농업 및 산림분야가 주요 지원분야이다.

〈독일〉은 2002년 공여순위 9위를 기록한 바, 對베트남 협력정책에서 중점지원분야는 개혁정책, 민간기업 촉진, 교육·보건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강화, 천연자원을 통한 빈곤완화, 교통수송 체계개발, 농촌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며, 독일의 총지원액 중 상당부분이 역시 무상원조 자금이다. 향후 독일정부의 주요 지원예정 분야는 산업, 농업, 농촌개발 및 환경 분야 등이다.

〈스웨덴〉의 對베트남 협력목표는 국가번영 증대 및 빈곤 축소 촉진과 민주지향적인 개발과 투명성 촉진 및 인권신장이다. 스웨덴 지원예산도 역시 대부분 무상원조이며, 주요지원분야는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경제, 행정, 사회 개혁, 소외계층 및 지역을 위한 사업, 환

〈표 II-3〉 해외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지원분야		
분야	사업	지원국 및 기관
경제 행정 개혁	행정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경제개혁·시장경제이행 지원 민간기업 촉진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한국, 네덜란드, 세계은행, ADB, UNDP
빈곤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촌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기아 및 농촌빈곤 축소	스웨덴, 캐나다, 호주, 세계은행, NGO
보건	조류독감 긴급자금 병원설립 및 의약품 지원 의사 및 간호사 파견 식수 및 위생 전염병 예방 기초보건 인구·가족계획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호주, 세계은행, NGO
교육 & HRD	벽지 초등학교 건축 초등학교 건립 초등교육 유학 훈련 언어 및 문화개발 과학기술 능력개발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세계은행, ADB, NGO, 한국
사회	전쟁후유증 극복 민주주의·인권신장	스웨덴, NGO
교통	철도 고속도로 항구	일본, 독일, ADB, 세계은행
에너지	에너지사업	일본, 스웨덴, 세계은행
도시	도시개발	세계은행
농업	농촌 관개 등 인프라 개선 상수원 농업 수산업 농촌발전	일본, 한국, 호주, 덴마크, 세계은행, NGO
환경	환경친화적 지속가능개발 촉진 환경보호	스웨덴, 프랑스, 일본, NGO

자료: KOICA 내부자료를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5) 〈부록 1〉 참조

경친화적인 지속가능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지원, 소외지역 에너지 사업 등이다.

〈캐나다〉의 對베트남 원조도 대부분 무상이며 중점협력분야는 빈곤해소와 민간부문 개발능력 강화 등이다.

〈세계은행〉은 對베트남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3가지 분야에 집중시키고 있다. 첫째, 베트남의 시장경제 전환 지원 둘째,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활동의 동등화 지원 및 국영기업 효율성 증대 셋째, 행정개혁이다. 그런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금융분야 발전, 국영기업 개혁, 국내민간분야 지원,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제고, 국제무역촉진 등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ADB〉는 1995년 이후 HRD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2년에는 교통분야가 ADB의 주요 지원 분야로 부각되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개혁지원, 기업경영분야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한 지원도 주요 지원분야로 파악되고 있다. ADB는 베트남 내 지원순위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IMF〉의 지원규모는 2002년 56백만 달러로 베트남내 지원순위 5위를 기록하였는데, 지원분야는 주로 경제관리 및 개혁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UN〉 관련 기관들의 지원은 대부분 정책지원분야, 지역개발, 사회개발 및 보건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2년도 유엔 관련기관의 지원액은 37백만 달러이며, UNICEF가 8.8백만 달러를 지원함으

로써 UN기관 중 가장 많은 지원실적을 기록했으며 UNDP 및 UNDP 관련재원을 통한 지원이 7백만 달러, WHO는 6.6백만 달러 지원실적을 나타냈다. IFAD는 UN 차관 지원액 중 25%를 지원, 가장 높은 차관 지원실적을 보였는데, 주로 벽지지역 개발에 대한 차관 공여에 집중되었다.

〈국제 NGO〉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규모는 2000년에 80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NGO들의 주요 협력분야는 빈곤 퇴치,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 및 직업훈련,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복구, 전쟁후유증 극복, 농촌 소규모 인프라 개발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對베트남 원조동향과 특징을 보면, 먼저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공여국들과 캐나다는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세계은행과 ADB는 유상원조 위주로 주로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무상원조 뿐만 아니라 유상원조도 최대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 및 호주 중에서 일본은 대부분의 지원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대단히 크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및 호주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유럽의 공여국들은 무상원조 중심의 인도주의적 빈곤완화 및 사회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원조사업 사각지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진 공여국들이 대부분의 원조분야를 이미 커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조에 의한 베트남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공여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차이로 인한 사업추진 효율성 저하와 베트남 정부의 수원자금 투자 집행능력의 취약성 등의 이유로 원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험공유 차원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KOICA의 援助戰略과 프로그램

1) 사업동향

우리나라의 베트남 협력사업은 외교부가 KOICA를 통해 무상원조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경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EDCF 유상원조를 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1992년 양국간 수교가 체결된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1991년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2만8백 달러였으나 1994년에는 228만 1천 달러로 그 규모가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원규모의 증가는 계속되어 1999년에는 619만3천 달러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부터 그 규모가 매년 줄어 2003년에는 314만8천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1991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무상·기술협력사업은 2001년 현재 11년간 약 3,212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약 292만 달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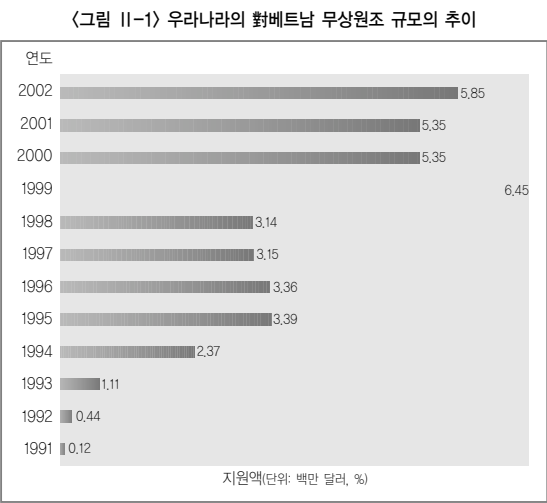
對베트남 원조공여국 중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

기 위해서 세 가지 분석을 해보았다. 첫째는 각 공여국이 전체 ODA 중에서 對베트남 원조에 얼마만한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각국의 절대 원조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분석이다. 셋째는 각국이 공여하는 전체 ODA 중 무상원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분석이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표 II-2〉를 다시 보면 2002년도의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전체 ODA 규모,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베트남 지원을 위해 지출한 ODA 규모가 각국의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주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는 279백만 달러였으며 이중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22.6백만 달러로서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0%로써 對베트남 ODA 공여국 중 베트남 지원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일본이 4.04%로 베트남 지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룩셈부르크(3.61%)와 호주(3.55%) 그리고 덴마크(2.95%)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둘째, 2002년에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가 큰 국가들을 서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이 374.7백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베트남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77.8백만 달러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일본의 베트남 지원규모는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원규모의 약 5배에 육박하는 대단히 큰 규모이다. 프랑스 다음으로는 덴마크(48.4백만 달러), 그리고 독일(41.7백만 달러), 호주(35.1백만 달러)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對베트남 ODA 지원규모로 보면 9번째로 큰 원조공여국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지원 ODA 중에서 무상원조만을 살펴보면 그 지원규모가 다음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증가추세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9년에 6.45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그 후 감소, 2002년에는 5.85백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상원조액은 1992년부터 높아져서 전체 원조 공여국중 11위가 되었고, 1993년부터 2~3위를 유지하다가 1998년에는 1위로 상승하였다. 그 후 2002년까지 1~2위를 유지하다가 2003년에는 원조액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서 4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상원조는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캐나다, 호주와 스웨덴의 100%, 덴마크의 99%, 독일의 69%, 프랑스의 37%, 일본의 35%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70%에 달하는 對베트남 DAC 공여국의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對베트남 전체 원조 공여국의 평균치인 38.4%의 절반정도를 기록하



자료: OECD a (2004)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유상원조는 1996년 (3.63백만 달러)에 시작하여 2000년 (10.68백만 달러)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약 33백만 달러, 2002년에는 16백만 달러를 공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전체 원조공여액은 2001년에 약 38백만 달러, 2002년에는 23백만 달러, 2003년에는 31백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2) KOICA의 ODA 사업 평가

베트남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에 대해 경제개발경험의 전수와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해 왔으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실질 우호협력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상원조가 다른 원조국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ODA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전쟁 격전지인 중부지역에 대한 40개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1~2002/2,000천 달러), 병원 건립사업 (2002~2004/3,000천 달러) 등 중점지원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우리의 참전에 따른 반한 감정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ODA 사업 중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KOICA의 사업은 크게 볼 때 다음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연수생초청사업 ②전문인력파견사업 ③봉사단파견사업, ④개발조사사업 ⑤물자공여사업 ⑥프로젝트사업 ⑦NGO지원사업 등이다. 표를 통해 KOICA가 이들 사업에 대해 베트남에게 지원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2003

년도 KOICA의 對베트남 지원사업별 지원액을 보면 프로젝트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지원액에서 약 54.4%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연수생초청사업과 봉사단파견이 각각 20.3%와 19.6%로 뒤를 이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확대·발전된 KOICA 연수 초청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에 베트남 연수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왔다.⁶⁾ 특히 1993년부터는 베트남인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는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 <표 II-5>와 같다. 즉,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에는 매년 약 60여명에 가까운 베트남 연수생들이 그들만을 위해 제공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베트남 공무원의 전문분야 연수와 경제정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 베트남만을 위한 연수생초청사업은 베트남의 WTO 가입을 대비한 프로그램과 무역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무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에 베트남 연수생이 참여한 연수초청사업을 다음 <표 II-6>에 정리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행정 관련과정에 가장 많은 베트남 연수생이 참여하였다. 세부과정을 보면, 국제통상과 무역에 관한 과정에 33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 부문에 총 20명, 산업기술 부문에 총 18명, 그리

〈표 II-4〉2003년도 KOICA의 對베트남 지원(사업별)

	지원액(원)	비율(%)
연수생	850,306,655	20.3
전문가	114,691,826	2.7
봉사단	822,053,560	19.6
개발조사	17,987,776	0.4
물자지원	0	0
프로젝트	2,277,752,432	54.4
NGO	94,140,994	2.2
긴급원조	12,090,000	0.3
합계	4,189,023,243	100

자료: KOICA 내부자료

〈표 II-5〉베트남을 위한 연수생초청사업

연도	지원내역	참가인원(명)
1993	•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양성	24
1995	• 베트남 직업훈련 • 베트남 공무원 • 베트남 경제	30 20 10
1996	• 베트남 경제정책관리 • 베트남 공무원 • 베트남 직업훈련향상	10 20 30
1997	• 베트남 경제정책관리 • 베트남 공무원 • 베트남 국회도서관 관리 • 베트남 정보화 기술	20 20 2 20
1998	• 한·베 우정병원 후속	8
1999	• 베트남 새마을운동	11
2000	• 베트남 새마을운동	20
2001	• 베트남 재무공무원 재정 및 예산제도 • 아세안 베트남 공무원 파트너십 • 아세안 베트남 한국담당관	12 20 20
2003	• 베트남 국제통상 및 WTO 협정 • 베트남 무역공무원 • 베트남 공무원 파트너십	15 14 17

자료: KOICA 내부자료를 저자가 재구성한 자료임

6)〈부록 2〉의 〈부표 II-1〉 참조

고 정보통신 부문에 총 17명이 참가한 것으로 볼 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연수받기를 원하는 부문이 무역·통상, 보건·의료, 그리고 산업기술 및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정책 부문에는 총 13명이 연수 온 것으로 볼 때 경제정책 연수에 대한 관심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 II-5>의 베트남을 위한 연수생초청사업 과정들을 연도별로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경제 정책에 관해 베트남 연수생만을 위한 연수과정들이 개설된 바가 있었으며 2003년에 들어와서는 경제정책보다는 무역관련 연수과정 참여가 늘어난 것을 볼 때, 베트남 연수과정의 내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베트남의 발전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같이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 연수생초청사업을 보면 연수에 참여하였던 연수생들의 연수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다. 다만, 한국인 강사진의 영어가 다소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언어소통문제로 강의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수과정에서 실시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작성하고 강의노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연수 참가자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동일한 강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수생초청사업에 대한 베트남 측의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 특히, 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따라서 향후 연수생초청사업은 프로젝트와 함께 기획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가

파견사업 등 타 사업들과도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원조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연수생을 한국으로 이동시켜 연수받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인 강사진이 베트남에 가서 강의를 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베트남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1~2명의 연수생이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정책의 개선이나 행정의 향상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중요한 다수(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서 훈련을 받고 공동의식과 철학을 가져야만 정책과 행정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정책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할 고위직 간부는 10여년간 이미 해외연수훈련을 받았다. 앞으로 필요한 훈련의 대상은 정책을 실행에 옮겨서 투자사업과 기술도입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할 중앙부서와 공기업 그리고 지방의 성에서 근무하는 많은 중견 간부들이다. 내자와 외자로 집행되는 투자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려면 이러한 중견간부가 대량으로 관리와 집행에 관한 기술적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와 같은 연수초청사업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을 담당할 베트남 내의 공무원훈련원이나 대학의 관리자훈련과정에서 자체 훈련능력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고 외부원조는 이러한 자체 훈련능력의 개선과 강화를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체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훈련을 담당할 전문가를 연수생으로 초청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훈련요원으로 양성하고 다시 재훈련시키고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체 능력이 충분히 양성될 때까지는 전문가파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연수초청사업의 프로그램을 살

〈표 II-6〉 2003년 베트남 연수생이 참여한 연수초청사업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경제정책(총 13명)			
경쟁법 정책과 경제발전과정(14일간)	1명	물류혁신전략과정(14일간)	2명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정(14일간)	1명	아세안 중소기업 육성과정(14일간)	2명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경영과정(14일간)	1명	한일경제개발정책과정(15일간)	2명
2001 한국경제연구과정(1년2개월)	4명		
공공행정(총 47명)			
관세기법과정(14일간)	1명	아시아 주택보급정책 및 제도과정(18일간)	2명
아시아 산업보건과정(14일간)	2명	지적재산권제도과정(14일간)	1명
체제전환국 법정부 지원과정(13일간)	2명	한·싱 신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과정(11일간)	3명
한·싱 지방관광개발방향 및 전략과정(14일간)	3명	행정정보화 관리과정(14일간)	1명
베트남 국제통상 및 WTO 협정과정(14일간)	15명	베트남 무역공무원과정(10일간)	14명
한·싱 무역진흥과 인터넷무역과정(20일간)	3명		
교육·훈련(총 14명)			
아세안 직훈 1차(CNC/전자)과정(59일간)	3명	아세안 직훈 2차(CAD)과정(60일간)	3명
태권도 기술향상 및 기법교육과정(14일간)	1명	한국어교육 3차과정(115일간)	4명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과정(59일간)	3명		
보건·의료·수산·농업 (총 20명)			
가족계획과 생식보건과정(14일간)	1명	결핵관리과정(18일간)	2명
결핵관리 사후관리과정(10일간)	1명	병원관리 및 제도운영과정(20일간)	2명
사이클로트론 및 RI 의학적이용과정(21일간)	1명	의약품안전과정(20일간)	2명
한의학제도와 전통의학발전과정(14일간)	2명	산림관리과정(15일간)	2명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과정(30일간)	2명	아세안 미곡생산기술과정(30일간)	3명
어로기술과정(14일간)	1명	연안수산양식과정(30일간)	1명
환경·에너지(총 14명)			
수자원관리과정(18일간)	2명	아시아 폐하수처리시설 관리과정(14일간)	1명
아시아 소각시설운영 및 대기오염관리과정(14일간)	1명	아시아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과정(14일간)	3명
전력기술과정(14일간)	1명	한·싱 환경기술과정(10일간)	2명
한일호소수질관리과정(15일간)	1명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과정(14일간)	1명
APEC 해양환경보전과정(21일간)	2명		
정보통신(총 17명)			
웹디자인고급과정(13일간)	1명	APEC사이버보안과정(14일간)	1명
APSDPE 컴퓨터 응용기술과정(60일간)	4명	IT인턴십 1차 연수과정(60일간)	2명
IT인턴십 2차 연수과정(60일간)	2명	IT인턴십 3차 연수과정(60일간)	2명
IT인턴십 4차 연수과정(60일간)	2명	IT인턴십 5차 연수과정(61일간)	2명
CDMA 통신기술과정(30일간)	1명		
산업기술(총 18명)			
가공식품품질관리 사후관리과정(10일간)	1명	교통정책 연수과정(14일간)	1명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과정(13일간)	1명	마이크로 프로세서운영 연수과정(60일간)	1명

과정	인원	과정	인원
아세안 국제표준화적합성평가구축과정(14일간)	2명	아시아 대전력고전압시험기술과정(14일간)	1명
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측정기술과정(20일간)	1명	위성항행 시스템과정(14일간)	2명
자동화제어기술과정(60일간)	1명	전방향무선표지시설과정(30일간)	2명
정보화시대의 산업디자인정책과정(13일간)	1명	철도운영 현대화과정(18일간)	2명
한국형 원전기술과정(14일간)	2명		
여성개발(총 2명)			
아·태지역 여성 IT기술교육과정(14일간)	1명	아시아 여성개발 파트너십과정(14일간)	1명
기타(총 21명)			
베트남 공무원 파트너십과정(10일간)	17명	아·태 청소년 파트너십과정(12일간)	2명
아세안 파트너십과정(10일간)	2명		

자료: KOICA 내부자료

펴보면, 많은 프로그램에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관광명소를 방문하여 한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성 연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설비시설이 필요한 분야에 연수생 초청을 집중하고 연수를 위한 설비가 필요 없는 분야는 주로 강사가 베트남으로 파견 나가 강의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파견사업은 2001년의 경우, 3분야에 3명을 파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극히 적은 수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미지수다⁷⁾. 그리고 앞에 있는 연수생초청사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수생을 초청해 오는 것보다 한국인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수

생초청사업 규모는 축소하고 대신 전문가파견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파견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 혹은 개별 파견방식에서 6개월 이상 장기 파견 및 프로젝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봉사단파견사업은 개도국들과의 상호협력 정신과 순수한 봉사이념을 바탕으로 파견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해외봉사단 외에 국제협력요원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해외봉사단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한다는 점이 상이한 점이며, 이 제도에 선발된 자들은 해외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하

고, 그 기간을 모두 마친 후에는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해외봉사단과 협력요원의 활동영역은 주로 한국어 교육, 태권도, 간호, 기타 농업기술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⁸⁾ 그런데 베트남 측에서의 우리나라 봉사단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은 편이고 수요도 늘고,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및 태권도 보급과 간호,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양국 간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봉사단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외봉사단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사업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적격의 봉사단원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아 베트남 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외봉사단의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상호간 성과를 높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개발조사사업은 현재까지 총 6건이 실시된 바 있는데 현재 4건이 종료되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다.⁹⁾ 개별적인 개발조사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N-18번 도로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1993~1996)’, ‘광물자원 조사(1992~1994)’, ‘하노이 신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1999~2001/1,000천 달러)’, ‘자원개발 협력사업(1993~1996/963천 달러)’,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 개발 타당성조사(2001~2002/1,000천 달러)’,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예방 및 퇴치백신연구사업(2002~2006/1,250천 달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조사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베트남 측의 평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도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조사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점검작업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현재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자체의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은행이 운영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프로젝트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개발조사사업은 당연히 연수사업이나 전문가 파견 및 물자지원 등의 사업들과도 연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개발조사사업이 제 기능을 했을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물자지원사업은 무상원조가 시작된 1992부터 최근 2003년까지 사무기기(복사기 등), 무선전화기 20대, 승용차(체어맨 5대, 레간자 5대), 콘돔 504,000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1,090천 달러 상당의 물자 및 현금이 지원되었다. 동 사업은 단독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및 전문가 등 파견인력 활동과 연계추진시 사업효과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프로젝트 사업 중점 추진 대상국으로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총 25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프로젝트 사업은 베트남의 빈곤퇴치 및 인

8)〈부록 2〉의 〈부표 II-3〉, 〈부표 II-4〉, 〈부표 II-5〉 참조

9)〈부록 2〉의 〈부표 II-6〉 참조

적자원개발, 제도 구축 등 베트남의 개발계획에 가장 종합적,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시적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원조사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 참여 현황은 먼저, 한·베 산업기술학교(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 사업단), 한·베 과기센타 지원사업(KIST), 증권거래소 설립지원(한국증권거래소), 하노이 및 퀴논 공업기술학교(산업인력공단), 개발전략연구원(우리의 KDI와 유사 기관) 지원사업(KDI) 등이다.¹⁰⁾ 그런데 지금까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은 연수생초청사업이나 전문가파견사업 등 다른 ODA 사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타당성 또는 근거(rationale)가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되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고, 프로젝트가 없었던 초기단계의 통계(baseline data)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후에 프로젝트의 실효성 평가도 어려운 상황이 많다. 예를 들면, 1994년부터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을 왜 시작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이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네안성의 빈市에 세워진 한·베 산업기술학교의 졸업생 중 30%에 해당하는 훈련생은 전자와 컴퓨터를 전공했으나 주위에 이들을 취업시

킬 산업체가 없어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다른 직종에 다시 훈련을 받고 있다. 또 기초자료가 없어서 졸업생의 취업율과 임금이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높은지 비교평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효과를 제시해 놓고, 추진할 연도별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후 평가를 가능하게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수생초청사업이나 전문가파견사업 등 연계된 기술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발 지원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국제 NGO지원활동은 199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KOICA의 NGO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참여와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바, 실제 국제 NGO가 활동하는데 여러 제약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 NGO의 경우 종교단체와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NGO 활동시 선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 측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이다.¹¹⁾

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은 개발도상국가의

〈표 II-7〉對베트남 EDCF 지원				
사 업 명	차관한도	지원조건	기집행액	비고
Thien-Tan 상수도사업	19,985(\$26.0)	연 2.5% 20년(5년)	19,885	완료
Thien-Tan 상수도사업(보충)	8,009(\$27.0)	연 2.5% 20년(5년)	1,277	지출 중
18번 도로 개량	18,355(\$24.0)	연 2.5% 20년(5년)	18,336	완료
Ba-Ria발전소 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	41,516(\$49.0)	연 2.0% 30년(5년)	41,516	완료
Ba-Ria발전소 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보충)	8,470(\$7.4)	연 2.5% 20년(10년)	8,462	완료
백신공장 건설사업	34,573(\$28.5)	연 2.5% 30년(10년)	—	구매계약 추진 중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25,475(\$19.6)	연 2.5% 30년(10년)	—	구매계약 추진 중

자료: KOICA 내부자료

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특수 목적의 정책기금이다.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자금(ODA)의 제공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이전하고 이들 국가와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개발원조자금(ODA)은 유상원조자금과 무상원조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원조는 EDCF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원국들은 유상원조보다 무상원조를 선호하지만 유상원조는 수출과 투자유발, 시장개척 등 부메랑 효과가 있으며, 경험증진과 외교적 효과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다. 아울러 유상원조는 수원국이 차관상환을 위해 자조노력을 지속할 의무가 있어

사업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DCF가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borrower)에 따라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¹²⁾으로 개도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로서의 차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해외출자 또는 융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지금까지의 EDCF 지원 사업은 7개 사업 1,563억원으로 지원금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티엔탄 상수도사업 등 5개

12)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에는 다음과 같은 차관들이 있다.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은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등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해당사업의 총 사업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차관을 지원한다. 기자재차관(Equipment Loan)은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은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이다. 예를 들면 개도국 국영은행에 신용한도를 설정해주고 각각의 최종수익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국영은행에 설정된 신용한도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물자차관(Commodity Loan)은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사업의 경우 지출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중에 있으며, 백신생산공장 건설사업, 하이퐁 고체폐기물처리 사업 등은 구매계약 체결중이다.

수출입은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DCF가 제공할 자금의 사전조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사전조사사업의 위험부담 때문에 KOICA 등 무상 원조사업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EDCF 차관사업이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의 결과 성사된 것은 N-18 도로개량사업밖에 없다. 이것은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의 차관사업 사이에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EDCF의 차관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사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고, EDCF가 준비 중인 차관사업은 KOICA를 통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발원조가 점차 무상원조화되어 가는 DAC의 추세에 비추어 보아서 국가별, 원조형태별로 유-무상 원조의 배분정책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KOICA와 EDCF사이에 업무분장과 협력관계에 관한 보다 명확한 상호이해와 협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KOICA 원조사업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KOICA사업은 현재까지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원조수단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어서 對베트남 개발원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조사업 분야 설정도 우리 측과 베트남 측의 정례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베트남의 일방적인 사업선

청과 한국의 승인이라는 요청주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베트남 개발을 지원할 수 없다.

KOICA의 ODA 사업은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자원봉사단파견, 개발조사, 프로젝트, 그리고 NGO사업 등 원조수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투자 프로젝트사업은 어느 정도 사전·사후 평가제도가 수립되어있지만, 다른 형태의 원조에서는 각각의 사업목적과 예상효과에 관한 사전분석이 없거나 미약하고 따라서 사후평가도 심도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수단별 협력사업 추진은 수요자 중심(Customer-focused)의 수요충족(Demand meeting)보다는 소규모인 KOICA의 조직과 인원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추진방식으로서 공급자위주(Supplier-Oriented)의 사업추진이 되기 쉽다.

또한 KOICA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수생초청사업 평가, 전문가파견사업 평가, 자원봉사단파견사업 평가, 개발조사사업 평가, 프로젝트 평가, 그리고 NGO사업 평가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개의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 KOICA의 발간문서를 토대로 보면 평가가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이중 5개의 프로젝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수생초청사업의 경우, 주로 수혜자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가

받는 측과 평가하는 측이 서로 공여국과 수원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원조사업의 집행 중에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이 미약하다. 이로 인해 원조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는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정하며, 재조정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일 감독과 모니터링 기능이 행해지지 않고, 사후 평가까지 기다리는 현재의 관행은 많은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교정과 조정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많다.

KOICA의 연수생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연수보다 베트남 국내의 연수기관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훈련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가 전세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베트남도 개발조사사업을 통하여 자체의 지식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조사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원조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베트남 개발지원사업은 적은 ODA예산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원조가 다른 원조기관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KOICA사업이 신속하고,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베트남 측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 덕분에 베트남은 UN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베트남 전쟁 격전지인 중부지역에 대한 40개 초등학교건립사업(2001~2002/2백만 달러), 병원건립사업(2002~2004/3백만 달러) 등 중점지원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우리의 참전에 따른 반한 감정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KOICA 사업은 개발원조 경험이 없는 신흥 공여국의 원조사업으로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제 신흥 공여국의 단계를 지나 제2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對베트남 援助事業 計劃

1. 援助事業戰略

수정보완제도를 채택한다.

1) 중장기 사업계획수립과 협의

한국의 對베트남 원조는 그동안 중장기 계획이 없이 추진되어서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원조사업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당해 년도에 들어와 토의하여 합의하였던 방식을 벗어나 앞으로는 3개년 원조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순차적으로 3개년계획을 수정·보완한다(3-year rolling plan).

경제계획에는 흔히 5개년계획이 잘 이용되고 베트남도 5개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5개년계획은 집행 과정에서 수정되고, 또 경제의 변화가 빠른 현재의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5개년의 확정된 원조계획은 신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변화를 수용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개년 원조사업계획의 연차

2) 정책대화(Policy Dialogue)의 정례화

현재 수원국의 일방적 개별사업 신청과 한국의 승인이라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베트남정부로 하여금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기초하여 무상원조사업 요청서를 매년 4월 초에 제출하게 하고, KOICA는 원조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에 비추어서 수원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중장기 원조계획초안을 매년 8월 이전에 만든다. 이 초안을 매년 가을 정례 고위정책회의에서 베트남 당국과 최종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그 집행방법을 논의한다. 이러한 방식은 원조계획이 베트남의 경제사회개발정책의 큰 틀 안에서 논의되게 하여서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수요와 연계성을 가지게 하며, 원조사업의 효과를 고양시킨다. 또 베트남이 중장기 원조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또는 일시적 필요에 의한 원조자

금을 신청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참여(partnership)와 주인의식(ownership)을 강화하여 원조사업의 집행단계에서 효율성을 고양시킬 것이다.

한국은 이미 1995년에 베트남과 「협력사업실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므로 그 틀 안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정책대화를 정례화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발굴과 합의, 그리고 협력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상호 토의와 해결을 도모 한다. 따라서 최초의 원조사업계획안도 베트남정부와 2005년 하반기 초에 협의하여 2005년 말까지 확정하고 새해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목적(또는 효과)중심의 원조사업 계획

지금까지는 원조사업 계획을 원조수단 또는 형태별로 작성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앞으로는 원조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각종 사업을 그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원조수단이나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원조사업의 계획이 KOICA 조직의 바탕이 되는 원조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면 수단 간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지 않게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형태의 원조수단이 동원되지만 상호간에 연계성을 잃고 추진되기 쉽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수원국의 정책적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demand-driven)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고, 원조

공여자(supply-oriented) 중심의 사업계획이 될 가능성이 많다.

對베트남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베트남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동반자로서 성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또는 효과 중심의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베트남 자체의 경제·사회개발정책과 한국의 비교우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빈곤 퇴치가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베트남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온 교육, 보건, 마을 단위의 상하수도 투자 등 사회 인프라보다는 도로, 전력, 통신, 도시개발 등 경제 인프라에 새로운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의 무상원조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에 KOICA의 원조사업은 대규모의 투자가 요청되지 않는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보건, 과학기술 등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베트남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사회개발/빈곤퇴치의 두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비교우위와도 일치한다. 다른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정부는 한국이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비교적 단기간에 경이적으로 이루어낸 경제사회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특히 한국이 수출주도의 개방정책과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민간기업을 키워온 전략과 인력개발과 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이 경이적인 경제개발을 이룩한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력개발과 기술개발분야에서 한국의 축적한 경험을 전수 받고자

〈표 III-1〉중점지원분야의 선정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정책	한국의 비교우위	타 공여국의 비교우위
1. 경제성장 촉진 공기업 민영화 경제 인프라 구축 자원 동원-금융부문 현대화 세계경제와 통합	■ ■ ■ ■	■ ■ ■ ■	■ ■ ■ ■
2. 제도개선/능력개발 시장제도 관리자훈련 행정개혁	■ ■ ■	■ ■ ■	
3. 사회개발/빈곤퇴치 교육 보건 사회안전망	■ ■ ■	■ ■ ■	
4. 환경/자원 보존/개선 환경 자원	■	■	■

한다. 특히, 최근 한국의 눈부신 ICT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본이나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대규모 원조공여국과 공여기관들은 경제부문 인프라 발전에 원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직무의 효과적 배분이 원조 공여국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하여 직접투자보다는 조사 연구사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나 공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이 자본을 동원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기반이 되는 공공행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제도를 개발-개선하고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는 관리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저

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시장경제의 창달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중심의 계획경제 제도의 취약점과 행정관료의 인식과 관리능력 부족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원조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경제성장 촉진, 제도개혁/인력개발, 빈곤퇴치/사회개발, 환경/자원의 보존관리로 한정하는 것은 적은 원조규모를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위의 목적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부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이 있으면(예: 긴급 재난구호사업, 특수목적의 자원봉사 사업이나 전문가 파견사업, NGO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의 프로젝트로서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원조계획에 흡수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프로젝트 중심으로 원조사업 재편성

목적 또는 효과 중심의 사업계획을 가장 잘 반영하는 원조수단이나 형태가 바로 지금의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원조수단을 비교하여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은 원조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전-사후평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현재 프로젝트 사업은 어느 정도 사전-사후 평가제도가 수립되어 있지만 다른 형태의 원조사업은 각각의 사업목적과 예상효과에 관한 사전분석이 없거나 미약하고 따라서 사후평가도 심도 있게 할 수 없다. 즉,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rationale)이나 사후 결과(outputs 또는 outcome)에 관한 명확한 목표가 없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세안 베트남 공무원 파트너십”이란 연수생 초청과정의 왜 필요했는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판단되었는지, 그리고 초청과정 후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는 왜 없는지, 왜 이 과정이 다른 형태의 교육훈련보다 나은지에 관한 비교분석이 없고, 다른 연수과정이나 전문가 파견 또는 프로젝트 등 다른 형태의 원조사업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사업 후 수요자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얻는 평가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쩌면 예상된 긍정적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설문하는 측과 설문에 답하는 측은 원조하는 측과 원조받는 측의 입장이므로 원조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원조

이든지 간에 자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다 감사한 마음으로 수원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부정적 답변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답변에 입각한 평가는 축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와 ‘기술지원 프로젝트’로 나누어진다. 투자 프로젝트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물적-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파견, 봉사자파견, 연수생훈련, 연구조사 등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원조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평균 총사업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투자 사업이든지 기술지원 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을 종래의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원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투자 사업이든지 기술지원 사업이든지 동일하게 심도 있게 해서 원조자원의 낭비를 막고, 또 가능한 모든 원조 수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게 하고, 원조수단 상호간에 연계성을 가져서 목적과 목표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래의 연수사업, 전문가파견사업, 봉사단사업, 물자지원사업도 독립된 투자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면 이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시킨다.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독립된 목적으로 추진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투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독립된 기술지원 프로젝트로 승인-운영한다.

5) 연구조사 사업의 확대

앞으로 3년간 연구조사사업에 중점을 두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 첫째로 국제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후진국은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지식기반 경제의 규모와 발전속도에서 선진국과 크게 격차가 나있다. 앞으로의 경제발전 전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식기반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의 원조사업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의 확대는 연구조사사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조사 사업을 통하여 행동계획(action program)과 투자사업도 도출될 것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의 공기업과 사기업도 이러한 연구조사사업에 근거하여 대 베트남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집행한 광물자원 조사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둘째로 소규모의 한국 ODA가 비교우위가 있는 이유는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빠른 경제개발 경험과 인력과학기술의 개발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돈”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분야의 조사 연구사업을 확대하면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의 이익과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 ODA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EDCF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EDCF의 차관사업으로 신청이 고려되고 있거나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사전조사 사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러한 사전조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원조계획을 신축성 있게 작성하고 즉시 수정·보완한다. 또 조사연구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 EDCF의 원조사업 공급계획(pipe line)도 강화되어서 두 기관이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된다.

6) 북부와 중부 빈곤지역에 중점

원조사업계획은 북부와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조사에 더욱 중점을 둔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빈곤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발전도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빈곤퇴치의 목적에 부합된다. 특히 중부 지역은 소수민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곳이기 때문에 對한국감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 집중한 투자와 기술지원은 한-베트남 간에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 간의 과거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공식적으로 청산되었으나 실질적인 청산을 위해서는 무상원조를 포함한 우리의 성의있는 지원과 다방면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7) 원조사업 규모의 점진적 확대

앞으로 對베트남 원조는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매년 400만(2003년) 내지 500만(2004년) 달러수준의 원조를 승인해 왔지만 앞으로 3년간은 매년 700

만 내지 1,1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확대는 베트남의 개인평균소득이 저개발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800달러 이상이 되면 반전되어서 감소되어야 할 것이며,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를 적극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그리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한국의 무상원조 수혜국인 베트남에 대하여 계속 원조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한 결과이다. 첫째, 베트남은 아직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 450달러에 머물고 있고, 30%에 가까운 국민이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저소득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적으로 원조를 공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원조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은 베트남이 혁신적인 경제개혁과 국제원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을 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동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많은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정당성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한 한층 높은 수준의 원조사업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배양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셋째,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확대는 베트남으로 하여금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서 활약하게 한다. 대외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베트남은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4천여만 명의 노동 인구), 노동비용이 중국보다 저렴하여 한국의 대외투

자에 적격이다. 베트남은 성인 문자해독률이 92%에 달하는 등 노동의 질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임금수준은 대도시의 경우, 월 45달러, 기타지역은 월 35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또 베트남의 노동력은 유교전통으로 성실 근면하고, 오랜 고난의 역사로 인하여 인내심이 강한 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3,317만 헥타)에 원유,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이며, 아울러 동북아, 동남아 및 서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도국이 각종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과는 달리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더욱이 베트남은 인도차이나의 중심국가로서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APEC이나 WTO 등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역내 지지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對베트남 무상원조를 통해 우리기업의 상품홍보와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베트남 투자 선점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4대 수출 및 투자 대상국이며, 16억 달러 이상의 건설 수주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당시 5억 달러에서 2004년 32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무역역조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서도 무상원조 사업이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8) 해외 원조기관과의 협력사업 시작

우리나라의 개별 무상원조사업은 그 규모는 작으면서 비용은 큰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소요된다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해외의 큰 양자 및 다자 원조기관과 협력사업(co-financing)을 증대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KOICA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leveraging)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이러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직원들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援助事業計劃

1) 사업의 규모

對베트남 원조의 규모를 상승 조정해 나간다는 전략에 따라서 제 1차년도에는 700만 달러(약 10개 사업)에서 2차년도에는 700~800만 달러(약 13개 사업), 그리고 3차년도에는 1,000만~1,100만 달러(약 12개 사업)의 수준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업의 내용

원조사업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이고, 둘째는 현대적인 정부와 시장의 제도를 창출하고 개혁하거나 제도를 운영해 나갈 자체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며, 셋째는 사회개발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넷째는 환경과 자원의 보존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다섯째는 소규모 단위의

주민과 단체의 참여와 자조를 통하여 생활수준과 환경을 개발-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의 개념과 개략적인 목적과 내용이 《附錄 4》에 첨부되어 있고, 옆의 〈표 Ⅲ-2〉에 요약되어있다.

3년간(2006~2008)에 경제성장 촉진사업을 위하여 약 25.2백만 달러가 계상되었고 제도개선/능력개발을 위하여 약 7.0백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사회개발/빈곤 퇴치를 위하여 약 13.1백만 달러가 지원될 것이며 자원-환경의 보존-개선을 위하여 약 1.0백만 달러가 계획되었으며, 끝으로 특수사업을 위하여 약 0.6백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① 경제성장 촉진사업

경제의 주된 주체로 되어 있는 공기업의 주식화(株式化)를 촉진하여 민영화를 도모하며 이미 주식화된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공기업개혁 연구조사(2006년 50만 달러)’ 사업을 추진하고, 후속으로 ‘공기업개혁투자(2008년 50만 달러)’ 사업을 추진한다. 또 증권시장과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영부진을 개선하여 국민의 저축은 물론, 대량의 국내외 금융자원을 원활히 동원하여 투자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금융산업개혁연구조사(2007년 50만 달러)’ 사업을 포함한다. 또 한국의 KOTRA와 같이 해외경제와 통합되는 정책을 수행하고 해외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의 개발과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며, 수출과 투자를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설치-운영 가능성과 득실을 연구조사하는 ‘해외무역투자개발공사설치(2006년 50만 달러)’ 타당성

〈표 Ⅲ-2〉 對베트남 3개년 원조 사업계획(2006~2008)

(단위: 백만 원, 백만 달러)

필요성	프로젝트	2006	2007	2008
1. 경제성장 촉진	3.5	1.5	0.5	1.5
공기업개혁-민영화 및 공기업 경영부진	• 공기업개혁연구조사 • 공기업개혁 투자 • 금융산업개혁연구조사 • 해외무역투자개발공사설치 연구조사 • 전자상거래기반구축연구조사 • 전자상거래활성화 투자	0.5 0.5 0.5	0.5	0.5 1.0
2. 제도개선/능력개발	7.0	1.0	1.5	4.5
전자정부 계획만 있을 뿐임	• 전자정부구축기반연구조사 • 전자정부구축투자	0.5		2.0
공기업간부,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의 투자사업 관리집행 능력 부족	• 관리자 훈련과정 수립 1 • 관리자 훈련과정 수립 2 • 관리자 훈련과정 수립 3 • 세무행정개선연구조사 • 세무행정개선 투자 • 토지관리행정개혁조사연구 • 토지관리행정개혁투자	0.5	0.5 0.5 0.5	0.5 1.0 1.0
세무행정 취약				
토지관리활용행정 취약				
3. 사회개발/빈곤퇴치	13.1	4.3	3.8	5.0
사회안전망 취약 자연재해 예방 사전경보 대처조치능력 취약 고교취학을 저조 직접교육비 과다	• 사회안전망 강화 • 재해예방대처능력 향상 • 빈곤가정 고교생 장학사업 1 • 빈곤가정 고교생 장학사업 2 • 빈곤가정 고교생 장학사업 3 • 빈곤지역 유아교육 사업 1 • 빈곤지역 유아교육 사업 2 • 빈곤지역 초등학교 건축사업 3 • 빈곤지역 초등학교 건축사업 4 • 직업훈련조사연구 • 직업안전사업연구조사 • 빈곤층 건강보험 1 • 빈곤층 건강보험 2 • 빈곤층 건강보험 3 • 지역보건소 1 • 지역보건소 2 • 지역병원 3 • 지역병원 4 • 농촌개발	0.5 0.3 2.5 0.7 0.3 1.0 0.5	0.5 0.3 0.4 0.3 0.3 0.5	 0.3 0.4 2.5 0.3 0.5 1.0
교육기자재, 시설 부실(유치원, 초, 중, 고)				
인력개발 직업훈련-직업안정사업 취약				
빈곤층 건강보험증 23%만 지급				
보건소 시설 취약(60%가 정부기준 미달)				
지역보건시설 기자재 의약품 취약				
농촌단위의 참여-자조노력부족				
4. 환경/자원 보존/개선	1.0	0	1.0	0
자원조사관리활용미약	• 수자원관리활용연구조사		1.0	
5. 특수목적	0.6	0.2	0.2	0.2
긴급재난구호, NGO 지원사업 등	• 특수목적 프로젝트	0.2	0.2	
합 계	25.2	7	7	11.2

조사사업도 포함한다. 또 해외무역과 투자가 증대하고 외국인의 對베트남 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연구조사(2007년 50만 달러)’ 사업이 실시되고 후속 투자사업(2008년 1백만 달러)이 계상되어 있다.

② 제도개선/능력개발사업

공기업의 간부와 공무원,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투자사업 관리집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베트남 내부에 관리자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수도 하노이市에서 시작된다(2006년 50만 달러). 이 사업은 집행과 성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 특히 중부지역의 도시에 설치하는 제2, 제3의 사업이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다(각각 50만 달러). 또한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하여 어떤 투자가 필요할 것인가를 연구조사하는 사업(2006년 50만 달러)이 투자사업(2008년 2백만 달러)에 선행될 것이다. 투자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2008년 1백만 달러)이 추진된다. 하지만 사전에 그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2007년 50만 달러)이 선행된다. 시장경제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투자와 담보의 수단이며 저가(低價)의 주택 건설과 보급의 기초가 되며, 농업생산 확대의 기초가 되는 토지관리와 그 활용에 관한 행정을 개선·개혁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2007년 50만 달러)이 실시되고 뒤이어 실제 투자(2008년 1백만 달러)가 수행된다.

③ 사회개발/빈곤퇴치사업

빈곤퇴치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폭넓은 사회안전

망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조사사업(2007년 50만 달러)이 시행되지만 특히 매년 닥쳐오고 빈곤인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연재해의 예방과 사전경고 및 대처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조사사업(2006년 50만 달러)이 먼저 시행된다.

정규교육분야에서는 중부지역 등 빈곤지역에서 학비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가 되는 고교진학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2006년 30만 달러)이 시험적으로 실시되어서 성공적이면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2007년과 2008년 각각 30만 달러). 정규교육부문에서의 투자사업은 이미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건설과 개선사업이 중부지방 등 빈곤지역에서 제3차 및 4차 사업으로 실시된다(2006년과 2008년). 또 초등교육의 기초가 되며 빈부의 차이를 자아내는 기초적 원인이 되는 유치원사업(교실, 놀이시설 및 기자재 공급)을 빈곤지역에 실시한다(2007년과 2008년에 각각 40만 달러).

비정규교육 분야에서는 EDCF에 신청되어 있는 5개의 직업훈련소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연구하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안정사업의 강화방안을 연구조사하는 사업을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실시한다(각각 70만과 30만 달러).

보건분야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는 중부나 북부의 빈곤층에게 건강보험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곤층 건강보험사업’을 2006년에 시범실시하여 성공적이면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지원한다(각각 30만 달러). 다른 하나는 시설이 정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중부나 북부의 빈곤지역의 마

을보건소를 재건설하거나 개선하여(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0만 달러) 기초의료와 예방의료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미 경험을 축적한 지역병원의 건설을 중부나 북부의 빈곤지역에 제3차와 4차의 사업으로 2007년과 2008년에 실시한다(각각 1백만 달러). 이러한 지역병원 건설사업에는 종래에 따로 독립적으로 제공되었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사업이 흡수되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빈곤인구는 농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마을 단위로 소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새마을 지도자 사업과 투자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후속 투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농촌개발 사업을 2007년에 실시한다(50만 달러).

④ 환경-자원보존 개선사업

베트남은 긴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수산자원을 채취하고 있고, 내륙의 강과 호수를 이용하여 수산물 양식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그 자원의 규모와 지속가능한 채취-이용의 확대가능성을 연구조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투자에 기초가 되며, 경제 성장과 빈곤퇴치에 유용한 사업이 될 것이다(2007년 1백만 달러).

⑤ 특수사업

위에서 분류한 제한된 목적에 속하지 않지만 독립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거나(예, 긴급재난구호사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수의 소규모 사업을 효과적

으로 묶어서 하나의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예, NGO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유보해 두도록 한다(각각 20만 달러).

3. 援助事業 計劃의 執行

1) 원조사업의 원만한 설계와 사전평가

원조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은 집행자체의 효율성보다도 원조사업이 준비단계에서 얼마나 원만하게 잘 설계되었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당초의 설계 자체가 미흡하면 사업설계를 재조정하고 변경해야 하게 되어 지연되기 쉽고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의 사전준비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KOICA의 자체 직원이 각각 전문지식을 배양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 이외에 사업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를 단기로 고용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투자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비교적 심도 있는 사전준비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외의 원조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은 행정절차상의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거나 사업의 내용 자체가 전문가나 봉사단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고 그 제안이 타당한지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가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프로젝트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의 사전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투자 프로젝트의 사전심사도 더욱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베트남의 사업신청서는 대부분 기획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의 사업신청서는 필요한 건축물의 면적, 기자재의 종류와 숫자, 연수인원, 파견전문가 숫자 등 기술적 투입물(inputs)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치고,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결과의 숫자적 목표 설정이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효과(benefits or outcome)의 분석 등이 미흡하고, 프로젝트 시작 전의 현 상태에 관한 통계적 조사(baseline data)도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결과나 효과를 프로젝트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원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목적과 타당성(Rationale)을 정립하고 향후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해 놓고 추진할 연도별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또 사업 전후의 비교평가가 가능하게 사업 수행 초기의 기초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없으면 그러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프로젝트 내용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2) 사업 모니터링 강화

원조사업의 집행 중에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원조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는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정하며, 재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과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사실상 행해지지 않고 있고, 사후 평가까

지 기다리는 현재의 관행은 많은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교정과 조정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많고 비용을 증대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기능은 각국에 주재하는 직원들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지 주재 직원에게 일임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단기 채용할 권한과 예산까지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부와 현지 주재원의 업무분장과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하고, 값비싼 현지 주재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현지에 일정한 기능과 책임을 위임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중부지방에 많은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호지민市나 중부에 주재할 직원을 증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援助事業評價와 成果測定指標

3개년 원조사업의 집행 속도를 점검하고, 사업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지표작성이 필요하다. 하나는 원조사업계획 전체의 집행실적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각 개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째, 사업계획 전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이용할 것이다.

둘째로 각 사업별로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평가서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공기업의 주식화와

민영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화와 민영화 될 공기업 수를 사전에 목표로 설정한다. 또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종료와 함께 실제로 몇 개의 기업이 주식화와 민영화를

성취하였는가(output)를 측정한다. 그리고 원조사업의 결과, 그 기업의 경영실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하는 효과(outcome)도 사후에 평가되어야 한다.

〈표 III-3〉 원조사업계획 집행실적 측정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I. 총 외원액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7	7	11.2
I-1. 목적별 외원액(경제성장)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1.5	0.5	0.5
I-2. 목적별 외원액(제도개선/능력개발)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1.0	1.5	4.5
I-3. 목적별 외원액(사회개발/빈곤퇴치)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4.3	3.8	5.0
I-4. 목적별 외원액(환경/자원보존)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0	1.0	0
II. 총 사업 수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10	13	12
II-1. 목적별 사업 수(경제성장)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3	1	2
II-2. 목적별 사업 수(제도개선/능력개발)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2	3	4
II-3. 목적별 사업 수(빈곤퇴치/사회개발)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5	8	6
II-4. 목적별 사업 수(환경/자원 보존)	계획목표 집행실적 진도 (%)	0	1	0
II-5. 집행 중 사업의 상태	계획 집행실적 진도(%)	80% 양호 ^{주1)}	80% 양호 ^{주1)}	80% 양호 ^{주1)}

주1): 승인된 모든 사업의 80%가 양호한 상태

셋째로 각각의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집행과정과 결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성공점을 확인하고 교훈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훈은 향후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5. 援助事業의 危險管理

계획기간에 원조사업이 당면할 위험은 많지 않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안정되어있고 당의 대의원대회도 중장기 계획이 끝난 후에 개최되므로 정치지도자의 변경과 내각의 큰 개편도 기대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경제적인 위험도 적다.

그러나 공기업의 개혁이 지연되거나 WTO에의 가입이 주요한 교역상대국과 금년 말까지 합의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공기업개혁 연구조사사업' 등 경제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사 프로젝트는 조속히 준비되고 집행되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장기 원조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KOICA의 총자원을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구조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각 국가별로 중장기 원조계획을 수원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분야별 팀과 협의하여 집행하며, 이를 모니터하고 감독·조정하며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중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국가별

계획팀(country programming unit)이 별도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변화는 KOICA가 주요 국가 모두에게 중장기 계획을 도입할 때에 수행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베트남은 국가별로 중장기 원조계획을 수립하려는 KOICA의 정책을 시험하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KOICA 전체의 조직을 개혁하기 전에 베트남만을 위한 소규모의 특별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특별작업반은 베트남의 중장기 원조계획 담당팀(country programming unit)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즉, 원조계획을 수원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각 분야별 팀과 협동하여 예산을 작성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며, 집행을 모니터하고 감독 조정하는 역할이다. 또 성과를 목표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다음해의 원조계획 작성과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와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능력있는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험사업이 갖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프로젝트의 숫자와 액수가 늘어나서 준비와 집행의 점검에 더욱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의 확보가 적기에 되지 않으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현지에 파견된 사무소 직원의 효율적 활용이 인력 확보상의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특히 본부와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소에 대한 과감한 위임이 필요하다. 본부는 사업계획의 수립, 정례적 정책협의, 사업계획의 확정과 사업의 사전평가에 주력하고, 사무소는 사업의 준

비와 집행의 점검과 수원국과 다른 공여국과의 통상적이면서도 긴밀한 협의에 주력하면, 인력의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집행의 점검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건의하는 사업집행점검 보고서를 전산으로 양식화하고, 1년에 매 사업당 2번 본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조사사업이 증가하고 전문가의 단기고용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의 증액이 필수적이다. 각 분야별

로 단기통보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정규직원의 급격한 증원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의 적기집행을 위하여 유용하다.

고교장학금 지급이나 건강보험카드 지급 등 현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므로 대상자 선정과 현금의 지급에 부정과 정실이 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參考文獻

- 한국국제협력단 (2005), “베트남 원조동향” 국제협력동향 2005. 3.
- 한국국제협력단 a (2004), 개도국 무상 · 기술협력사업 수혜자평가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4-5-57, 2004. 7
- 한국국제협력단 b (2004), 사후평가 종합 결과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4-3-43, 2004. 6.
- 한국국제협력단 c (2004), 2003년도 연수과정 평가보고서(I, II, III), 업무자료 연수2004-5-35, 2004. 5
- 한국국제협력단 d (2004), 개발협력:2003년도 OECD/DAC 보고서, 2004. 7
- 한국국제협력단 a (2003), 전문가 파견사업 평가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3-6-50, 2003. 10
- 한국국제협력단 b (2003), 개도국 무상 · 기술협력사업 수혜자평가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3-3-43, 2003. 8
- 한국국제협력단 (2002), 개도국 무상 · 기술협력사업 수혜자평가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2-2-34, 2002. 9
- 한국국제협력단 a (2000), 개발조사사업 사후평가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0-6-54, 2000. 12
- 한국국제협력단 b (2000), 해외봉사단원파견사업 종합평가보고서, 업무자료 평가2000-1-14, 2000. 3
- 한국국제협력단 (1998), 베트남 병원건축사업 사후평가보고서, 보고서 평가98-5-45, 사업평가팀 1998. 12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4), 직업훈련 프로젝트사업 외부위탁평가결과보고서, 업무자료 평가 2004-4-45, 2004. 6.
- Amsden, Alice H. (1992)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NY,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APEC (1999), Innovative Labour Market Adjustment Policies and Programmes in APEC Member Economies, APEC 99-HR-01.2.
- Asian Development Bank (2004), Country Strategy and Program Update: 2005-2006: Viet Nam, Manila.
- AusAid (2003), “Viet Nam 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2003-2007),” Canberra, Nov. 2003
- Beard, James and Nisha Agrawal (2001), “Eradicating Poverty and Hunger in Vietnam”, Poverty Task Group,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he World Bank, Hanoi.
- Blomquist, John (2001), “Social Safety Nets in Response to Crisis: Lessons and Guidelines from Asia and Latin America”, report submitted to the APEC Finance Ministers.
- CIEM and JICA (2003), A Study on Donor Practices in Vietnam . Grant Aids and Transaction Cost: Listen to the voice of the Recipient, Hanoi.
- Country Department (2002), Vietnam Economic Monitor, Departmental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Dao Quang Vinh, “Social Safety Nets in Vietnam”, Institute of Labor Science & Social Affairs in Vietnam, Hanoi.

- Dollars, D. and J. Litvack (1998), “Macroeconomic Reform and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in D. Dollars, P. Glewwe and J. Litvack (eds.), Household Welfare and Vietnam's Transition, World Bank, Washington DC.
- EU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lors (2004), 2004 Report on Vietnam, Hanoi.
- Government of Vietnam, Donors' Working Group (2000), “Vietnam: Managing Public Resources Better: Public Expenditure Review 2000”, Vietnam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Hanoi.
- Government of Vietnam, Donors, and NGO Poverty Working Group (1999), “Attacking Poverty”, Vietnam Development Report, World Bank,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 Hanoi.
- GRPIS (2003a), “Large Infrastructure in the Context of Viet Nam's CPRGS”, paper presented at the Development Forum in September, Tokyo.
- GRPIS (2003b), “Linking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Large Scale Infrastructure in the context of Vietnam's CPRGS”, paper presented at the Development Forum at the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November, Tokyo.
-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re of Japan (2003), Present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n Japanese ODA for Vietnam, Hanoi.
- JICA (2004) Japan's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Viet Nam, mimeo.
- JICA (2003), Japanese Approach for WTO-related Capacity Building Cooperation. Basic concept and measures, pp. 2-3.
- Kawasaki, K. (2004), “The Impact of 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on Asian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Vol. 16, No.1.
- KOICA/Vietnam Office (2005), Vietnam's Development Strategy and Plan, Ha Noi.
- KOICA/Vietnam Office (2005),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Vietnam), Ha Noi.
- Lee, Eddy (1998),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Challenge for Social Policy,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 Lee, Kye Woo (1999),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APEC,” The Journal of APEC Studies, Vol. 1, No.1.
- McGee, T. G., Angeles, L., Bautista, C., Sity D., Hainsworth, G., Scott, S., Setiawan, B., Suksiriserekul, S. and Vu, Tuan Anh (2000), “The Poor at Risk: Surviving the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PEC project 2000 (mimeo).
- Ministry of Culture & Information (2000), “Vietnam 2010: Entering the 21st Century.” Development Report 2001 (Joint Report of the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nd UNDP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 Hanoi.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1999), “Attacking Poverty.” Development Report 2000(Joint Report of the Government of Vietnam, Donor, NGO Poverty Working Group). Hanoi.
- Ministry of Health (1999), “Service in Vietnam Today”, Hanoi, Vietnam
- Ministry of Health (2000), “Health Strategy and Policy Institution”, Health Policy and Medical Sociology, Hanoi, Vietnam

- Mitsui, H. (2003), Impact Assess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in Northern Vietnam,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re of Japan.
- MPI (2004), "Summary Report on ODA Mobilization and Implementation in Vietnam, and the Impacts of ODA on Local Economy in Central Coasts and Central Highland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ODA implementation in Central Coasts and Central Highlands in May, Da-Nang.
- NORAD (2000), The Country Approach to Viet Nam (mimeo), Ha Noi.
- OECD a (2004),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OECD, Paris
- OECD b (2004), "Mobilising Investment for Development: Role of ODA The 1993-2003 Experience in Vietnam",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04/6, OECD, Paris
- Ortiz, Isabel (2001), "Reforming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Asia and the Pacific: A Perspective from the ADB", paper presented in OECD workshop, COM/DEELSA/CD(2001)20, Paris.
- Park Chanyong & Kye Woo Lee (2001), APEC's Measures for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in the Asia-Pacific Region, MOFAT-KIHASA
- Poverty Task Force (2001), Localizing IDTs for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Reducing Vulnerability and Providing Social Protection, World Bank Office Vietnam, Hanoi.
- PROPARCO/Groupe Agence Francaise de Development (2003), Annual Report 2003, Paris.
- Riedel, J., S. Parker and Phan Vinh Quang (2004), "An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United States-Vietnam Bilateral Trade Agreement", update report on bilateral trade in 2003 between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 Silver, Marshall, (2001), "Natural Disaster, Agriculture, and Property Insurance", Note for UNDP, Hanoi.
- Singh, Paguman (1992), "National strategies for the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to the entire population", i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Report of the ISSA Regional Meeting for Asia and the Pacific on the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Protection to the Entire Population.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02), The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 Ha Noi.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99), "Vietnam's Country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Social Development",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 Steering Committee of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2003), Viet Nam: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Annual Progress Report of 2002-2003, Ha Noi.
- Taylor, Philip (ed.) (2004), Social Inequality in Vietnam and the Challenges to Reform,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UN (2000),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 UN and MOLISA (1999), Basic Social Services in Vietnam: An Analysis of State and ODA Expenditures, Ha Noi.
- UNDP (2004), Overview of ODA in Viet Nam, Ha Noi, Dec. 2004
- UNDP (2003), Country Evaluation Assessment of Development Results, Vol. II: Background Report, New York.

- UNDP (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3002: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New York.
- UNDP (2003), Development Co-operation: Vietnam Report, Ha Noi.
- UNDP (2001), Human Development Report, Database.
- UNDP and CIEM (2003), Study on Donor Practices in Vietnam: Grant aid and Transaction Costs: Listen to the Voice of the Recipient, Ha Noi.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 (2004), United Nations Common Country Assessment for Viet Nam, Ha Noi.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b (2004),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Closing the Millennium Gaps, Ha Noi.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2002), Bringing the MDGs Closer to the People, Ha Noi.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2001), 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rogress, Vietnam, Ha Noi.
- United Nations Viet Nam and Ministry of the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1999), "Basic Social Service in Viet Nam-An Analysis of State and ODA Expenditures", Ha Noi.
- Van de Walle, Dominique (1998) "Protecting the poor in Vietnam's emerging market economy",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ublic Economic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969.
- Van de Walle, Dominique (2002), The static and dynamic incidence of Vietnam's public safety net.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1996), "Report on Credit Lending", Hanoi, 1995: Johnson Alan, "Microfinance in Vietnam: A collaborative study based upon the experiences of NGOs, UN agencies, and bilateral donors", CGAP/UNDP.
- Vu, Tuan Ahn (2000) Vietnam: The Poor at Risk-Surviving the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Report to APEC HRD WG, Hanoi.
- Whiteford, Peter and Forster, Michael (2001), "The Defini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Safety nets: What Forms of Social protection?", paper presented at OECD workshop, Paris, CON/DEELSA/CD(2001)16.
- World Bank a (2004), A Progress Report on the Country Assistance Strategy of the World Bank Group 2003-2006, Vietnam
- World Bank b (2004), Vietnam Development Report 2005: Governance, (Report No. 30462) Washington, DC
- World Bank c (2004),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ogress Report(Report No. 27672), Washington, DC
- World Bank d (2004), Country Assistance Strategy Progress Report for the Vietnam(Report No. 27659), Washington, DC
- World Bank e (2004), Debt Sustainability and Financing Terms in IDA14: Technical Analysis of Issues and Options, IDA.
- World Bank (2003), Vietnam Development Report 2004: Poverty, Hanoi.

附錄

- World Bank a (2002), Development Report 2003: Vietnam Delivering on its Promise, Hanoi.
- World Bank b (2002), Country Assistance Strategy of the World Bank Group for Vietnam (Report No. 24621), Washington, DC.
- World Bank c (2002), Global Development Finance, Washington DC.
- World Bank (2001) Vietnam: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Report No. 23288), Washington, DC.
- World Bank a (2000), East Asia Brief,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Washington, DC.
- World Bank b (2000), East Asia: Recovery and Beyond, Washington, DC.
- World Bank c (2000), Vietnam CAS Progress Report, Report No.: 20769-VN
- World Bank a (1999), "Towards an East Asian Social Protection Strategy", Human Development Unit, World Bank.
- World Bank b (1999), Aid Assessment: When useful, When not and Why?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 World Bank, ADB, UNDP (2000), "Vietnam 2010: Entering the 21st Century: Vietnam Development Report 2001: Pillars of Development", paper prepared for Consultation Group Meeting for Vietnam, Hanoi.
- World Bank, SIDA, AusAID, Royal Netherlands Embassy and Ministry of Health, (2001), Growing Healthy: A Review of Vietnam's Health Sector, Hanoi.
- USAID:2004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http://www.usaid.gov/policy/budget/cbj2004/asia_near_east/Vietnam.pdf
- USAID:Vietnam Program Briefing
http://www.usaid.gov/locations/asia_near_east/countries/vietnam/vietnam_brief.html
http://www-wds.worldbank.org/servlet/WDS_IBank_Servlet?pcont=details&eid=000094946_02031010384553
http://www-wds.worldbank.org/servlet/WDS_IBank_Servlet?pcont=details&eid=000160016_20031024173018
http://www-wds.worldbank.org/servlet/WDS_IBank_Servlet?pcont=details&eid=000090341_20040219143753
http://aric.adb.org/social/Social_Safety_Net01_04.asp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ocsec/publ/css/mala93e.htm>
http://www.mir.com.my/lb/econ_plan/contents.htm
<http://www.worldbank.org/html/extdr/offrep/eap/jmsboard/myannx.htm>
World Bank for MDGs <http://www.developmentgoals.org/>
World Bank, MDG for Vietnam
<http://devdata.worldbank.org/idg/IDGProfile.asp?CCODE=vietnam&CNAME=vietnam+vietnam&SelectedCountry=vietnam>
<http://www.koreaexim.go.kr>
<http://www.kita.co.kr>

〈附錄 1〉 해외 공여국과 공여기관 현황

〈附錄 2〉 우리나라 ODA 사업 현황

〈附錄 3〉 사회안전망 현황

〈附錄 4〉 개별 원조사업(프로젝트) 개요

해외공여국과 공여기관 현황

1. 일본

1992년 이후 베트남의 최대 원조공여국인 일본은 2002년에 375백만 달러를 베트남에 지원하는 등 그동안 베트남의 최대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일본의 지원금 규모는 베트남 총 수원 ODA의 5분의 1 이상을 점유하는 상당한 액수였다. 일본이 베트남에게 제공하는 원조자금은 베트남 투자와 무역 및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본과 베트남 경제, 더 나아가서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가 상호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對베트남 지원정책은 대외정책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사회복지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베트남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중 대외정책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해당하는 원칙에 의해 베트남 경제성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의 사

회복지 원칙에 의해 빈곤을 포함하여 생활 및 사회여건의 개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지원사업 우선순위는 성장촉진, 삶의 질 향상, 구조적 발전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3가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관련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2002년도 전체 ODA 예산에서 보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166백만 달러로 최대 지원영역을 차지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개선사업, 사이공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항구확장 프로젝트 등이다. 아울러 2001년 수준에 비해 45%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2002년 48백만 달러를 지원한 에너지 분야는 對베트남 일본 ODA의 두 번째 우선지원 분야이다. HRD 부문에 대한 일본 ODA의 지원은 전년대비 2배로 증가했으며 주로 벽지지역의 초등학교 건축 및 교육훈련 사업에 치중되어 지원되었다.

〈부표 1-1〉 일본의 對베트남 지원 우선순위

	설명	관련분야
성장촉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성장엔진, 올바른 경제구조와 정책, 그리고 경제인프라와 인적자원과 같은 기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1)투자환경개발 2)중소기업과 민간부문 개발촉진 3)경제인프라(교통, 전력, 정보, 통신) 개발 4)성장을 지원할 인적자원개발 5)국영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
생활 및 사회적 여건개선	이 분야는 빈곤, MDG달성 등과 같이 다양한 이슈와 관련이 있음	1)교육 2)건강과 의료서비스 3)농업-지역발전 4)환경
경제·사회구조 발전	경제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의 발전은 성장촉진, 생활의 궁핍 및 사회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1)법적 체계의 발전 2)행정개혁(공무원과 재정개혁)

〈부표 1-2〉 일본의 對베트남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101.44	146.53	133.01	138.29	133.32
유 상	287.18	533.46	790.67	321.24	241.42
계	388.62	679.99	923.68	459.53	374.74

자료: OECD a (2004)

한편 일본정부의 최근 베트남 지원 동향을 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약 15.3억 엔을 들여 베트남 북부 산간지방 4개 성에 48개 초등학교 무상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대한 포괄적 도시개발계획 프로그램이 일본 JICA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노이-하이퐁 간 5번 도로개선사업이 45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2004년 10월 1일 개통식을 갖고 공식 종료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더욱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성 및 주변 지역 간의 연결성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베트남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분야를 거의 다 포괄하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교통 및 에너지 등 대단위 규모의 사업에 주로 치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對베트남 원조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양국 간 신뢰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의 對베트남 원조에 대한 기본정책은 언어 및 문화 개발, 과학·기술 및 사업적인 동반자 관계, 프랑스 기술에 의한 프로젝트 실시와 이를 통한 경제지원 등이다. 아울러 프랑스의 對베트남 중점지원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 기초교육, 훈련 및 기초보건이다. 특히

〈부표 1-3〉 프랑스의 對베트남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28.19	31.88	26.23	24.56	28.88
유 상	37.99	47.29	26.69	37.23	48.92
계	66.18	79.17	52.92	61.79	77.80

자료: OECD a (2004)

최근 베트남은 프랑스의 중점협력대상국에 편입됨으로써 무상원조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프랑스의 對베트남 소규모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5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프랑스 ODA 지원액의 45%를 점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HRD의 경우, 전체 ODA 지원액의 17%를 점유하였는데 대부분이 프랑스로의 유학자금 지원에 할당되었다.

최근 베트남 재무부와 프랑스 AFD측은 3천만 유로 규모의 차관지원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자금은 중부지역 도시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베트남 측의 사업집행기관은 건설부와 중부지역 6개 성이며,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하노이 또는 호치민으로의 이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관련 활동들이다. 동 차관사업은 AFD가 실시 중인 빈곤해소,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제반 對베트남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프랑스의 원조기구인 AFD는 지금까지 28개 프로젝트에 약 4억 8천만 유로 규모의 對베트남 ODA 자금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향후 베트남의 발전이 많은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덴마크

덴마크정부의 對베트남 원조 중점협력분야는 수산업, 상수원, 농업이고,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은 덴마크 NGO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작업을 지원하였는데, 이 작업은 덴마크의 해외원조기구인 DANIDA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덴마크는 이러한 작업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하곤 하였다. 그런데 덴마크정부의 對베트남 원조방향은 중점협력분야의 장기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표 1-4〉 덴마크의 對베트남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40.43	38.92	40.68	60.6	47.91
유 상	0.48	0.45	0.35	-0.36	0.48
계	40.91	39.37	41.03	60.24	48.39

자료: OECD a (2004)

덴마크는 총 52.6백만 달러를 지원, 베트남 내 공여순위 6위를 기록하였으며 천연자원 관리, 농업 및 산림분야가 지원액의 52%를 차지, 주요 지원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덴마크의 지원은 다음 세가지 영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능력배양과 의식제고, 천연자원의 환경관리, 도시와 산업지역의 지속적 발전 등이다.

4. 호주

호주의 對베트남 원조정책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장기개발 발판 구축, 농촌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으로 빈곤계층 생계 향상, 베트남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능력 구축, 체계적 개발, 정책자문, 기타 전략활동 등을 통한 정부의 책무성과 효과성 증진 등이다. 그리고 호주의 對베트남 원조방향은 교육 훈련, 보건, 농촌 개발 및 인프라, Governance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

〈부표 1-5〉 호주의 對베트남 원조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40.76	40.16	35.72	38.88	35.07
유 상	0.0	0.0	0.0	0.0	0.0
계	40.76	40.16	35.72	38.88	35.07

자료: OECD a (2004)

호주는 2002년 전년대비 34% 증액된 36.7백만 달러를 공여, 지원순위 8위를 기록했는데, 25% 이상의 호주 ODA는 HRD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천연자원 관리 분야, 농촌개발 및 사회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도 주요 우선지원 분야이다.

최근 호주의 베트남에 대한 ODA는 빈곤해소, 경제사회개발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AusAid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호주 원조의 특징은 베트남 정부와의 파트너십과 상호협력 정신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대부분의 원조가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협력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때로는 세계은행 및 UNDP와 같은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실시중에 있다.

호주는 1991년 베트남에 대한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재개한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 베트남에 대한 호주의 양자 간 원조실적은 연간 약 60백만 달러에 다다

르고 있다. 아울러 지역프로그램, NGO, 긴급원조를 위한 호주 정부의 기타 자금을 통해서도 약 14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의 2003-2007년도 원조정책은 빈곤해소를 위한 2가지 목적에 치중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구축 및 Good Governance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유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메콩 델타 및 중부지역 농어촌 빈민들을 위한 생산력 증가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5. 독일

독일의 對베트남 협력정책에서 중점 협력분야는 베트남의 개혁정책 지원, 민간기업 촉진, 교육·보건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강화, 천연자원을 통한 빈곤완화, 교통수송 체계개발 등이다. 아울러 독일의 對베트남 원조방향은 독일과 베트남 간의 연례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 우선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1년 대비 55% 증액된 34백만 달러를 지원한 독일은 2002년 공여순위 9위를 기록하며 공여순위 10위에 재진입하였다. 주요 지원분야는 교통, 보건, 농촌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부표 1-6〉 독일의 對베트남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40.71	35.97	28.85	43.5	29.35
유 상	14.07	30.14	4.45	-5.6	12.32
계	54.78	66.11	33.3	37.9	41.67

자료: OECD a (2004)

독일정부는 최근 베트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53백만 달러 가량의 자금공여를 약속했으며 주요 지원 예정분야는 산업, 농업, 농촌개발 및 환경 분야 등이다. 구체적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발전, 광빈성(Quang Binh province) 케방국립공원(Ke Bang National Park)의 풍나(Phong Nha) 개발 및 보존 프로젝트, 빈푹(Vinh Phuc) 직업훈련센터 개발, 기타 농업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 등이다. 아울러 베트남 MPI에 따르면 상기 총지원 약속액 중 20백만 달러 가량은 무상원조 자금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베트남과 독일은 주로 시장경제 전환,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보건 및 AIDS 예방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협력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1999년 이후, 독일정부는 약 556백만 달러 가량을 ODA 자금으로 베트남에 지원했으며 그중 약 333백만 달러 정도가 무상원조로 지원된 바 있다.

6. 스웨덴

스웨덴의 對베트남 협력목표는 장기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범주에서 국가변영 증대 및 빈곤 축소 촉진과 민주 지향적인 개발과 투명성 촉진 및 인권신장이다. 아울러

〈부표 1-7〉 스웨덴의 對베트남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33.43	32.87	37.32	29.6	24.4
유 상	0.25	0.25	0.0	5.32	0.0
계	33.68	33.12	37.32	34.92	24.4

자료: OECD a (2004)

스웨덴의 對베트남 주요협력분야는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경제, 행정, 사회 등의 개혁과정 범주에서 전략사업지원, 특별 소외계층 및 지역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개발 촉진 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지원,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부문 사업 등이다.

7. 캐나다

캐나다의 對베트남 원조정책에서 중점 협력분야는 빈곤해소와 Good Governance, 민간부문 개발능력 강화 등이며 對베트남 원조방향은 협력규모를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표 1-8〉 캐나다의 대 베트남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무 상	9.16	11.33	14.56	11.76	20.0
유 상	0.0	0.0	0.0	0.0	0.0
계	9.16	11.33	14.56	11.76	20.0

자료: OECD a (2004)

8.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베트남에 대해 아래 7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① 교통분야 주요 프로젝트

- 도시교통개발(1999년): 호치민시 및 하노이시 교통개선
- 메콩 교통개발과 홍수방지 프로젝트(2000년):

- 남-북 고속도로 개보수 및 메콩지역 교통 개선
- 제2차 농촌지역 도로 프로젝트(2000년): 농촌지역 도로 개보수
- 고속도로유지 프로젝트(2001년): 도로망 유지·관리

② 에너지

-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사업 참여를 진작
- 주요 프로젝트: 농촌에너지 프로젝트(2000년),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2002년)

③ 도시개발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관리 및 자립능력 배양
- 주요 프로젝트: 도시교통개발을 위한 대출(Credits for Urban Transport)(1999년), 3개 도시 위생(1999년), 호지민시 환경(20001년), 도시용수 및 위생(2002년)

④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원조 증대
- 농촌지역 및 천연자원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은 1994~1998년의 27%에서 1999~2002년에는 38%로 증대
- 주요 프로젝트: 해안농지관리(1999년), 메콩 델타 수자원 개발(1999년), 하천유역 관리(2001년), 농산물 다양화 서비스(2002년), 농촌 구조조정 대출(2001년)
- 지역기반 농촌 인프라개발(2000년): 1,700여개 빈곤 마을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ODA의 지방분산 및 참여적 개발을 촉진
- 북부 산간지역 빈곤축소 프로젝트: 북부 산악지대에

-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지원
- ⑤ 교육
 - 기술원조 및 차관을 병행하여 초등교육과 직업훈련 중점 지원
 - 주요 프로젝트:
 - 커리큘럼 개발(1999년): 기술원조
 - 초등학교 교사훈련(2000년): 차관
 - 빈곤계층을 위한 초등교육(20002년): 차관
 - 고등교육(1999년): 차관

⑥ 보건

- 주요 프로젝트: 빈곤계층 보건 프로그램(2000년), 조기아동교육 프로젝트(2002년)

⑦ 공공행정개선

- 주요 프로젝트: 재무부 현대화 프로젝트(2001년)

세계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2001년 대비 약 17% 감소되었지만 2002년 베트남 총 ODA 수원액의 18%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PRSC 자금 지원 지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은행은 2002년에 베트남 농촌 관개시스템 개선사업비로 157.8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베트남 수산자원 지원사업을 약정하였는데, 동 사업은 베트남 관개체제를 개발 및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조류독감 대처 긴급 차관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9. 아시아개발은행(ADB)

ADB의 베트남 지원액은 2002년에 전년대비 30%가 증가되어 베트남 내 수원순위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베트남 총 지원액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ADB는 1995년 이후 금융, 보건, 교육분야 지원을 통한 HRD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하였으며 산림, 인프라 및 작물다양성 개발을 통한 농촌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2년에는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30% 상승하여 ADB의 주요 지원 분야로 부각되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개혁지원, 기업경영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 20% 이상을 점유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주요 지원분야로 파악되고 있다.

10. 국제통화기금(IMF)

IMF의 지원규모는 2002년 56백만 달러로 작년대비 50%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 지원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IMF의 ODA는 예산지원을 통한 경제관리 및 개혁프로그램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Quick disbursement credit으로 분류된다.

11. UN 산하기관

2002년도 유엔 관련기관의 지원액은 2001년 42백만 달러에 비해 축소된 37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실적

을 보였다. UNICEF가 8.8백만 달러를 지원 UN 기관 중 가장 많은 지원실적을 기록했으며 UNDP 및 UNDP 관련재원을 통한 지원이 7백만 달러, WHO는 6.6백만 달러 지원실적을 나타냈다.

IFAD는 UN 차관 지원액 중 25%를 지원, 가장 높은 차관 지원실적을 보였는데, 주로 벽지지역에 대한 차관공여에 집중되었다. UN 관련 기관들의 지원은 대부분 정책지원분야, 지역개발, 사회개발 및 보건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 NGO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해외 NGO와의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왔는데, 2001년에는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 총 26개국으로부터 485개의 NGO와 협력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중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NGO는 369개 단체이다.

베트남에 대한 국제 NGO의 지원규모도 1991년 20.3백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80백만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며 동 NGO들은 베트남 정부 허가 하에 중앙정부, 각 성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NGO들의 주요 협력분야는 주로 빈곤 퇴치,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 및 직업훈련,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자연재해 방지 및 복구, 전쟁후유증 극복, 농촌 소규모 인프라 개발 등이다.

우리나라 ODA 사업 현황

1. 연수생초청사업

연수생초청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참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KOICA의 중추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연수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전이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범지구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및 여성개발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 전문가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1개월 내지 1년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재외 공관을 통해 전문가 파견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장·단기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동안 필요한 체재비 등 제반 경비를 KOICA가 부담한다. 동 사업은 개도국 내 관련분야의 많은 인사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단기간내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개도국 정부들로부터 파견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생폴병원에 1명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액은 총 376.5천 달러

〈부표 II-1〉 연수생초청사업	
연 도	지 원 내 역
'91년	잠업2, 간척지이용2, TV프로그램제작 1, 행정능력개발 1 총 4과정 6명(20.8천 달러)
'92년	행정능력개발 2, 자동차정비 2, 전자제품수리 2, 잠업 2, 중소기업육성 1, 국토개발 1, 직업훈련 2, 한국어 2, 국가표준 1, 건설기술자 2, 식품발효 1, 가족계획 2, TV프로그램제작 1, 비파괴검사 1 총 14과정 22명(100.2천 달러)
'93년	미국생산 1, 시장경제 1, 수출진흥 1, 국가표준 1, 베트남직업훈련교사양성 24, 작물생산 2, 가족계획 2, 잠업 1, 행정능력 2, 광물자원 1, 거시경제 2, 기초직업훈련 1, 산업재산권 1, 국토개발 1, 한국어 2, 비파괴검사 1, 정보관리 2 총 17과정 46명(334.7천 달러)
'94년	수출진흥 1, 한국어 1, 미국생산 1, 작물생산 1, 가족계획 2, 비파괴검사 1, 산업재산 1, 광물탐사 1, 행정능력 1, 경제기획 1, 축산 2, 수산양식 2, 중소기업 1, 가공식품 2, 환경보호 1, 과학기술 2, 국가표준제도 1, 직업훈련 40, 어로 1 총 19과정 63명(294.5천 달러)
'95년	베트남 직업훈련 30, 컬러 TV 3, 한국어 2, 가족계획(UNFPA) 2, 베트남 공무원 20, 세관 4, 경제기획 2, 과학기술정책(UNDP) 2, 베트남 경제 10, 중소기업육성 2, 환경관리(싱가폴3국연수) 2, 환경기술보호 1, 송배전 3, 에너지관리 2, 원자력(AEA) 2, 가공식품(UNDP) 2, 광물자원탐사 2, 수출진흥 2, 수출진흥(싱가폴3국연수) 2 총 19과정 95명(452.8천 달러)
'96년	가공식품 품질관리 1, 가족계획과 지역사회개발(UNFPA) 2, 가족계획과 보건 사후관리 Workshop 2, 결핵퇴치 2, 과학기술정책(UN에) 2, 농촌개발과 농협경영 2, 베트남 경제정책관리 10, 베트남 공무원 20, 베트남 직업훈련항상 30, 산림경영 1, 세관 3, 송배전 3, 수출진흥 전략 2, 수출진흥전략(한·싱가폴 공동연수) 2, 어로·수산양식 2, 에너지효율관리 3, 여성과 보건 1, 원자력(AEA) 3, 자동차기술 2, 축산기술 2, 컬러TV 구조 및 수리 3, 토목 및 건축기술 3, 한국어교육 1, 행정발전계획 3, 환경관리(한·싱가폴공동연수) 2 총 25과정 107명(587.5천 달러)
'97년	가족계획과 보건(UNFPA) 1, WTO/UR협정이행 2차(WTO) 1, 거시경제정책관리(한·싱가폴공동연수) 4, 결핵퇴치 2, 과학기술정책 2, 관개(한·이스라엘공동연수) 8,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3, 광물자원탐사 2, 국가표준제도 2, 농산물유통 3, 미국생산기술 2, 베트남 경제정책관리 20, 베트남 공무원 20, 베트남 국회도서관관리 2, 베트남 정보화기술 20, 산업재산권 2, 에너지 효율관리 2, 여성과 보건 2, 원자력(AEA) 1, 작물생산기술 1, 전력기술 2, 정보기술관리(한·싱가폴공동연수) 1, 축산기술 2, 한국경제개발연구(장기) 1, 한국어교육(장기) 1, 한국어교육 1, 해양환경보전(IOC) 2, 환경보호기술 2 총 28과정 112명(370.2천 달러)
'98년	21세기파트너십(ASEAN) 3, 가족계획 2, 기상예보 1, 농업금융 2, 메콩강지역 직훈 2, 범죄방지형사사법 1, 베트남 APEC실무 20, 산업재산권 1, 중소기업(2차) 2,한·베우정병원 후속 8, 한·싱거시경제 4, 한·싱통신정책 3, 한·싱관광진흥 2, 한·싱정보기술 4, 한·이관개개발 8, 한국경제개발(장기) 2, 해운항만 2, AARRO 새마을운동 1, APEC 직업훈련 5, IAEA원자력 1, IOC 해양환경 2, WTO 4 총 22과정 80명(260.9천 달러)
'99년	21세기파트너십(아세안 1차) 3, 21세기파트너십(아세안 2차) 3,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1차 3,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2차 2, 과학기술정책(아세안) 3,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2, 국제통상 및 WTO협정 5, 기상예보 2, 농업금융 2, 농업정책 2, 미국생산기술 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2, 베트남 새마을운동 11, 보건 및 사회복지정책 2, 사후관리(행정발전계획) 3, 산림관리 3, 산업재산권제도 2, 새마을운동 5, 생식보건과 가족계획 2, 수출진흥전략 3, 어로기술 2, 에너지 효율관리 1, 원자력발전(AEA) 3,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3, 중소기업육성 2, 지역개발정책 2,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 4, 한·이관개기술및영농지도 7, 한국경제장기 2차 1, 한국어 2차 4, 한·싱관광진흥 2, 한·싱통신정책(제3국) 3, 한·싱항만운영(제3국) 2, 해양오염방제 3, 해양환경보전 1, 행정발전계획 2차 3, 환경보호기술 2, 환경시설관리 2 총 38과정 109명(383.8천 달러)
2000년	가공식품 품질관리 1,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1, 결핵대책 2,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1, 산업개발정책 2, 과학기술정책 1, 관세행정1,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1, 국가표준제도 2, 국가행정 2, 국제무역 및 WTO행정 2, 기상예보 2, 농업정책 2, 농협경영 및 농업금융 1,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 보건의료정책 2, 산업디자인 1, 산업재산권제도 1, 수자원관리 2,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1, 연구개발관리 1, 예산제도 및 예산운영 2, 의약품안전 2, 인적자원개발과 경제개발 1, 자동차정비 2, 작물생산기술 1, 잠업기술(사후관리) 2, 전력기술 2, 정보기술관리 2, 조세제도 및 행정 2, 철도운영 1, 한일 경제개발과 시장경제 2, 해양오염방제 2, 환경보호기술 1, 환경시설관리 2, 건축설계 2, 기술교육기법 3, 농촌개발 3, 무역투자정책 2, 미국생산 3, 베트남새마을운동 20, 산업설비 4, 생산기계 4, 전기전자 4, 전자상거래와 무역실무 3, 정보처리 5, 정보통신기기운용 2, 정보통신망구축 2, 중소기업육성 3, 지방자치행정 4, 축산 2, 파트너십(경제) 3, 파트너십(교육)3, 파트너십(외교) 3, 한국경제장기 4, 한국어 7, 행정발전계획 2, 베트남 대외관계위 시찰단 7 총 69과정 181명(850.1천 달러)
2001년	관세기법 2, 국제통상 및 WTO 협정 1차(APEC) 4, 국제통상 및 WTO 협정 2차(APEC) 4,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 2, 베트남 재무공무원 재정 및 예산제도 12, 산업개발정책과 산업구조조정 2, 아시아 경제개발정책 2, 예산제도 및 재정운용 2, 아세안 e-business와

연 도	지 원 내 역
	무역투자정책 3, 한일경제개발과 시장경제 2, 아세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2, 아세안 무역진흥과 인터넷무역 3, 과학기술정책 2,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2, 관광개발전략 1,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사후관리 1, 교통정책 2, 데이터 통신기술 3, 벼생산기술이전(IRRI) 2, 보건의료정책개발 1, 산림관리 3,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 수자원관리 4, 식품생명공학 2, 신도시계획 및 도시장비 1, 연구개발기획평가 1,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AEA) 1, 의약품안전 1, 작물생산기술사후관리 1, 정보화시대의 산업디자인 3, 중기업환경경영기법 4, 지식재산권제도 1,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 5, 창립10주년기념 연수생대표 초청 워크샵 1, 첨단기상기술예보 2, 컴퓨터응용기술(APSDEF) 2, 한·싱 네트워크 행정 및 관리 5, 한·싱 수처리시설 관리 3, 한·싱위성항행시스템 2, 한·싱컴퓨터 및 IT 기초 5, 한·이 작물관개기술 3, 한·일 호소수질관리(일측선발) 1, 한국경제장기(ASEAN 20, 일반 10) 4, 한의학교육 1, 해상교통관제 2, 해양환경보전(APEC) 2, 해운항만정책 2, 행정정보화관리 1, 아세안 가족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 2, 아세안 교류행정제도 2, 아세안 국가표준제도 3, 아세안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4, 아세안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3, 아세안 미국생산 3, 아세안 베트남 공무원 파트너십 20, 아세안 베트남 한국담당관 20, 아세안 자동화제어기술 4, 아세안 중소기업육성 4, 아세안 지식재산권제도 3, 아세안 직훈 1차(전자,CNC) 4, 아세안 직훈 2차(CAD,CAM,자동차) 4, 아세안 직훈 3차(인터넷 네트워크,웹디자인) 4, 아세안 청소년 파트너십 3, 아세안 컴퓨터 응용기술 3, 아세안 파트너십 1차 3, 아세안 파트너십 2차 4, 아세안 한국어교육 5, 아세안 CDMA 기술 2, 아세안 CDMA 기술관리자 3, 총 69과정 221명(758.3천 달러)
계	총 1,042명(4,413.7천 달러)

〈부표 II-2〉 전문가파견사업 단위:백만 원(천 달러)			
연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3년	3분야 3명	27.3(33.8)	관광 1명 (93.10.30~94.1.24) 경제개발계획 1명 (93.12.5~93.12.14) 경영 1명 (93.12.2~93.12.31)
'94년	3분야 4명	20.7(25.8)	경영 1명 (94.5.1~94.5.6) 경제개발계획 2명 (94.1.5~94.1.14, 94.8.5~94.8.26) 공공행정 1명 (94.6.24~94.7.23)
'95년	4분야 4명	27.7(36.0)	농촌개발 1명 (95.8.4~95.9.2) 한국어 1명 (95.1.20~95.2.25) 도시개발 1명 (95.2.27~95.3.3) 시장경제 1명 (95.7.25~95.8.25)
'96년	3분야 6명	24.4(30.4)	마케팅 1명 (96.9.22~96.9.27) 무역금융 1명 (96.8.18~96.8.25) 공공행정 4명 (96.6.16~96.7.1)
'97년	2분야 2명	19.0(20.0)	산업개발 1명 (97.9.12~97.10.24) 잠종개발 1명 (97.12.16~97.12.23)
'98년	1분야 1명	13.5(9.7)	농산물시장 1명 (98.8.20~98.10.19)
'99년	2분야 2명	36.2(30.4)	광물자원탐사 1명 (99.9.15~00.3.13) 새마을운동 1명 (99.9.27~99.10.6)
'00년	3분야 3명	47.3(41.8)	건축공학 1명 (00.12.28~01.1.22) 임업 1명 (00.8.1~00.10.8) 새마을운동 1명 (00.6.29~9.28)
'01년	3분야 3명	97.9(75.9)	도시계획 1명 (01.12.11~02.6.10) 건축공학 1명 (01.8.28~02.9.17) 직업훈련 1명 (01.8.24~02.2.23)
계	28명	314(303.6)	

자료: KOICA 내부자료

이었고, 아울러 199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권도 사범 1인(1999년에는 2인)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1년의 경우 지원액이 44.1천 달러이었다.

3. 봉사단파견사업

봉사단파견사업은 개도국들과의 상호협력 정신과 순수한 봉사이념을 바탕으로 파견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책임과 협력의 영역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파견실적을 보면 봉사단원이 총 65명, 그리고 협력요원이 35명, 협력의사가 2명이었다. 자세한 통계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해외봉사단 외에 국제협력요원이 있는데 이 제도는 해외봉사단과 거의 동일하나 그 대상이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 제도는 선발된 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모두 마친 후에는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부표 II-3〉 협력요원파견			
연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5년	2분야 4명(신규 4)	36.0(46.8)	〈1기〉 한국어3, 태권도1
'96년	4분야 10명(신규 6)	89.8(111.6)	〈1기〉 한국어3, 태권도1 〈2기〉 한국어3, 컴퓨터2, 체육교육1
'97년	4분야 14명(신규 4)	125.8(132.3)	〈1기〉 한국어3, 태권도1 〈2기〉 한국어3, 컴퓨터2, 체육교육1 〈3기〉 한국어3, 태권도1
'98년	4분야 17명(신규 4)	260.6(186.3)	〈1기〉 한국어3 〈2기〉 한국어3, 컴퓨터2, 체육교육1 〈3기〉 한국어3, 태권도1 〈4기〉 한국어2, 컴퓨터1, 태권도1
'99년	3분야 11명(신규 3)	107.5(90.4)	〈3기〉 한국어3, 태권도1 〈4기〉 한국어2, 컴퓨터1, 태권도1 〈5기〉 한국어1, 컴퓨터1, 태권도1
2000년	5분야 12명(신규 5)	171.1(151.3)	〈4기〉 한국어2, 컴퓨터1, 태권도1 〈5기〉 한국어1, 컴퓨터1, 태권도1 〈6기〉 한국어1, 컴퓨터1, 태권도1, 체육교육1, 기계1
2001년	5분야 8명(신규없음)	161(124.8)	〈5기〉 한국어1, 컴퓨터1, 태권도1 〈6기〉 한국어1, 컴퓨터1, 태권도1, 체육교육1, 기계1
계	26명	951.9(843.3)	

자료: KOICA 내부자료

〈부표 II-4〉 봉사단 파견			
연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4년	2분야 4명(신규 4)	56.2(69.9)	〈5기〉 한국어2, 태권도2
'95년	3분야 12명(신규 8)	165.8(215.0)	〈5기〉 한국어2, 태권도2 〈6기〉 한국어5, 태권도2, 컴퓨터1
'96년	5분야 14명(신규 5)	213.4(265.2)	〈5기〉 한국어1, 태권도1 〈6기〉 한국어4, 태권도2, 컴퓨터1 〈7기〉 한국어2, 체육교육2, 간호1
'97년	5분야 17명(신규 5)	283.9(298.5)	〈6기〉 한국어4, 태권도2, 컴퓨터1 〈7기〉 한국어2, 체육교육2, 간호1 〈8기〉 한국어5
'98년	4분야 13명(신규 4)	195.2(139.6)	〈7기〉 한국어2, 체육교육2, 간호1 〈8기〉 한국어4 〈9기〉 한국어2, 태권도1, 간호1
'99년	5분야 14명(신규 6)	303.6(255.2)	〈8기〉 한국어4 〈9기〉 한국어2, 태권도1, 간호1 〈10기〉 한국어4, 컴퓨터1, 축산1
2000년	5분야 17명(신규 6)	369.3(326.6)	〈8기〉 한국어1 〈9기〉 한국어2, 태권도1, 간호1 〈10기〉 한국어4, 컴퓨터1, 축산1 〈11기〉 한국어5, 간호1
2001년	6분야 21명(신규 10)	377.6(292.5)	〈10기〉 한국어4, 축산1 〈11기〉 한국어5, 간호1 〈12기〉 한국어6, 컴퓨터1, 지역개발2, 원예1
계	총 48명(신규기준)	1,965.0(1,862.5)	

자료: KOICA 내부자료

〈부표 II-5〉 협력의사파견			
연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9년	1분야 1명	34.3(28.9)	〈5기〉 내과/99.4.19~02.4.18/독포지역병원
2000년	2분야 2명	24.3(21.5)	〈5기〉 내과/99.4.19~02.4.18/독포지역병원
2001년	1분야 2명	113.2(87.7)	〈5기〉 내과/99.4.19~02.4.18/독포지역병원 〈7기〉 내과/01.4.23~04.4.22/한-베우정병원
계	2명	171.8(138.0)	

자료: KOICA 내부자료

4. 개발조사 사업

개발조사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주는 기술 또는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EDCF와의 연계추진 및 우리 기업 진출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업체가 개발도상국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내에서 분석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개발조사사업의 대상 분야는 지역 개발 및 도시개발, 도로·공항 및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

시설, 그리고 농림·수산, 자원·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총 6건이 실시된 바 있는데 현재 4건이 종료되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N-18번 도로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1993~1996)’은 기존 4급도로를 3급도로(9-12m)로 확장 및 개량하기 위해 타당성을 조사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8.2천 달러가 투입 되었으며 EDCF 자금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물자원 조사(1992-1994)’의 실시로 향후 자원개발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하노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1999~2001/1,000천 달러)’는 기존 하노이 신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후, 개

발예정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하노이 신도시개발 참여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협력사업 (1993~1996/963천 달러)’은 베트남 중부 안케지역 광물부존가능성 및 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지질자료를 확보하였다. 총사업비는 942천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담당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였다.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 개발 타당성조사(2001~2002/1,000천 달러)’는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표준주택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업체의 현지주택 및 건설부문 진출기반을 조성하였다. 총사업비는 417.3천 달러이었고, 대우건설주식회사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예방 및 퇴치백신 연구사업(2002~2006/1,250천 달러)’ 등이 있다.

근 2003년까지 사무기기(복사기 등), 무선전화기 20대, 승용차(체어맨 5대, 레간자5대), 콘돔 504,000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1,090천 달러 상당의 물자 및 현금이 지원되었다. 동 사업은 단독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및 전문가 등 파견인력 활동과 연계추진시 사업효과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6. 프로젝트형사업

프로젝트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지원 등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년~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 수단이다.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물적·인적자원을 수원국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원국측은 부지, 현지비용, 현지인력 등을 부담하며 KOICA는 물적·기술적·인적 협력수단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형태는 첫째, 건물이나 시설의 건축을 위주로 하는 시설물 지원사업 둘째, 시설물의 건축은 수원국이 제공하고 협력단은 물자지원 및 인적 협력수단을 제공하는 역할분담형 셋째, 협력단이 시설지원과 물자지원 및 기술적 협력수단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지원 형태로 분류된다. 사업분야는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으로 다

5. 물자지원사업

물자지원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상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증여의 형태로 물자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자 지원사업에는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원국의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하거나 인간기본욕구(BHN : Basic Human Needs)의 충족에 필요한 물자 또는 천재지변, 질병 등의 재난시 구호금 및 구호품 지원이 포함된다.

물자지원사업은 무상원조가 시작된 1992부터 최

〈부표 II-6〉 개발조사사업												단위:백만 원(천 달러)
사 업 명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4건 2,959.8 (2,964.6)	- - -	- 16.4 (20.9)	2건 356.1 (440.7)	2건 471.4 (586.5)	1건 261.8 (339.6)	1건 118.9 (147.8)	- - -	- - -	1건 643.0 (540.6)	1건 387.2 (342.5)	2건 704.9 (546.1)
자원개발 사전조사	763.4 (962.9)	- -	16.4 (20.9)	162.8 (201.4)	203.5 (253.2)	261.8 (339.6)	118.9 (147.8)	- -	- -	- -	- -	- -
N-18 국도개량 타당성조사	449.6 (558.2)	- -	- -	193.3 (239.3)	256.3 (318.9)	- -	- -	- -	- -	- -	- -	- -
전력손실감소 타당성조사	11.6 (14.4)	- -	- -	- -	11.6 (14.4)	- -	- -	- -	- -	- -	- -	- -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	1,180.3 (999.4)	- -	- -	- -	- -	- -	- -	- -	- -	643.0 (540.6)	387.2 (342.5)	150.1 (116.3)
하노이 주거단지 타당성조사	538.7 (417.3)	- -	- -	- -	- -	- -	- -	- -	- -	- -	- -	538.7 (417.3)
제철소 건립 타당성조사	16.1 (12.5)	- -	- -	- -	- -	- -	- -	- -	- -	- -	- -	16.1 (12.5)

*전력손실감소타당성조사 및 제철소건립타당성조사는 사전조사만 실시하고, 본 조서는 미실시
자료: KOICA 내부자료

양하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교육훈련, 보건·적자원개발, 제도 구축 등 베트남의 개발계획에 가장
료 및 IT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시적 사업효과를 거양할
베트남은 프로젝트 사업 중점 추진 대상국으로서 수 있는 사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총 25건의 프로젝트를 추진 지원은 다음 표와 같다.
하였는데, 프로젝트 사업은 베트남의 빈곤퇴치 및 인

〈부표 II-7〉 프로젝트 단위: 백만 원(천 달러)									
사 업 명	계	94	95	96	97	98	99	00	01
계	4건 20,834.6 (19,058.6)	3건 1,015.1 (1,263.2)	8건 1,514.5 (1,964.1)	9건 1,587.4 (1,972.4)	8건 1,313.6 (1,381.1)	7건 3,029.0 (2,165.3)	8건 5,472.3 (4,600.5)	4건 3,318.9 (2,935.6)	7건 3,584.0 (2,776.5)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1,847 (1,982.6)	300 (373.4)	317.2 (411.4)	342.5 (425.6)	392.0 (412.1)	459.3 (328.3)	- -	36 (31.8)	- -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1,872.2 (2,012.2)	300 (373.4)	317.2 (411.4)	352.8 (438.4)	405.9 (426.8)	452.4 (323.4)	2.4 (2.0)	41.5 (36.8)	- -
경제연구소 지원사업	416.2 (517.9)	415 (516.4)	1.2 (1.5)	- -	- -	- -	- -	- -	- -
박빈병원 건축사업	402.5 (514.6)	- -	361 (468.1)	29.1 (36.1)	- -	- -	12.4 (10.4)	- -	- -
홍케병원 건축사업	409.1 (505.5)	- -	121.2 (157.2)	264.5 (328.6)	- -	- -	23.4 (19.7)	- -	- -
호치민 열대병 센터 지원사업	353.7 (443.9)	- -	81 (105.1)	272.7 (338.8)	- -	- -	- -	- -	- -
코리아클리닉 지원사업	160.8 (207.2)	- -	137.6 (178.4)	22.8 (28.4)	0.4 (0.4)	- -	- -	- -	- -
네안성학교 지원사업	193.3 (249.7)	- -	178.1 (231.0)	14.0 (17.4)	1.2 (1.3)	- -	- -	- -	- -
빈당성 학교 건축사업	219.2 (253.9)	- -	- -	137.2 (170.5)	73.9 (77.7)	8.1 (5.7)	- -	- -	- -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사업	629.1 (662.9)	- -	- -	151.8 (188.6)	395.4 (415.7)	81.9 (58.6)	- -	- -	- -
전기전자안전	1,737.4 (1,433.3)	- -	- -	- -	6.3 (6.6)	227.6 (162.7)	1,503.5 (1,264.0)	- -	- -
득포병원 건립사업	557.5 (400.6)	- -	- -	- -	5.0 (5.3)	550.4 (393.5)	2.1 (1.8)	- -	- -

사 업 명	계	94	95	96	97	98	99	00	01
한·베 과학기술협력센터 지원사업	2,901.4 (2,417.1)	- -	- -	- -	24.3 (25.5)	387.6 (277.1)	1,364.0 (1,146.7)	873.4 (772.5)	252.1 (195.3)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	5,935 (4,938.4)	- -	- -	- -	9.2 (9.7)	861.7 (616.0)	2,242.0 (1,884.8)	2,200.0 (1,945.9)	622.1 (482.0)
한·베 우정병원 2차	166.2 (141.5)	- -	- -	- -	- -	- -	123.4 (103.7)	42.8 (37.8)	- -
증권거래소 2차사업	247.7 (213.6)	- -	- -	- -	- -	- -	127.8 (107.5)	119.9 (106.1)	- -
강화성 태권도장 개보수	75.5 (63.6)	- -	- -	- -	- -	- -	71.3 (59.9)	4.2 (3.7)	- -
중부지역 초등학교 지원사업	1,845.1 (1,429.5)	- -	- -	- -	- -	- -	- -	1.1 (1.0)	1,844.0 (1,428.5)
증권거래소 3차사업	95.7 (74.1)	- -	- -	- -	- -	- -	- -	- -	95.7 (74.1)
빈옌병원 개선사업	205.4 (159.1)	- -	- -	- -	- -	- -	- -	- -	205.4 (159.1)
빈록지방병원 개선사업	375.3 (290.8)	- -	- -	- -	- -	- -	- -	- -	375.3 (290.8)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189.3 (146.7)	- -	- -	- -	- -	- -	- -	- -	189.3 (146.7)

자료: KOICA 내부자료

7. NGO지원사업

국내 민간원조단체(NGO) 지원사업은 개도국의 민
간부문 특히 사회저변층(Grass roots)에 대해 직접적
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정부차원의 공적원조사업을 보
완할 수 있으며 국민의식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발원조사업이다. 또한 개도국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건, 교육, 식수, 주택개량
등 인간의 기본생활욕구(BHN : Basic Human
Needs) 분야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민간단체를 통한 원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국
제적인 추세이다.

〈부표 II-8〉 NGO지원사업				단위:백만 원(천 달러)
연도	지원액	단 체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95년	157.0 (203.6)	경제정의연구소 25.4(33.0)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사업 －베트남 하타이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신용협동조합을 통한 농가 금융지원, 직업훈련사업) 반다오 마을 농촌개발사업	
		한국선명회 30.5(39.6)	하이후 탕롱지역 개발사업 －하이후 탕롱마을 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교육, 의료환경 개선	
		한국이웃사랑회 40.7(52.8)	찐마리, 다카지역 개발사업 －낙후 농촌지역에서의 농업기술전수를 통한 지도자 양성, 다카 빈민촌 아동및 문맹자들에 대한 교육 －찐마리(4,781명 농촌지도자육성과정에 참석, 환자진료 7,265명), 다카(빈곤아동 292명 교육, 봉제기술학교 1,196명 교육)	
		한·베트남 청소년문화 교류후원회 19.6(25.4)	한·베트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베트남 전쟁고아 100만(한인2세포함)에 대한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직업훈련원내 한국어과 설립지원	
		한국복지재단 20.4(26.4)	불우아동지원 및 언청리아동 수술지원사업 －언청이 아동수술(100명), 나환자자녀 및 빈곤가정 아동의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대한약안면 성형재건 외과학회 20.4(26.4)	의료봉사사업 －월남전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송베성 지역의 언청이 무료수술, 수술관련 기자재 지원	
'96년	104.2 (129.7)	정해복지회 20.0(24.9)	베트남 정해기술학교 건립사업 －호치민거주 한인2세와 베트남 청소년 기술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원 건립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 20.0(24.9)	베트남 송베성 의료봉사사업 －언청이환자 무료수술, 의약품및 의료기자재 지원	
		한국복지재단 20.0(24.9)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불우아동 및 언청아동 수술 －인도지나의 불우아동(언청이, 나환자자녀, 빈곤아동)의 수술비 지원, 나환자 자녀교육비 및 생 계비지원	
		한·베트남 청소년문화 교류후원회 19.2(23.9)	한·베트남 직업 훈련원 설립사업 －전쟁고아 및 한인2세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 －교육,훈련용 차량2대, 컴퓨터 55대제공	
		경제정의연구소 25.0(31.1)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사업 －직업훈련원설치, 신용금고 설립,운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97년	132.0 (138.7)	한국복지재단 60.9(64.0)	인도지나 불우아동 및 베트남 언청이 수술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나환자자녀 및 빈곤가정아동의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대한약안면 성형재건 외과학회 20.3(21.4)	베트남 송베성 의료봉사사업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진 토순 및 구개열환자 무료수술, 의료기자재 지원	
		정해복지회 10.2(10.7)	베트남 정해기술학교 건립사업 －기술학교를 설립하여 한인2세와 청소년 기술교육 실시, 대지 6010평, 건물 1310평	
		경제정의연구소 20.3(21.3)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 교육사업, 의료봉사 및 문화교류	

〈부표 II-8〉 NGO지원사업				단위:백만 원(천 달러)
연도	지원액	단 체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한·베트남 청소년문화 교류후원회 20.3(21.3)	한·베트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한·베트남 직업훈련원에 기계공과, 자동차공과, 전자공과 기자재 지원, 통근버스 2대지원	
'98년	61.6 (44.0)	대한치과의사협회 15.4(11.0)	베트남 의료봉사활동 －언청이 환자 수술17명, 의료장비 치과치료대 2개, 수술기법전수	
		경제정의연구소 20.5(14.7)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사업 －직업훈련원건립운영, 직업훈련실시목공	
		한국복지재단 25.7(18.3)	인도지나 불우아동 및 베트남 언청이 수술 －언청리아동 수술비 지원(베트남 304명), 나환자자녀 생계비 지원(베트남 232명, 캄보디아 209명, 라오스 212명), 극빈가정 아동생계비 지원(베트남 284명)	
'99년	97.5 (82.0)	정해복지회 15.4(12.9)	베트남－한국 정해기술학교 운영사업 －기술훈련 및 기자재 지원	
		지구촌나눔운동 20.5(17.3)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사업 －직업훈련원지원, 한국어 및 영어교육, 봉사단 파견	
		한국－베트남 함께가는모임 15.4(12.9)	베트남 의료지원 및 빈곤가정 지원 －의료활동, 직업훈련, 합동결혼식	
		대한치과의사협회 20.5(17.3)	베트남 의료활동지원 －무료수술 및 의술전파, 의료장비지원(치과의자, 방사선 촬영기, 약품 및 장비)	
		한국복지재단 25.7(21.6)	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불우아동지원 －언청이 수술 및 나환자 자녀 지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00년	97.8 (86.5)	대한약안면성형재건 외과학회 20.6(18,2)	베트남 언청이 무료수술 －언청이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수술, 병원의 수술실 지원 및 개선, 장비지원	
		지구촌나눔운동 30.9(27.3)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사업 －직업훈련, 지역개발, 보건의료지원	
		한국복지재단 36.0(31.9)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불우아동지원 사업 －언청이 수술비, 극빈아동 및 아카페병원 지원, 나환자 자녀지원 및 농수로 개발사업	
		한국－베트남 함께가는모임 10.3(9.1)	베트남 의료활동 지원사업 －의료지원, 교육활동 및 고아원 지원	
'01년	139.8 (108.2)	대한치과의사협회 20.6(15,9)	베트남 언청이수술 지원 －무료수술(의료단 파견 6명), 수술기법 전수, 의료장비, 의약품 지원	
		국제개발협회 30.8(23,9)	베트남 하타이 지역개발 －유치원 교실 증축, 교육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	
		지구촌나눔운동 44.2(34,2)	베트남 빈농성 지역개발 －직업훈련교육, 농촌마을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한국복지재단 44.2(34,2)	베트남 불우아동 지원 －교육사업, 보건사업, 농업개발사업	
계	789.9(792.7)			

사회안전망 현황

1997년 7월에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대형 금융 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금융통계는 즉시 조사발표되는 반면에 사회통계는 즉시는 물론, 정기적으로도 조사발표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금융 위기의 사회적 결과를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단시간에 무너졌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파산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일어서게 마련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개인, 가정, 사회가 가난으로 치닫고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같은 적절한 사회적·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개인들이 겪는 참담한 피해를 깨닫지 못한다. 베트남도 이러한 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베트남 경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이

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광범위하거나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금융위기 전부터 다수의 만성적 빈곤계층이 존재했으며, 문헌 및 자료 연구에 의하면 빈곤층 및 빈곤층에 가까운 家口들은 생계와 복지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빈곤선에 근접해 있던 사람들마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여 새로운 빈곤층을 이루게 되었다. 1999년에 수행된 빈곤에 관한 가구조사에 의하면, 더욱 빈곤해진 도시가구들은 기업의 정리해고와 농촌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비숙련노동에 대한 더욱 치열해진 경쟁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빈곤선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 감소는 경제성장과 긴밀하게 관련

되어 있다. 첫째로 영양실조, 면역결핍, 학업 중단과 같은 어려움은 초기의 인간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며, 미래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시켜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연시킬 것이다. 둘째로 베트남이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점차적으로 아시아 지역 및 세계와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베트남이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충격에 노출되는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베트남이 세계화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영향을 완화시켜 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셋째로 성장에 배타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보다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불평등은 과거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여 졌듯이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의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더구나 극심한 소득격차는 지속적인 성장에 해가 되는 대중의 인기를 노리는 거시경제 정책을 유발한다. 임금평등은 대중의 보편적 기본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며 라틴 아메리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집약적 수출의 성장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현재 생활수준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공공정책은 불평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선 주위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비가 약간만 감소해도 현재 빈곤선 수준 바로 위에 위치한 국민들이 빈곤선 아래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베트남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이 개선 및 강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로 분류된다. 사회보장제도의 범주에서는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기타 사회보험 프로그램들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회 부조 범주에서는 선택된 사회보험 이외의 프로그램들이 다루어진다. 사회보증기금, 기아 근절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 빈곤계층을 위한 의료원조(의료카드), 소액대출 프로그램, 농작물보험 프로그램, 노동시장 규제, 그리고 기초사회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1.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

베트남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은 농촌지역 국민들에게 1차적이고 예방적 의료 조치들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 후에도 지속됐으며, 1997년까지 거의 99%의 마을(9,929개 중 9,806개)에서 마을보건소를 갖추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926개의 농촌 지역에서 베트남의 5단계 공공 의료 서비스에서 2번째 단계인 마을 간 종합병원을 갖추고 있었다.

베트남의 공식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자리잡았다. 이는 2개의 별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주로 공무원, 공기업, 대규모 사기업(직원 이 10명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 되는 의무시스템이다. 두 번째 시스템은 선택적이며 학생, 농민, 중소기업 직원, 의무 시스템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포함 하는 의무적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들을 목표로 한다. 학교들이 지역 정부로부터 학생들을 시스템에 등록시키라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선택적 시스템 등록 자의 대다수는 학생들이다.

의무 시스템은 입원 및 외래 의료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며, 입원 치료에서 사용되는 약도 지급된다. 선택 시스템은 2개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입원 서비스만 해당되는 低價의 패키지와 외래 서비스도 포함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약도 역시 지급되는 高價의 패키지이다. 대부분의 선택 등록자들은 低價 패키지를 선택한다.

의무 시스템에 할당되는 금액은 3%의 기본 급여(직원으로부터 1%, 고용주로부터 2%)이다. 선택시스템 등록자들은 매년 10,000동에서 50,000동에 이르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마을 간 종합병원과 그 상위 수준의 의료 기관들은 진료 한 건당 수가의 원칙으로 베트남 건강보험기관(VHIA)에서 비용을 상환받는다. 베트남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현재 12%의 국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 88%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없이 남겨져 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들은 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고 빈곤계층이며, 보험료가 低價이지만 그들에게는 과중하게 비싸서 선택건강보험 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률이 판이하게 다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체제가 시범적으로 최초로 이루어졌던 Hai Phong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38%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메콩강 델타 지역에 있는 Soc Trang에는 3.7%의 주민들만이 보험적용을 받는다.

의무 체제는 대상 인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성공적이다. 1998년까지 의무체제 적용 범위는 자격 대상자 중 77%까지 확장되었다. 의무체제 하에서는 보험 수령자의 가족은 물론이고 배우자 역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의무체제 보험에 든 사람의 가족들은 선택체제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선택 프로그램은 현재 대상 인구의 5% 조금 넘게 보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증대는 선택체제 등록자의 증가, 또는 의무체제의 보험 혜택이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체제의 변화 추진, 이 두 가지의 결합이나 둘 중 하나가 채택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 적용 범위의 잠재적 증대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비농업 분야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10명 혹은 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의무 체제 범위 하에 속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의 산업화, 경제성장,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로 가능해질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의 일반적인 증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체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농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농업분야에서 사람들이 대거 이탈해 나가야 가능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또한,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개개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의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의 증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면 빈곤계층은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빈곤 감소 프로그램도 신뢰할 만한 사회안전망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의무 보험 체제의 등록자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대중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무 건강보험 체제의 등록자들은 주로 공무원, 공기업 혹은 대기업 직원들이며, 대부분은 중산층 도시 거주자들이다.

농촌 인구가 선택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험체제 자체가 1인당 의료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의 평균 1인당 의료비용은 약 27달러이다. 이 금액은 1인당 GDP의 약 7% 미만이며, 비슷한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싸지는 않다. 매년 건강보험 보상의 형태로 지불되는 공공의료 지출액은 1인당 약 6달러이며, 이는 곧 나머지 21달러는 개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최소 1인당 공공의료 지출액인 12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정부는 매년 468백만 달러를 부가적으로 더 예산에 할당해야 한다.

2) 사회보험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현재 사회보험과 사회보증기금 및 원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모성, 질병, 산업 재해와 관련된 단기적 혜택과 노후 연금, 장애인, 유족을 위한 장기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업자 보험은 현재 베트남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보험 수혜 금액은 급여와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고임금 그룹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 보험제도는 노동력의 13.8%에 적용되어 있으며 주로 공무원, 군인, 공기업 및 직원을 10명 이상 보유한 사기업의 직원들을 포함한다. 보험은 공무원과 약 90%의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사기업 분야에서는 적용 범위가 대상 직원의 3분의 1이 안되는 수치를 보인다. 사기업 부문에서의 낮은 적용률은 노동감독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험 혜택이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따라서 실질 급여 수준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담률은 직원 분담 5%, 고용주 분담 15%로 급여의 20%이다.

MOLISA는 일종의 사회복지(사회 보호) 프로그램으로 1만2천 명의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을 운영한다. 이 연금프로그램에 관한 운영 책임은 새로운 베트남 사회보험기구(VSIA)로 전환되고 있다. 신규 기금은 직원들의 분담금을 통한 자체 기금조성으로 설계되었다. 1995년 전에 퇴직한 공무원 연금은 현재 MOLISA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1995년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

들의 연금은 VSIA에 의해 운영된다. 연금 기금에 쓰여지는 금액은 전체 사회복지(사회보호프로그램)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점차적으로 VSIA로 넘어감에 따라 이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빈곤 대상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험 혜택이 임금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 분담액에 비례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은 월급이 노동시장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식 분야의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프로그램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 이론적으로 사회보험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고용인들의 분담액 15% 중 5%는 단기 혜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베트남 노동조합연합이 보유한다. 나머지 10%는 MOLISA가 운영하고 있는 장기 혜택 자금 조성을 위해 재정부(MOF)에 기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에서의 징수가 부족하여 전체 임금 지불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MOF에 실효 분담율로 남게 되었다. 공공 연금의 부족액은 대다수 인구가 사회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전 국민에 부과되는 총체적인 세입에서 보충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정착시키려면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고, 선택체제가 구비되어 현재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다수 인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 부조

1) 사회보증기금

MOLISA는 3종류의 사회보증기금을 운영한다. 첫째는 기본원조(독거노인, 고아, 그리고 빈곤 장애인 대상), 둘째는 재향 군인, 상이군인 대상으로 한 원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재해로 인한 희생자 긴급 원조이다(부표 III-1). 사회보장(건강보험 제외)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총체적인 지출이 1990년 전체 정부 지출액의 12%에서 1997년 약 14%로 증가하였다.

〈부표 III-1〉 사회복지(보호) 프로그램(1997년)

	수혜자 수	사회복지(보호) 사업비용(%)	전체 공공 비용 중 사회복지(보호)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전쟁 참가자	1,400,000	37	
연금 수령자	1,200,000	40	
빈곤층	2,460,000	23	
직업훈련	90,000		
자연재해 희생자	n.a.		
간접 혜택 수혜자	6,000,000		
합계	9,150,000	100	14

자료: UN 및 MOLISA, 1999.

기본 원조를 위한 사회보증기금은 가족의 지원이 없는 고아, 장애인, 정신이상자,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혜자들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뉜다. 즉, 사회원조를 받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 첫 번째 그룹은 매달 24,000동(미화 \$1.60)의 연금을 배당받는다. 이 연금의 지불은 대개 쌀 10~12kg으로 대체된다. 두 번째 그룹은 특수지역 보호센터로 배치될 자격이 있고, 매달 96,000동(미화 \$6.40)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재향 및 상이군인들을 위한 사회보증기금은 ‘국가 자유화 투쟁’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에서 기금이 조성된 이 프로그램은 MOLISA에 의해 운영되고, 약 3백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재향 및 상이군인을 위한 기금, 기본 원조를 위한 사회보증기금, 그리고 자연 재해(밑에서 설명) 대비 임시기금은 중앙정부 지출의 16%를 차지한다. 수혜자는 매달 현금을 받는다. 의료 보험, 장례비용, 학비 면제, 장학금 기회부여, 토지 및 주택 원조, 그리고 생계원조 등과 같은 다른 혜택들도 수혜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다.

수확 전 기아 및 자연재해 대비 임시기금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의 결과와 수확 전 어려움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임시기금은 재난 복구에 필요한 전비용을 부담하지는 못하지만 이 기금을 통하여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한 복구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은 임시기금을 유지하고 있다. 재난 시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1997년에는 3~5백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렸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적용범위를 향상시킬 충분한 여지가 남아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기본 원조 프로그램의 실질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0%의 고아, 21%의 독거노인, 5%의 장애인·재향 및 상이군인을 위한 보증기금 역시 빈곤 계층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전쟁공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수혜자 중 50~70%가 빈곤계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18~26%의 이 부문 자원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이 프로그램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지원금을 수혜자들에게 한 번에 일괄 지급할 것이고, 이후에 수혜자는 혜택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내용은 총체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혜자들이 점차 사망함에 따른 수혜자 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유자금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부문의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개개인 수혜자가 받는 원조를 추적하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현재 수혜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복된 급부를 개인별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책임과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수확 전 기아 및 자연재해 대비 임시 기금으로 이전되면서 위기 시에 기금이 더욱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금의 효과성은 자금 조달 수준이 낮아서 저해되고 있다. 재난 구조에 할당되어 있는 사회 부문 지출의 비율도 매우 작다. 즉, 대략 1%의 절반 정도이다. 재난 구조를 위해 쓰여지는 지출의 비율이 작은 것은, ‘예측 불가능한 필요에 대한 계획의 어려움과 이 부문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공헌하고자 하는 지방 사회의 강력한 공식적 열망’을 반영한다. 또한 이는 기부금단체, 비정부 단체가 베트남의 재난 구조를 위해 총 지출금액 중 많은 부분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회보험 서비스와 보증기금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HEPR, 빈곤층을 위한 의료 원조(의료카드), 소규모 신용, 농작물 보험, 노동 시장 규제, 그리고 기본 사회서비스들이다.

2) 기아 근절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HEPR)

1992년, 몇몇 지방정부들은 총체적인 통합 체제에서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빈곤 감소 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노력은 1996년에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제1차 기아근절 및 빈곤감소(HEPR) 프로그램(1998~2000)이 2년 후에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대부분이 과거에 다른 형태로 존재했던 9개의 프로그램의 통합을 가져왔다.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젝트의 형성과 자금 지급에 대한 주요 책임은 정부의 각 부처가 맡았으며, HEPR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의무는 지방 정부들의 역할이다.

HEPR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1. 기본적인 마을 시설의 향상: 코뮌 센터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초등학교 및 코뮌 진료소의 건설, 안전한 상수도 공급 시스템, 그리고 마을 거래시장(CEMMA).
- 2. 빈곤 가정에게 신용대출 제공(SVB)
- 3. 무료 의료보호(의료카드)의 제공을 통한 빈곤층 의료 서비스 향상(MOH)
- 4. 토지 이용 증가 확보(토지 개간, 저당 잡히거나 이미 팔린 토지 만회를 위한 신용대출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통한 농업 및 농업 외의 생산활동 촉진(MARD)

5. 학비 면제 및 삭감을 통한 빈곤 계층의 교육 기회 증진과 초등학교에서 무료 정책제공, 중등학교 및 상위 마을 학교에서의 장학금 지급(MOET)

6. 빈곤 계층을 위한 생산 및 경영 기술 능력 양성(MARD)

7. 마을 지도자, 공무원, 사회적 노동자, HEPR 스태프의 능력 양성

8. 아직 유랑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1,2백만 명의 정착과 이미 정착한 1,9백만 명의 농업 경작 및 안정화(MARD)

9.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수민족 원조와 사회경제적 발전

총 자금 면에서 빈곤 계층을 위한 시설 개발 및 신용대출 서비스가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이다(부표 III-2).

분리된 프로그램 관리는 효율성을 저해한다. 베트남 발전 보고서 2001은 HEPR의 제도적 구조를 향상하기 위한 3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 1. HEPR 사무실을 관공서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위를 강화하고 HEPR 프로젝트 관리, 정책 개발, 감시 및 훈련을 이에 할당한다.
- 2. HEPR 중앙사무실은 MOLISA(노동복지부)에 유지되, 그 역할을 사회안전망, 재난 관리, 감시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및 가이드라인 이행, HEPR 직원 훈련으로만 제한한다.
- 3. HEPR 활동의 통합 및 관리를 각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정책 설계 및 감시, 평가는 MPI로, 훈련은 MOLISA로 역할을 할당한다.

〈부표 III-2〉 HEPR 재정계획(1998~2000)

	총 계 (베트남 10억 dong)	자금 원천(%)				
		정부예산	자발적 기부	강제노동	통합	국제원조
전체 HEPR	10,124	37	36	6	13	7
1. 시설	3,825	47	3	13	30	7
2. 신용대출	2,700	89				11
3. 건강 · 의료	834	20	71		4	5
4. 홍보사업	200	50	25		8	17
5. 교육	800	23	66		4	7
6. 기술지도	200	75	7		8	10
7. 훈련	100	60	15			25
8. 정착	1,200	88		7	5	
9. 소수민족 원조	262	100				
10. 관리운영	3	100				

자료: Vu, 2000.

HEPR의 대상선정은 MOLISA 책임 하에 있다. 이 과정은 각 지역 빈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MOLISA 공무원들이 있는 지방/마을 차원 정부에 주어진다. 대상 선정은 HEPR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로 보여진다. 전략은 대상 그룹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굶주린 여성, 아동 등과 같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하위 그룹 판별을 포함하여야 한다. HEPR의 지리적 대상 선정도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원조의 90% 이상이 원격지, 고원, 국경 지역에 위치한 가장 빈곤한 1,000개의 마을에 이루어졌다.

HEPR의 어떠한 요소가 성공적이었으며 확대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요소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유효성 분석은 거의 없다. 프로그램은 성과의 비용 대 효과 측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의 프로젝트들은 빈곤 감소를 위한 필수 요소들이

지만 포괄적인 빈곤 전략의 특정한 부분만을 대표한다.

HEPR은 구체적이고 대상이 선정된 빈곤감소 전략으로 보여지지만 성장, 고용 창출, 빈곤 감소를 위한 거시 정책을 다루는 포괄적인 전략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2) 빈곤 계층을 위한 의료원조(의료카드)

건강 악화는 베트남 사람들이 처한 가장 공통적인 위험 중의 하나이다.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은 공공 병원에서 단 1번만 입원하게 돼도, 1년치 비식품 비용의 22%까지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입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큰 병에 한번 걸려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수 년간의 저축을 탕진하고,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개인의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빈곤 계층과 소수약자 그룹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는 잠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보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빈곤 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확보해 주기 위

한 프로그램들을 수립하였다. 1990년도에 빈곤 계층, 장애인, 폐병,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특정 그룹은 의료비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제 조치가 실제로 수행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00년부터는 신규 프로그램인 빈곤 계층을 위한 의료카드 지급이 HEPR의 한 부문으로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VHIA에 의해 운영된다. 28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빈곤 계층 중 4백만 명만이 현재까지 이 카드를 지급 받았다. VHI 회원 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현금 지불 능력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가 끝난 후에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약간의 공식적·비공식적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상담은 표면상으로는 마을 센터에서 무료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재정적 제약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빈곤 계층에게 무료 카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출처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한 대부분

의 빈곤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소인 마을 보건소에서는 VHIA 카드 소지자들의 치료비 면제와 공평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빈곤계층에 의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VHIA가 마을보건소(CHCs)에서 제공된 의료서비스 비용을 상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료 건 당 비용지불 원칙은 행정적으로 성가시기 때문에 VHIA는 필리핀처럼 진료 환자 1인당 비용 지불 원칙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CHCs에 돌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3) 소액대출

베트남에서는 꽤 많은 소액대출이 이용 가능하며, 농촌 개발을 위한 베트남은행 및 기타 정부 조직에서 정부 보조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1990년도에 차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4) 빈민구제를 위한 베트남은행(VBP)

1999년 현재 빈민구제를 위한 베트남은행(VBP)은 1.2백만 명의 빈민가정에 VND 1.9조 이상을 제공하였다. 빈민가정에 지급된 대출은 VND1.5~2백만(미화 \$100~133)에 다다른다. 1995년에 설립된 VBP는 가장 영향을 미치기 힘든 차용자들(빈곤계층 그리고 원격지 거주자들)에게 신용 대출을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VBP는 빈곤계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정부 보조 대출 이자율, 빈곤 계층에 의 명확한 대상선정,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베트남 은행, 외국 대출자들, 정부예산, 저축은행 및 쌍무자금을 포함하는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자금을 동원한다. 평범한 농민들은 대출을 위한 담보가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VBARD에서 제공되는 것 같은 정식 금융 방법을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VBP는 담보요구 없이 극빈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VBP는 VBARD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수령인들은 둘 간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VBP (베트남 여성 조합과 함께)는 HEPR과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정부 보조 대출을 이행한다. 이러한 자금들은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돼 있지만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VBARD 대출은 VBP 대출보다는 비싸지만 비공식 사금융부문 대출보다는 훨씬 싸다.

여러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구조와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자가 싼 대출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용 대출은 그 수가 제한되어 빈민층에게 이용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서 고이자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유용한 사회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현금 저축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대출 이자율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이자율을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5) 국민신용기금

국민신용기금 (PCFs)은 저축 위주의 신용조합형태의 은행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PCFs는 대부분 지역행정구에 위치해 있는 VBARD/VBP와 대조적으로 마을에 위치해 있다. 회원에 대한 은행의 근접성 때문에 회원들이 손쉽게 저축할 수 있고, 그 결과로 PCFs는 회원 저축 유치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PCFs는 베트남국영은행(SBV)에 의해 통제되고, 따라서 준정부 기관으로 취급된다.

PCFs의 상대적인 성공은 그들의 대출 및 저축 이자율이 VBARD/VBP보다 높게 책정된 덕분이다. 높은 저축 이자율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들이 저축하도록 유도하지만 이 자금들은 빈곤 계층에 중점을 두고 대출하지 않고, 따라서 더욱 수익성이 높은 대출 이자율을 유지한다. 또한, 지주 은행과 같이 PCFs는 주식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인한다.

6) 여성조합 신용 프로그램

위에 언급된 2개의 신용 대출 프로그램은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지만 여성조합은 비정부 조직으로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80년대 후반에 여성조합은 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번째 성공적 시범 프로그램은 조합이 프로그램을 확

〈부표 III-3〉 주요 공식 금융기관

기 관	월 대출 이자율(단기)	예금 동원	예금 이자율	자금 원천
농업 및 농촌 개발 은행	1.25% (도시) 1.45% (농촌)	예	단기: 0.4% 3개월: 0.6% 6개월: 0.65% 1년: 0.8%	예금, 채권, SVB, 기타 자금 원천
빈곤층을 위한 은행	1.0% 이하	예	알 수 없음	예금, SBV, VBA, 지방 예산, 외부 기부자
국민신용기금(PCFs)	1.8%	예	1.3%	예금, SVB로부터 대출
대중 조직	광범위하게 변화	가끔	0.8% - 2.2%	정부 예산, 외부 기부자, 기타
기아 근절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	0.5%	아니오	n.a.	지방 예산
고용 창출 프로그램	0.9%	아니오	n.a.	정부 예산
불모지 녹화 프로그램	0.5%	아니오	n.a.	정부 예산

자료: 농업을 위한 베트남 은행, '신용대출에 관한 보고서', 하노이, 1995; Johnson Alan, '베트남의 소액 대출: NGO, UN 사무소, 양자간 기부 경험을 통한 공동 연구', CGAP/UNDP, 하노이, 1996년 5월.

대하도록 하였고, 현재 2백만 명의 가난한 여성들이 VND 60억의 신용 대출을 누리고 있다. 신용 대출은 그라민은행(Grameen bank)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액의 대출(보통 현재 평균 대출액 VND 1~2백만 혹은 미화 \$80~120 미만)이 아무런 소득 없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담보 없이 제공되고 있다. 상호 보조와 저축 그룹의 조직이 장려되기는 하지만 요구사항은 아니다. 초기에는 신용 기금 이용, 부기, 사업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정기 모임이 대출자 사이(한 달에 한 번)에서 조직되기도 하였다. 최초 대출이 성공적으로 사용되면 2번의 대출이 동일인에게 제공되고, 그녀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 이자는 매달 0.7%~1%가 발생한다. 조합의 운영 비용은 전체 대출 금액의 10~20%로 추정된다. 상환률은 현재 98%이다.

기금의 출처는 국제원조,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기금, ‘빈민 구조의 날’ 국내 캠페인으로부터의 기부금, 정부기금(MOLISA 예산, VBARD, BVP), 그리고 축적된 예금으로 이루어진다.

조합은 240명의 직원을 가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산간 지방, 가난한 원격 농촌 지역을 대출 대상으로 하여 마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빈곤 도시 지역에서도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조합은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지만 주요 자금 원천은 정부이고, 조합은 재정적 자율권을 갖고 있지 않다. 조합 및 최종 대출자에 제공되는 국가 보조금은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조합의 경영 효율성이 감독되고 재정적 생존 가능성 및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출 프로그램

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듯 보이지만, 프로그램의 감독과 평가 실행의 부재가 분명하게 관찰된다. 저축 체계의 존재가 훌륭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7) 농작물 보험

1993년 이래로 베트남보험회사(Bao Viet)에 의해 제공되는 농작물 보험은 안전망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위해 3개의 옵션 이용이 가능하다: 세금 납부를 통한 자발적 납부 옵션; 은행 납부(특히 대부분의 농민들이 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메콩 델타 지역); 그리고 보험 대리점을 통한 직접납부이다.

보험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 2000년에 315,200 농가구(3.4%)와 7백만 헥타르의 베트남 농지 중 206,000 헥타르 만이 보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 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5년 넘게 보험의 비용(VND144억)이 수익(VND130.5억)을 초과했다. 부정확한 평가와 Bao Viet와 지방 당국 사이의 불충분한 협력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8) 노동시장 규제

미래의 공업 성장을 예상하고 베트남은 노동 그룹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 분야에서 노동 시장 규제를 확립했다. 최저 임금제, 고용 만료,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아동 및 여성 노동에 대한 통제이다. 최저 임금은 외국 기업과 공기업 및 국내 기업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 부문의 최저 임금은 매우 낮게 책정되

어 시장 임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숙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조차도 최저 임금을 훨씬 웃돈다. 외국 기업에 있어서는 국내 사기업 평균에 비해 최저 임금이 훨씬 높이 책정되어 있다.

1995년 노동법은 ‘기업 구조조정’ 혹은 ‘기술의 변화’의 경우에 해고 시 1년 근무당 한 달 치 임금의 계약 해제 지급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나 사업철수의 경우, 해고시 1년 근무당 반 달 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하는 기업의 대량 해고는 지방 노동조합의 승인을 요한다. 노동조합과의 계약 만료에 관한 분쟁은 복잡한 중재 과정을 요구한다.

여성 및 아동 노동의 통제에 관해서는 베트남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국제 협약을 반영한다. 아동 노동은 1990년대에 빈곤감소와 함께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논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녀, 소수민족 아동, 그리고 이주민 아동은 그들의 발전 요구에 의해 승인된 노동 시간보다 불공평하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9) 기초사회서비스

기본 교육 및 건강과 같은 기초사회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빈곤을 감소시키고, 미래의 가능한 빈곤으로부터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베트남은 1995년 사회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 회의에서 등장한 경제 성장은 사회 진보 및 사회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둔 UN의 20/20 이니셔티브에 서명하였다. 이니셔티브는 기초사회서비스를 위해 사용되

어야 할 정부 지출의 비율 및 ODA 지출을 20%로 책정하였다.

10) 기초보건서비스

1인당 평균 보건의료비, 미화 \$27은 베트남을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을 제치고 의료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게 했으나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는 뒤쳐진다. 현재, 공공 보건의료비는 GDP의 1.3%, 총 공공 지출 중 5.6%를 차지하며, 보건의료비로 총 정부 지출액의 5.9%가 청구된 1990년대 이래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비율의 정부 보건의료비 지출은 특히 1986년 ‘도이 마이’ 정책 수행 이래로 의료 분야에서 민영부문 지출의 증대한 역할을 반영한다. 총 의료 지출의 4분의 3 이상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많은 부분이 민간 시장에서 구입한 서비스로 추정된다. 다행히 기초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할당된 공공보건 부문 지출이 1991년 32%에서 1997년 거의 49%로 증가했다. 기초 서비스는 예방 및 공공보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 보건소, 마을 간 종합병원, 구청병원에서의 서비스도 포함한다.

저소득에서 향상된 공공 보건은 큰 사회적 수익이 있으므로 베트남이 보건의료, 특히 빈곤층을 위한 기초 보건서비스를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초보건서비스를 위해 증가된 공공지출은 반드시 다른 공공분야로부터의 자원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빈곤계층에게 높은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찾는 동시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

로 수행되고, 현재 비용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도록 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이미 의료에 지출된 자금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법은 보건의료비의 약 11%를 차지하는 예방 대책을 위한 자금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대책들은 광범위한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겨

진다. 건강하게 자라기: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 검토에서는 베트남의 보건의료비 구성에 대한 3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본 지출은 총 보건의료 예산에서 꽤 많은 비율(1998년에 거의 21%)을 차지한다. 둘째, 59%가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된 반면에 정기 예산의 39%만이 임금 및 급여에 사용되었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정기 보건의료 예산을 임금 및 급여에 지출하

고, 의료 장비 및 의약품과 같은 소모품에는 거의 지출하지 않는 기타 개발도상국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셋째, 정부 보조금과 빈곤 계층에 양도된 금액(의료비 면제 혹은 무료 의료카드를 통해)이 정기 보건의료 예산의 4%만을 구성한다. 높은 병원 이용료는 빈곤계층과 저임금 그룹의 병원 이용을 감소시킨다.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1인당 보건의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베트남에서는 의약품 판매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빈곤계층 중에서 마을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 내 의약품 판매자를 의료 서비스제공자로 이용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에서의 병원 이용은 최고 임금 5분위(Quintile) 사람들에게 의해 독점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의료 시설에 할당된 정부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약 60%가 비기초서비스에 지출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공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최고 부유층 20%가 3차 의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극빈층은 3차 의료의 2%만을, 구립병원 의료의 5%만을 차지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병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정기 정부보건의료 예산 중 4분의 3 이상이 병원에 쓰여 졌다. 1998년에 전체 병원 방문자 중 약 36%가 상위 부유층이었던 반면에 극빈계층은 8%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의 병원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환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차 진료시설에서

진료받도록 하기 위한 후송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차 진료시설들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직행한다. 이러한 관습을 강력하게 제한할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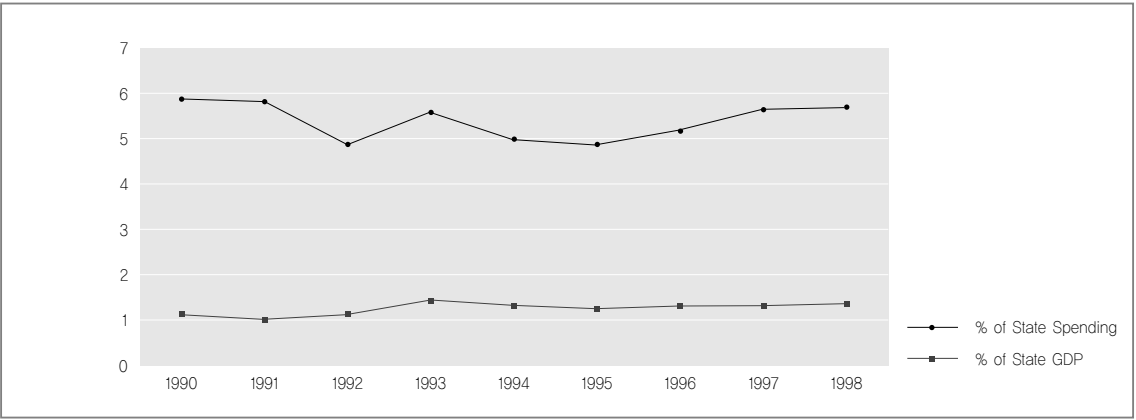
정부는 빈곤계층에 무료 진료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카드를 제공하고, 극빈층에게는 의료비용을 면제해 주는 등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건의료비 전가 및 보조금에 쓰여 지는 정부 예산 4%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기본교육서비스

1990년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총 정부 지출의 12%였다. 1997년까지 교육은 정부 지출의 15%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에 정부 교육 지출액은 이 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점을 반영하여 GDP의 1.6%에서 3.4%로 증가하였다. 기초(초등 및 중등)교육에 할당된 정부 교육 지출액은 1990년 45%에서 1995년 33%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여 1997년에는 35%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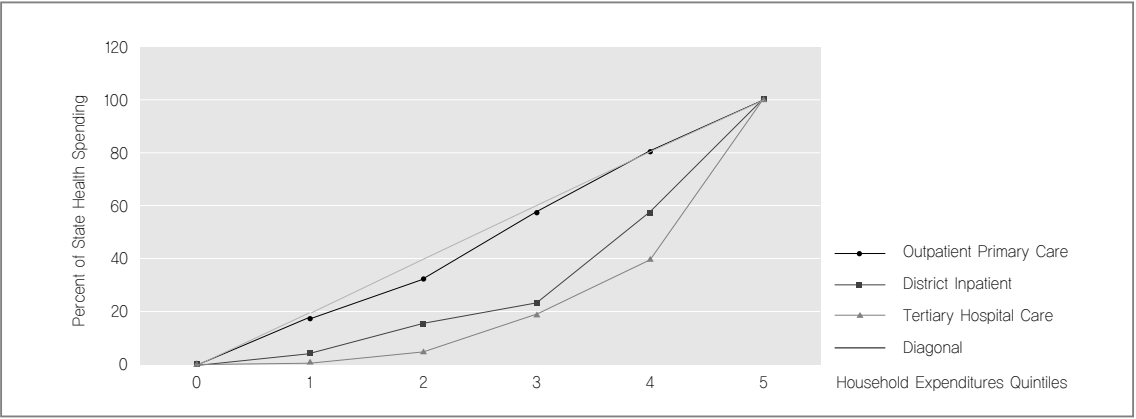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왔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 결과로 문자해독자율은 90%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성장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다. 초등학교 등록은 거의 보편적이며 학업 중단률도 1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유급률도 5% 미만

〈부도 III-1〉 총 정부 지출 및 GDP 중 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UN 및 MOLISA, 1999.

〈부도 III-2〉 사회계층별 정부 의료비용 분포



자료: UN 및 MOLISA, 1999.



개별 원조사업 개요

본 원조사업계획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1년 단위의 사업계획에서 중장기 원조사업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원조사업 계획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하여 각 개별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여 사전과 사후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원조사업계획은 앞으로 3년간 경제성장 촉진, 제도개선/능력개발, 사회개발/빈곤퇴치, 환경/자원 보전/개선 및 특수목적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약 3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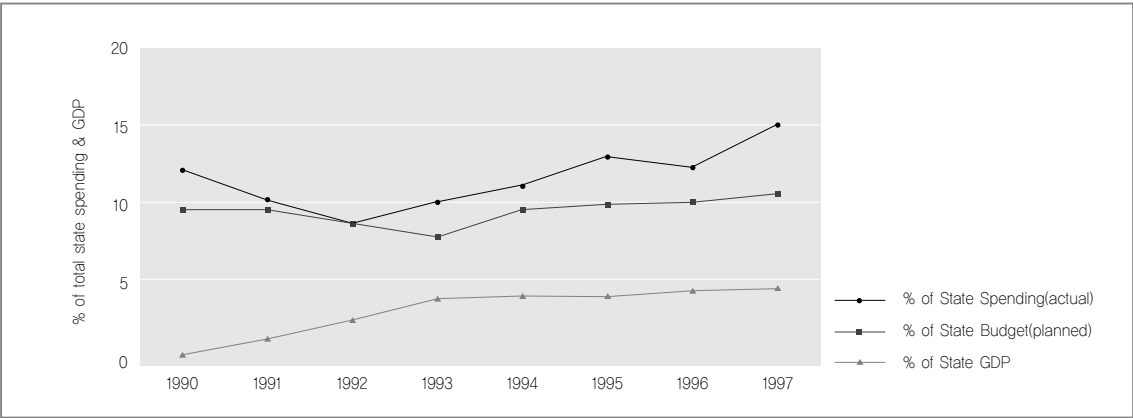
이러한 제안이 원조사업전략과 연계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며, 얼마만한 재원을 요구하며, 언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며, 수원국의 어느 기관이 주된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며, 어떤 위험성을 예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앞으로 프로젝트를 인지하고 준비하는데 첫걸음이 되고 수원국과의 대화의 바탕을 마련하기위하여, 개별 원조사업의 개요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개요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요의 사용자는 문제점과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그 해결방법은 신축적으로 해석하고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는 매년 수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준비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다. 그러나 교육 지표에 있어서 상당한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북쪽 산간, 중앙, 메콩 델타 지역에 있는 빈곤층은 훨씬 더 낮은 교육 지표를 보인다. 기본교육에 대한 지출은 그러나 빈곤가정의 아동 연령분포는 부유가정보다 훨씬 낮아서 빈곤층에서는 초등학교 연령 아동들이 약간 더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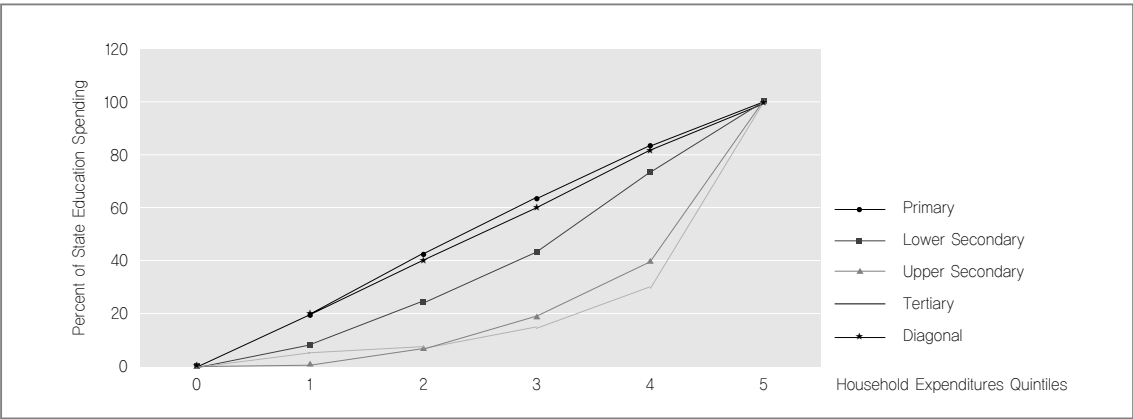
부유층에서는 고등교육 연령 아동들이 약간 더 높은 집중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상위 20% 부유층 인구가 고등교육에서 정부지출의 절반 이상을 향유하여 사실상 부유층이 정부의 고등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절반이나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부도 III-3〉 총 정부 지출 및 GDP 중 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UN 및 MOLISA, 1999.

〈부도 III-4〉 사회계층별 정부 교육 지출 분포



자료: UN 및 MOLISA, 1999.

사업명 [1]공기업개혁 연구조사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X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총리실, 산업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한국의 산자부, KDI, KIET,
한국생산성본부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베트남의 경
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
-공기업은 주식화와 민영화를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지
만 그 진행속도가 느려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주식화된 기업도 경영이 부진하여 적자기업이 많음
- b. 문제의 원인 :
-주식화된 기업이 경영적자를 가지게 되고 구조개혁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공기업개혁은 지지부진함
-공기업개혁의 의지는 있으나 기술적인 준비에 차질이
있고 이러한 차질이 개혁의지에 영향을 미침
-공기업개혁의 좋은 경험과 모델이 부족함
- c. 사업 목적과 내용 :
-기업개혁의 진행상황, 문제점과 애로 등에 관한 연구조
사
-경영진단 및 경영부진에 관한 연구조사
-공기업개혁의 순서 등 개선책 제시

- 대정부 권고안 작성
-추후 계속원조사업의 필요성 판단
-계속원조사업 준비안 제시(예:자문단파견, 베트남 직원
훈련 등)
-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있는 연구조사
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예, 경제전략연
구소)과 공조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2006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사업명 [2]금융산업개혁 연구조사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X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총리실, 재무부, 기획투자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금융연구원, KIET, 은행연합회,
증권거래소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
달이 중요한 관건
-증권시장은 아직도 유치산업의 단계
-은행 등 금융산업은 공기업 전반의 문제점 외에도 국민
대중의 저축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경영도 전근대
적으로 부실함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여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산
업이 개방되면 경쟁력이 취약하여 도산의 위기를 맞을
것임
- b. 문제의 원인 :
-공기업경영이 갖는 공통된 문제점, 즉 공기업개혁의 의
지는 있으나 인적, 물적 비용을 담당할 기술적 준비가
부족하고 추진속도가 느림
-공기업개혁의 좋은 경험과 모델이 부족함
-현대적 금융기업 경영기법 미숙하고 훈련된 인력 부족
- c. 사업 목적과 내용 :
-은행 등 금융기업 개혁의 진행상황, 문제점과 애로등에

- 관한 연구조사
-경영진단 및 경영부진에 관한 연구조사
-금융기업개혁의 순서 등 개선책 제시
-대정부 권고안 작성
-추후 계속원조사업의 필요성 판단
-계속원조사업 준비안 제시(예:자문단파견, 베트남 직원
훈련 등)
-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있는 연구조사
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예, 경제전략연
구소)과 공조함
-공기업의 개혁연구조사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수행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9/2006
- c. 집행 : 2007~2008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X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통상부, 산업부, 경제연구소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KOTRA, KDI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베트남은 세계경제에 개방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나 해외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정보수집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ASEAN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는 뚜렷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WTO에 2005년 말까지 가입하는 교섭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후의 개방에 대비한 해외시장의 개척에 관하여는 크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
- b. 문제의 원인 :
-정부의 통상부와 산업부 이외에는 한국의 KOTRA와 같은 해외시장 조사연구와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을 위한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베트남시장의 개방과 해외경제와의 통합에 대비하여 해외시장의 조사연구와 시장개척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과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함
-개발대상 시장의 우선순위와 개발전략 및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마련함

- 대 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등 기술원조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도 같이 마련됨
-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조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 특히 경제연구소와 공조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6~2007

5.비용과 자원 :

자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X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산업부, 총리실, 내무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한국정통부, 상공회의소, 증권거래소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120,000개의 베트남기업체 중 인터넷에 가입한 기업은 7%에 지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3%에 지나지 않음
-최근 전자상거래교환소를 만들었지만 120개의 외국기업을 포함해서 700개의 기업만이 가입하였음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시급함
- b. 문제의 원인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과 주변환경 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장애요소인지는 불분명함
- c. 사업 목적과 내용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반이 필요하며 어떤 주변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어떤 인력이 개발되어야 하며,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한가를 조사 연구함
-연구결과는 정부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에 정책적 건의를 포함함
-어떤 투자와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하는지와 그 투자를

- 용자지원해줄 기관에 제출할 투자지원청구서를 준비함
-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조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과 공조함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강화사업과 연계가 깊은 만큼 연구조사사업 간에 협조와 조정을 기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6~2007

5.비용과 자원 :

자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상공회의소)	50
Total	550

1. 원조사업의 초점

a. 시작년도 : 2006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 조사연구

c. 주제부문 :
___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d. 활동지역 :
☒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이 개발되어야 하며,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한가등 비용
을 조사 연구함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포함함
-어떤 투자와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하는지와 그 투자를
옹자지원해줄 기관에 제출할 투자지원청구서를 준비함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조사
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과 공조함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강화사업
과 연계가 깊은 만큼 연구조사사업 간에 협조와 조정
을 기함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a. 책임기관 : 총리실, 내무부

b. 담당자 :

c. 참여기관 : 한국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ADB

3. 원조사업내용

a. 문제점 :
-기록보존 사무처리 물자와 서비스 조달 등 행정능률의
저조
-민간인에 대한 봉사능률 저조
-행정부처간의 통신, 상의, 협조 비능률
-사무실과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행정기관의 부정과 부패 만연

b. 문제의 원인 :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중앙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이 분리되고, 행정기관 상
호간의 협의 협조 등 통신의 필요성 강화
-행정기관과 비정부기관간의 협조와 통신필요성 강화
-행정업무분야의 다양성과 복잡화 가속
-행정기술과 사무기기가 전근대적

c. 사업 목적과 내용 :
-행정의 전산화와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
는 순 편익 산정
-행정의 전산화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어떤 기반이
필요하며 어떤 주변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어떤 인력

4. 추진일정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b. KOICA 승인 : 6/2006

c. 집행 : 2006

5.비용과 자원 :

자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1. 원조사업의 초점

a. 시작년도 : 2006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___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___ 조사연구

c. 주제부문 :
___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d. 활동지역 :
☒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관에서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시장경제제도와 최근의
관리기법에 대해 훈련
-훈련 프로그램 및 제도를 확정하기 전에 기존의 신뢰할
만한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예비 테스
트를 실시함
-훈련 담당자들은 한국기관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교육받
게 함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한국인 전문가들과 현직 또는 퇴
직한 고위관료들이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훈련강사로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을 전수함
-성공한 현지의 국내외 민간기업 관리자들을 강사로 초청
-최신 성인 지도/학습 기소재, 가구, 도서, 문서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타 교육자료를 공급함

d. 위험요소 :
-아주 새롭게 외국인이 운영하는 조직의 설립은 문화적
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훈련 관리자나 공무원들에게 정치를 논하는 것을 피함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a. 책임기관 : 계획투자부(MPI)

b. 담당자 : Center for Systems Developmen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와 다른 대학이 컨소
시엄을 만들어서 운영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
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a. 문제점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빈곤축소 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이들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그리
고 병원과 대학을 포함한 교육 및 보건담당 기관과 민
간기업 등에 능력 있는 관리자가 부족하여 개발사업의
준비, 계획과 집행,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b. 문제의 원인 :
-관리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사회주의경제 체제 하에 익
숙해져 있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경험과 훈련이 부
족하기 때문임
-고등교육기관에서 사회과학, 특히 관리(management)
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임

c. 사업 목적과 내용 :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등교육기

4. 추진일정

a. 정부의 신청서 : 2/2006

b. KOICA 승인 : 6/2006

c. 집행 : 2006~2008

5.비용과 자원 :

자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100
c. 기타	
Total	6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 ☒ 투자사업
 - ☐ 기술원조
 - ☐ 자원봉사
 -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 전문가 파견
 -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 사회개발/빈곤해소 :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계획투자부(MPI)
- b. 담당자 : Center for Systems Developmen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와 다른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운영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 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빈곤축소 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이들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그리고 병원과 대학을 포함한 교육 및 보건담당 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능력있는 관리자가 부족하여 개발사업의 준비, 계획과 집행,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b. 문제의 원인 :
 - 관리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사회주의경제 체제 하에 익숙해져 있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임
 - 고등교육기관에서 사회과학, 특히 관리(management)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임

c. 사업 목적과 내용 :

-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시장경제제도와 최근의 관리기법에 대해 훈련
- 훈련 프로그램 및 제도를 확정하기 전에 기존의 신뢰할 만한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예비 테스트를 실시함
- 훈련 담당자들은 한국기관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교육받게 함
-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한국인 전문가들과 현직 또는 퇴직한 고위관료들이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훈련강사로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을 전수함
- 성공한 현지의 국내외 민간기업 관리자들을 강사로 초청
- 최신 성인 지도/학습 기소재, 가구, 도서, 문서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타 교육자료를 공급함

d. 위험요소 :

- 아주 새롭게 외국인이 운영하는 조직의 설립은 문화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훈련 관리자나 공무원들에게 정치를 논하는 것을 피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2/2007
- b. KOICA 승인 : 6/2007
-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100
c. 기타	
Total	6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8
- b. 원조형태 :
 - ☒ 투자사업
 - ☐ 기술원조
 - ☐ 자원봉사
 -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 전문가 파견
 -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 사회개발/빈곤해소 :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계획투자부(MPI)
- b. 담당자 : Center for Systems Developmen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와 다른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운영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 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빈곤축소 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이들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그리고 병원과 대학을 포함한 교육 및 보건담당 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능력 있는 관리자가 부족하여 개발사업의 준비, 계획과 집행,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b. 문제의 원인 :
 - 관리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사회주의경제 체제 하에 익숙해져 있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임
 - 고등교육기관에서 사회과학, 특히 관리(management)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임

c. 사업 목적과 내용 :

-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시장경제제도와 최근의 관리기법에 대해 훈련
- 훈련 프로그램 및 제도를 확정하기 전에 기존의 신뢰할 만한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예비 테스트를 실시함
- 훈련 담당자들은 한국기관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교육받게 함
-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한국인 전문가들과 현직 또는 퇴직한 고위관료들이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훈련강사로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을 전수함
- 성공한 현지의 국내외 민간기업 관리자들을 강사로 초청
- 최신 성인 지도/학습 기소재, 가구, 도서, 문서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타 교육자료를 공급함

d. 위험요소 :

- 아주 새롭게 외국인이 운영하는 조직의 설립은 문화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훈련 관리자나 공무원들에게 정치를 논하는 것을 피함

4.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2/2008
- b. KOICA 승인 : 6/2008
- c. 집행 : 2008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100
c. 기타	
Total	6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X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총라실, 재무부, 계획투자부(MPI)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KDI, 조세연구원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이 중요한 관건
-징세의 효율성 저하
- b. 문제의 원인 :
-현대적 조세행정의 모델과 정책 및 훈련된 인력 부족
- c. 사업 목적과 내용 :
-조세 관세행정의 개혁의 진행상황, 문제점과 애로 등에 관한 연구조사
-대정부 권고안 작성
-추후 계속원조사업의 필요성 판단
-계속원조사업 준비안 제시(예:자문단파견, 베트남 직원 훈련 등)
-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있는 연구조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예:경제전략연구소)과 공조함

-공기업의 개혁연구조사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수행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___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X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총라실, 내무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한국지적협회, 한국토지공사, 대법원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토지사용권증의 발행, 특히 농토의 사용권증의 발행은 토지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당과 은행대부 등 경제활성화와 빈곤퇴치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토지사용권증의 발행은 지연되어서 35%의 도시 지역가구와 60%의 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도시에서는 심각한 주택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b. 문제의 원인 :
-토지의 목적과 등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토지의 사용과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또 집단적 토지사용권에 관하여서는 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음
-토지대장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관리행정의 혼돈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토지의 목적과 등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원

인과 토지사용권증을 조속히 발행하지 못하여 경제성장 과 빈곤퇴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지 못하는 원인을 탐색하여 치유방법을 제시함

-특히 토지대장과 사용권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권고함

-전산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개발에 관한 자료를 인지하고 개발에 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

-정부가 권고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함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조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과 공조한다.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행정개혁과 전자정부강화사업과 연계가 깊은 만큼 연구조사사업 간에 협조와 조정 을 기함
-세계은행의 對필리핀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한 두 차례 의 원조사업을 참조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9/2006
-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	-----

사업명 [11]사회안전망강화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___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X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총리실, 내무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빈곤가정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건강보험은 가족이 피보험자로 보호되지 못하고 오로지 가입자 자신만 피보험자로 가입됨
-사회보험은 단기적인 혜택을 주로 하고 있고(산후, 질병, 작업중 부상 등), 장기적 수혜(연금, 장애, 유족보상 등)는 극히 소수의 국민만 누리고 있음. 단기 수혜 중 실업보험은 존재하지 않음
-빈곤인구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24%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빠져 있음
-홍수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농민이나 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새로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문제를 방지하면 도시와 농촌 간 또 소득계층 간에 빈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빈곤가정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 됨

b. 문제의 원인 :

- 정부의 사회보험이 소수의 국민만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음
-사회부조 프로그램이 빈곤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포괄성이 없어서 빈곤계층이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안전망의 재정이 취약하여 프로그램만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c. 사업 목적과 내용 :

- 사회안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효율성 평가를 통하여 취약점과 강점을 확인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자문함

d. 위험요소 :

- 외국인 전문가만으로는 현재의 상황과 그 효율성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연구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외국 전문가와 정부 내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추진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사업명 [12]재해예방 대처능력향상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___ 투자사업
 X 기술원조
___ 자원봉사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___ 전문가 파견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___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X 사회개발/빈곤해소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___ 전국 : X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총리실, 내무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행정자치부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베트남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태풍이나 홍수의 영향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함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은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이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계층의 주민이 이재민의 대부분을 차지함
-사회보험과 농작물보험이 확립되지 않아서 많은 이재민이 그 피해의 보상을 받지 못함
-국가경제 전체로도 큰 손실임
- b. 문제의 원인 :
-자연재해의 예방에 관한 계획과 사전경보조치가 부족하고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조속한 회복조치에 관한 계획과 훈련이 부족함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재정이 부실함
-사회안전망의 재정이 취약하여 프로그램만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
-정부의 재해예방계획과 교육훈련 경보조치 및 대처활동

- 등에 관한 현재의 상황에 관한 분석과 취약점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함
- d. 위험요소 :
-외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조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기관과 공조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6~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Total	500

사업명 [13]빈곤가정 고교생 장학사업 1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__X__ 투자사업
 __ 기술원조
 __ 자원봉사
 __ 훈련 : __ 해외훈련 : __ 국내훈련
 __ 전문가 파견
 __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__ 경제성장 : __ 환경보존개선
 __X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__ 전국 : __X__ 지역 : 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교육훈련부
- b. 담당자 : 지방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
 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수준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
 하고 있지만 고교교육은 아직도 취학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음
 -2010년에도 고교교육 취학률이 36%라는 낮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상황임. 양호한 학교시설의 부족 이외에 무엇보다도 큰
 장애는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고교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는 것임. 직접 공교육비가 월 평균 US\$30에 달하여 빈
 곤가정의 자녀는 고교교육을 받기 어려움
 -문제를 방지하면 교육에서 빈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장
 래에 성인으로서의 근로소득에도 차이를 가져와서 빈부
 의 격차가 증대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저해함
-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확대와 강화에 집중
 되었고 전문인력양성의 기초가 되는 고교교육의 강화에
 는 중점을 두지 않았음. 따라서 고교교육이 직업인 양성

- 과 사회형평성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과거의 교육프로젝트는 학교건물이나 기자재 등 물질적
 투자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확대 자체에
 는 등한시하였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
 -빈곤가정의 자녀가 고교교육의 기회 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비 자체를 보조함
 -특히 한국이나 다른 원조기관이 학교시설을 새로이 건
 축하거나 확대한 지역의 고교에서 빈곤가정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함
 -한국의 참전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
 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소수의 금액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업
 료등 학비 전액 면제와 부문 면제를 포함한다. 또 한국
 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사업자금이 전액 베트남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전액 한국으로부
 터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무상원조
 가 갖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큼

- d. 위험요소 :
 -직접적으로 학교에 금전적 지원이 행해지므로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의 선발과 자금의
 지원에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함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수
 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對베트남 연간 전체 원조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9/2005
- b. KOICA 승인 : 12/2005
- c. 집행 : 2006

5. 비용과 자원 :

__자원__	비용(US\$'000)
a. KOICA	300
b. 정부	
c. 기타	
Total	300

사업명 [14]빈곤가정 고교생 장학사업 2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__X__ 투자사업
 __ 기술원조
 __ 자원봉사
 __ 훈련 : __ 해외훈련 : __ 국내훈련
 __ 전문가 파견
 __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__ 경제성장 : __ 환경보존개선
 __X__ 사회개발/빈곤해소 :
 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__ 전국 : __X__ 지역 : 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교육훈련부
- b. 담당자 : 지방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
 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수준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
 하고 있지만 고교교육은 아직도 취학률이 30%내외에
 머물고 있음
 -2010년에도 고교교육 취학률이 36%라는 낮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상황임. 양호한 학교시설의 부족 이외에 무엇보다도 큰
 장애는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고교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는 것임. 직접 공교육비가 월 평균 US\$30에 달하여 빈
 곤가정의 자녀는 고교교육을 받기 어려움
 -문제를 방지하면 교육에서 빈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장
 래에 성인으로서의 근로소득에도 차이를 가져와서 빈부
 의 격차가 증대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저해함
-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확대와 강화에 집중
 되었고 전문인력양성의 기초가 되는 고교교육의 강화에
 는 중점을 두지 않았음. 따라서 고교교육이 직업인 양성
 과 사회형평성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거의 교육프로젝트는 학교건물이나 기자재 등 물질적
 투자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확대 자체에
 는 등한시하였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
 -빈곤가정의 자녀가 고교교육의 기회 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비 자체를 보조함
 -특히 한국이나 다른 원조기관이 학교시설을 새로이 건
 축하거나 확대한 지역의 고교에서 빈곤가정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함
 -한국의 참전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
 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소수의 금액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업
 료등 학비 전액 면제와 부문 면제를 포함한다. 또 한국
 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사업자금이 전액 베트남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전액 한국으로부
 터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무상원조
 가 갖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큼
- d. 위험요소 :
 -직접적으로 학교에 금전적 지원이 행해지므로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의 선발과 자금의
 지원에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함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수
 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對베트남 연간 전체 원조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6/2006
- b. KOICA 승인 : 12/2006
- c. 집행 : 2007

5. 비용과 자원 :

__자원__	비용(US\$'000)
a. KOICA	300
b. 정부	
c. 기타	
Total	300

사업명 [17]빈곤지역 유아교육 사업 2

1. 원조사업의 초점

a. 시작년도 : 2008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c. 주제부문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정부/제도개선 :

d. 활동지역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a. 책임기관 : 교육훈련부

b. 담당자 : 주정부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
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a. 문제점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수준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 (MDG)를 달성해가고 있지만 초등교육의 질은 저하되었고, 유치원 등 유아교육의 기회는 아직도 확대되지않고 있음. 도시보다도 시골에서 특히 빈곤지역과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초등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있음

b. 문제의 원인 :
-빈곤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질이 낮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유아교육이나 유치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의 어린이들보다 언어나 수리능력 개발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임. 또 빈곤지역의 어린이는 영양이 부실하여 발달에 지장이 있기 때문임
-어린이들의 자능은 6세 이하에서 가장 빨리 개발되므로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기회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임
-도시에서는 공립은 물론, 사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많이 있어서 유아교육의 기회가 많으나 시골, 특히 빈곤지

역이나 약소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수가 적음
-과거의 원조가 초등 및 중등교육의 확대에 투자되었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 교육의 확대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음
-초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개발에서 지역간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c. 사업 목적과 내용 :
-시골이나 도시의 빈곤지역에 공립 유아원이나 유치원 교실과 놀이 시설을 제공함
-교과과정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문관이나 자원봉사자 등 기술지원을 동시에 제공함
-한국의 참전으로 대 한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d. 위험요소 :
-학교시설의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은 주정부와 주민(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주정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주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중앙정부가 비용의 10%, 주정부가 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함
-현지 주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건축에 주민들을 근로자로서 적극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추진일정

a. 정부의 신청서 : 3/2007

b. KOICA 승인 : 6/2007

c. 집행 : 2008

5. 비용과 자원 :

채원	비용(US\$'000)
a. KOICA	400
b. 정부	50
c. 기타	50
Total	500

사업명 [18]빈곤지역 초등학교 건축사업 3

1. 원조사업의 초점

a. 시작년도 : 2006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c. 주제부문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정부/제도개선 :

d. 활동지역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a. 책임기관 : 교육훈련부

b. 담당자 : 주정부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
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a. 문제점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수준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 아직도 저하되고 있음
-초등교육은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교실의 부족으로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임
-2003년 현재 임시교실의 1/3만이 대체되었음
-우수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교실과 도서실)과 교유기자재(컴퓨터, 지도 등)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빈곤인구지수가 높고 약소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음
-문제를 방지하면 교육에서 빈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장래에 성인으로서의 근로소득에도 차이를 가져와서 빈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저해함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가 초등 및 중등교육의 확대에 투자되었지만 아직도 초등교육기회의 확대나 질의 향상에는 미흡하다. 과거의 원조의 10% 정도만이 교육에 투자되었고

공교육비의 10%만이 공적원조자금임

c. 사업 목적과 내용 :
-빈곤지역에 교실을 신축하고, 과밀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 임시교실을 정규교실로 대체함
-정규교과과정에 필요한 기본시설과 기본기자재를 공급함
-한국의 참전으로 대 한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d. 위험요소 :
-학교시설의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은 주정부와 주민(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주정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주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중앙정부가 비용의 10%, 주정부가 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함
-현지 주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건축에 주민들을 근로자로서 적극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추진일정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b. KOICA 승인 : 6/2006

c. 집행 : 2007~2008

5. 비용과 자원 :

채원	비용(US\$'000)
a. KOICA	2500
b. 정부	50
c. 기타	50
Total	26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8
- b. 원조형태 :
 - ☒ 투자사업
 - ☐ 기술원조
 - ☐ 자원봉사
 -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 전문가 파견
 -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 사회개발/빈곤해소 :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교육훈련부
- b. 담당자 : 주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수준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 아직도 저하되고 있음
 - 초등교육은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교실의 부족으로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임
 - 2003년 현재 임시교실의 1/3만이 대체되었음
 - 우수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교실과 도서실)과 교육기자재(컴퓨터, 지도 등)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빈곤인구지수가 높고 약소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음
 - 문제를 방지하면 교육에서 빈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장래에 성인으로서의 근로소득에도 차이를 가져와서 빈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저해함
- b. 문제의 원인 :
 - 과거의 원조가 초등 및 중등교육의 확대에 투자되었지만 아직도 초등교육기회의 확대나 질의 향상에는 미흡함. 과거의 원조의 10% 정도만이 교육에 투자되었고 공

- 교육비의 10%만이 공적원조자금임
- c. 사업 목적과 내용 :
 - 빈곤지역에 교실을 신축하고, 과밀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 임시교실을 정규교실로 대체함
 - 정규교과과정에 필요한 기본시설과 기본기자재를 공급함
 - 한국의 참전으로 대 한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 d. 위험요소 :
 - 학교시설의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은 주정부와 주민(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주정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주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비용의 10%, 주정부가 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함
 - 현지 주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건축에 주민들을 근로자로서 적극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7
- b. KOICA 승인 : 6/2007
- c. 집행 : 2008~2009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2500
b. 정부	100
c. 기타	
Total	26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 ☐ 투자사업
 - ☒ 기술원조
 - ☐ 자원봉사
 -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 전문가 파견
 -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 사회개발/빈곤해소 :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교육훈련부
- b. 담당자 : 주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전문직 및 기술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 교육제도는 물론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사업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임
 - 기술직업인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분석 없이 직업훈련대학이나 훈련기관을 강화하고 있고, 정규교육의 직업교육도 수요와 연관없이 강화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차질이 보여지고 있고 투자의 낭비를 보여주고 있음(예: 빈시의 한-베트남산업훈련원의 전자공학과 졸업생 30여명은 인근 산업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업상태이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여 훈련받고 있음)
- b. 문제의 원인 :
 - 기업수요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여
 - 훈련기관과 직업교육강화투자가 인근의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
 - 산업인력의 다양한 양성방안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연구 없이 다양한 투자 진행

- c. 사업 목적과 내용 :
 - 다양한 직업교육과 기술인력 양성방안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분석연구 수행
 -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력 양성방안 인지
 -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연구 제시
 - 직업안정사업의 현황조사 연구와 개선방안 제시
 - 장래 투자의 우선순위 제시
 -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기업의 자체훈련수요와 공헌에 관한 여론조사 및 분석적 연구
 - 기술 기능 직업인 양성에 관한 전국적인 정책과 체계에 관한 권고안 제시
 - 추후 투자사업 준비안 제시
 - 특히 베트남정부가 EDCF에 청구한 5개의 직업훈련소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 d. 위험요소 :
 -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6~2007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700
b. 정부	
c. 기타	
Total	7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 ___ 투자사업
 - X 기술원조
 - ___ 자원봉사
 -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 ___ 전문가 파견
 - X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X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 ___ 사회개발/빈곤해소 :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X 전국 : ___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노동부, 교육훈련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교육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전문직 및 기술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 교육제도는 물론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사업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상임
 - 기술직업인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분석 없이 직업훈련대학이나 훈련기관을 강화하고 있고, 정규교육의 직업교육도 수요와 연관없이 강화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차질이 보여지고 있고 투자의 낭비를 보여주고 있음(예: 빈시의 한-베트남산업훈련원의 전자공학과 졸업생 30여명은 인근 산업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업상태이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여 훈련받고 있음)
- b. 문제의 원인 :
 - 기업수요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여
 - 훈련기관과 직업교육강화투자가 인근의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
 - 산업인력의 다양한 양성방안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연구 없이 다양한 투자 진행

c. 사업 목적과 내용 :

- 다양한 직업교육과 기술인력 양성방안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분석연구 수행
 -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력 양성방안 인지
 -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연구 제시
 - 직업안정사업의 현황조사 연구와 개선방안 제시
 - 장래 투자의 우선순위 제시
 -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기업의 자체훈련수요와 공헌에 관한 여론조사 및 분석적 연구
 - 기술 기능 직업인 양성에 관한 전국적인 정책과 체계에 관한 권고안 제시
 - 추후 투자사업 준비안 제시
 - 특히 베트남정부가 EDCF에 청구한 5개의 직업훈련소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 d. 위험요소 :
-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6/2006
- b. KOICA 승인 : 12/2006
-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300
b. 정부	
c. 기타	
Total	30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 X 투자사업
 - ___ 기술원조
 - ___ 자원봉사
 - ___ 훈련 : ___ 해외훈련 : ___ 국내훈련
 - ___ 전문가 파견
 - ___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___ 경제성장 : ___ 환경보존개선
 - X 사회개발/빈곤해소 :
 - ___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___ 전국 : X 지역 : ___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 b. 담당자 : 성 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빈곤가정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가정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며 비싼 사용자부담의 원칙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
 -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가정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정책의 일환으로 무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국민은 빈곤층의 23%에 불과하고 많은 빈곤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문제를 방지하려면 도시와 농촌 간 또 빈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빈곤가정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됨
 - 현재까지의 원조는 주로 국립병원, 도립병원 단위에 중점을 두어서 빈곤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b. 문제의 원인 :
 -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 특히 도립병원

- 과 구역병원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빈곤층은 재정형편상 이용이 불가능함
 - 정부의 사회안전망 재정이 빈약하고 외국원조기관이 무료보험증 보급에 할당한 금액이 미미함
- c. 사업 목적과 내용 :
- 건강보험증을 구매하여(1인당 연 US\$20 정도), 빈곤가정에 보급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함
 - 특히 한국이나 다른 원조기관이 병원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확대한 지역의 빈곤가정을 우선 선발함
 - 한국의 참전으로 對한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
 - 소수의 금액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 사업자금이 전액 베트남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전액 한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무상원조가 갖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큼
- d. 위험요소 :
- 직접적으로 빈곤가정에 무료보험증이 보급되므로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가정의 선발과 보험증의 보급과정과 절차에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함
 -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수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對베트남 연간 전체 원조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9/2006
- b. KOICA 승인 : 12/2006
-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300
b. 정부	
c. 기타	
Total	300

1. 원조사업의 초점

a. 시작년도 : 2007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c. 주제부문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b. 담당자 : 성 정부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빈곤가정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가정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며 비싼 사용자부담의 원칙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가정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정책의 일환으로 무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국민은 빈곤층의 23%에 불과하고 많은 빈곤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문제를 방지하면 도시와 농촌 간 또 빈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빈곤가정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까지의 원조는 주로 국립병원, 도립병원 단위에 중점을 두어서 빈곤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 특히 도립병원

과 구역병원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빈곤층은 재정 형편상 이용이 불가능함

–정부의 사회안전망 재정이 빈약하고 외국원조기관이 무료보험증 보급에 할당한 금액이 미미함

c. 사업 목적과 내용 :

–건강보험증을 구매하여(1인당 연 US\$20 정도), 빈곤가정에 보급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함

–특히 한국이나 다른 원조기관이 병원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확대한 지역의 빈곤가정을 우선 선발함

–한국의 참전으로 대한민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

–소수의 금액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사업자금이 전액 베트남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전액 한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무상원조가 갖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큼

d. 위험요소 :

–직접적으로 빈곤가정에 무료보험증이 보급되므로,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가정의 선발과 보험증의 보급과정과 절차에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함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수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對베트남 연간 전체 원조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추진일정

a. 정부의 신청서 : 9/2006

b. KOICA 승인 : 12/2006

c. 집행 : 2007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300

b. 정부

c. 기타

Total

300

142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명 [24] 빈곤층 건강보험 3

1. 원조사업의 초점

a. 시작년도 : 2008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c. 주제부문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b. 담당자 : 성 정부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빈곤가정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가정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며 비싼 사용자부담의 원칙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

–건강보험이 없는 빈곤가정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정책의 일환으로 무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국민은 빈곤층의 23%에 불과하고 많은 빈곤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문제를 방지하면 도시와 농촌 간 또 빈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빈곤가정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까지의 원조는 주로 국립병원, 도립병원 단위에 중점을 두어서 빈곤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 특히 도립병원

과 구역병원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빈곤층은 재정 형편상 이용이 불가능함

–정부의 사회안전망재정이 빈약하고 외국원조기관이 무료보험증 보급에 할당한 금액이 미미함

c. 사업 목적과 내용 :

–건강보험증을 구매하여(1인당 연 US\$20 정도), 빈곤가정에 보급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함

–특히 한국이나 다른 원조기관이 병원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확대한 지역의 빈곤가정을 우선 선발함

–한국의 참전으로 對한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

–소수의 금액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사업자금이 전액 베트남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전액 한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무상원조가 갖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큼

d. 위험요소 :

–직접적으로 빈곤가정에 무료보험증이 보급되므로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가정의 선발과 보험증의 보급과정과 절차에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함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수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對베트남 연간 전체 원조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추진일정

a. 정부의 신청서 : 9/2007

b. KOICA 승인 : 12/2007

c. 집행 : 2008

5.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300

b. 정부

c. 기타

Total

300

베트남을 위한 중장기 원조사업 계획 143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전문가 파견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 b. 담당자 : 성 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보건망은 주민의 99%를 관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60%의 마을 단위의 보건소는 시설이 부실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보건소는 있으나 기자재와 의약품이 부족하고 현대화되어있지 못한 곳이 많음
 -문제를 방치하면 도시와 농촌 간의 기초사회서비스의 격차가 증대되어 사회형평성 손실하고 빈곤이 계속됨
 -보건소의 부실로 기초 및 예방보건서비스가 부실하여 보건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능함
- b. 문제의 원인 :
 -현재까지의 원조는 주로 국립병원, 독립병원 단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빈곤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집행이 지연되었음
 -보건시설이 완공된 후에 정부가 기자재와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산의 지연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여 완성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었음

c. 사업 목적과 내용 :

- 본 사업은 건물보다 기자재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이 사장되는 경우를 예방함
- 건물의 신설 또는 개선에는 근소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자재와 의약품과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농촌과 시골의 주민이 현대적 의료혜택을 받게 함
- 보건시설과 기자재, 의료전문가의 파견과 자원 봉사를 연계하여 하나의 복합적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면 개별서비스의 제공보다 효과적임
- 한국의 참전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독립병원이나 구역병원을 지원할 때 그 구역에 있는 마을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연계성이 있어서 효과적이고 가시적일 것임
- 물적 투자 이외에 사업비용의 10~15%는 자문관, 자원봉사, 훈련 등의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기자재의 활용, 효과적 기관운영, 의료기술지원 등을 지원함

d. 위험요소 :

- 상위 보건기구인 독립병원이나 구역병원이 부실하면 마을 보건소의 운영도 부실하기 쉽기 때문에 구역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시설이 현대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본 사업의 성공에 중요함
- 원격지의 마을 보건소 건설과 기기제공은 중앙의 행정감독이 잘 미치지 못하므로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집행능력과 일정과 감독체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함
- 이러한 마을 단위의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없이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또 사업의 완성 후 보건소의 운영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9/2006
- c. 집행 : 2007

5. 비용과 자원 :

Source	Amount (US\$'000)
a. KOICA	500
b. 정부	100
c. 기타	50
Total	65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8
-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전문가 파견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 b. 담당자 : 성 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보건망은 주민의 99%를 관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60%의 마을 단위의 보건소는 시설이 부실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보건소는 있으나 기자재와 의약품이 부족하고 현대화되어있지 못한 곳이 많음
 -문제를 방치하면 도시와 농촌 간의 기초사회서비스의 격차가 증대되어 사회형평성 손실하고 빈곤이 계속됨
 -보건소의 부실로 기초 및 예방보건서비스가 부실하여 보건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능함
- b. 문제의 원인 :
 -현재까지의 원조는 주로 국립병원, 독립병원 단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빈곤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집행이 지연되었음
 -보건시설이 완공된 후에 정부가 기자재와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산의 지연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여 완성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

이 있었음

c. 사업 목적과 내용 :

- 건강보험증을 구매하여(1인당 연 US\$20 정도), 빈곤가정에 보급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함
- 특히 한국이나 다른 원조기관이 병원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확대한 지역의 빈곤가정을 우선 선발함
- 한국의 참전으로 對한국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
- 소수의 금액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 사업자금이 전액 베트남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전액 한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무상원조가 갖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큼

d. 위험요소 :

- 직접적으로 빈곤가정에 무료보험증이 보급되므로 부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가정의 선발과 보험증의 보급과정과 절차에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함
-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수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對베트남 연간 전체 원조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7
- b. KOICA 승인 : 9/2007
- c. 집행 : 2008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100
c. 기타	50
Total	65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6
-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전문가 파견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보건망은 구축되어 있으나 구역병원 등 지역병원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농촌과 시골 주민은 양질의 보건구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보건시설은 있으나 기자재와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현대화되어 있지 못한 곳이 많음
-문제를 방지하면 국립과 도립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기초사회서비스의 격차가 증대되어 사회형평성 손실
-현재까지의 원조는 건물을 주로 제공하고, 의료진과 봉사단 및 기자재의 제공이 각각 지역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져서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원조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음
-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집행이 지연되었음
-시설이 완성된 후에 정부가 기자재와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산의 지연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

- 여 완성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었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
-본 사업은 건물보다 기자재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이 사장되는 경우를 예방함
-건물의 신설 또는 개선에는 근소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자재와 의약품과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농촌과 시골의 주민이 현대적 의료혜택을 받게 함
-보건시설과 기자재, 의료전문의의 파견과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하나의 복합적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면 개별서비스의 제공보다 효과적임
-한국의 참전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물질 투자 이외에 전문가, 자원봉사자, 훈련 등 기술원조를 사업비의 10~15% 정도 내에서 제공하여 병원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직원 훈련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
- d. 위험요소 :
-구역병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자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 사장되는 경우보다 효과적임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6
- b. KOICA 승인 : 6/2006
- c. 집행 : 2006~2008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1000
b. 정부	100
c. 기타	50
Total	115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8
- b. 원조형태 :
☒ 투자사업
☐ 기술원조
☐ 자원봉사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전문가 파견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사회개발/빈곤해소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 b. 담당자 :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보건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전국적으로 보건망은 구축되어 있으나 구역병원 등 지역병원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농촌과 시골 주민은 양질의 보건구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보건시설은 있으나 기자재와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현대화되어 있지 못한 곳이 많음
-문제를 방지하면 국립과 도립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도-농 간 기초사회서비스의 격차가 증대되어 사회형평성 손실
-현재까지의 원조는 건물을 주로 제공하고, 의료진과 봉사단 및 기자재의 제공이 각각 지역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져서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원조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음
- b. 문제의 원인 :
-과거의 원조는 보건시설의 신설과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집행이 지연되었음
-시설이 완성된 후에 정부가 기자재와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산의 지연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

- 여 완성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었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
-본 사업은 건물보다 기자재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이 사장되는 경우를 예방함
-건물의 신설 또는 개선에는 근소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자재와 의약품과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농촌과 시골의 주민이 현대적 의료혜택을 받게 함
-보건시설과 기자재, 의료전문의의 파견과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하나의 복합적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면 개별서비스의 제공보다 효과적임
-한국의 참전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빈곤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가시적임
-물질 투자 이외에 전문가, 자원봉사자, 훈련 등 기술원조를 사업비의 10~15% 정도 내에서 제공하여 병원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직원 훈련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
- d. 위험요소 :
-구역병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자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 사장되는 경우보다 효과적임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3/2007
- b. KOICA 승인 : 6/2007
- c. 집행 : 2008~2009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1000
b. 정부	100
c. 기타	50
Total	115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 ☒ 투자사업
 - ☐ 기술원조
 - ☐ 자원봉사
 -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 전문가 파견
 -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 사회개발/빈곤해소 :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b. 담당자 : 성 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농촌개발연구원, 한국농업진흥청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KOICA는 1999년에 무상협력사업 수요조사 실시와 전문가파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베트남 농촌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연수생초청과 전문가 파견을 통한 새마을운동 전수에 치중하였음
 - 이로 인해 농업기술 전수나 농촌지역 교육, 보건, 자연재해 예방 등과 같은 개발지원 사업들과 연계된 종합적 지원이 미흡하였음
- b. 문제의 원인 :
 - 현재까지의 지원은 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전수한다는 것에 주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정작 베트남 농촌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과거의 원조는 연수생 초청을 통해 새마을운동 소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몇몇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되었음

c. 사업 목적과 내용 :

-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보다는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새마을운동 실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적 사업이 될 수 있음
 - 농촌지역의 학교건립과 병원건립 등 농촌개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새마을운동을 수행함으로써 농촌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물적 투자 이외에 사업비용의 10~15%는 자문관, 자원봉사, 훈련 등의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기자재의 활용, 효과적 기관운영 등을 지원함
- d. 위험요소 :
- 농촌개발은 방대한 사업으로 자칫 잘못하면 사업의 핵심을 잃을 우려가 있음
 - 농촌개발은 농촌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에서 대거 이탈하여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6/2006
- b. KOICA 승인 : 12/2006
- c. 집행 : 2007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500
b. 정부	
c. 기타	50
Total	550

1. 원조사업의 초점

- a. 시작년도 : 2007
- b. 원조형태 :
 - ☐ 투자사업
 - ☒ 기술원조
 - ☐ 자원봉사
 - ☐ 훈련 : ☐ 해외훈련 : ☐ 국내훈련
 - ☐ 전문가 파견
 - ☒ 조사연구
- c. 주제부문 :
 - ☐ 경제성장 : ☒ 환경보존개선
 - ☐ 사회개발/빈곤해소 :
 - ☐ 정부/제도개선 :
- d. 활동지역 :
 - ☒ 전국 : ☐ 지역 : ☐ 마을

2. 집행기관 및 참여자

- a. 책임기관 : 수산부
- b. 담당자 : 성 정부
- c. 참여기관 : 세계은행 프로젝트와 연계가능

3. 원조사업내용

- a. 문제점 :
 - 베트남은 긴 해안선으로 싸여있고 내륙에도 강과 호수가 많아서 해양과 내륙의 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채취할 가능성은 많으나,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채취-활용하지 못하고 어민의 수도 적고 비교적 빈곤계층에 속함.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여 영양부족상태에 있는 국민의 비율이 아직도 높고, 잠재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
 - 어민은 어로기술에 관한 지도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생산성도 낮음
 -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도 발달하지 못하였음
- b. 문제의 원인 :
 - 수산자원을 국민들의 경제개발과 소득수준 향상의 수단으로 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주로 소규모의 가족사업 형태로만 행해져 왔음
 - 어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나 교육훈련이 미약함

- 세계적으로 유력한 수산시장이 이웃 일본에 있지만 원양어업을 기업화하지 못했음
 - 부존 수자원에 관한 연구나 관리 활용에 관한 최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없음
 - 따라서 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 c. 사업 목적과 내용 :
- 본 사업은 수산자원의 부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상을 조사 연구함
 - 어로사업을 기업화하여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와 방안에 관한 연구를 포함함
 - 조사연구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정부에 대한 건의를 포함함
- d. 위험요소 :
- 이미 한국이 제공한 광물자원 조사연구사업의 경험과 교훈을 이용함

4. 추진일정

- a. 정부의 신청서 : 6/2006
- b. KOICA 승인 : 12/2006
- c. 집행 : 2007

5. 비용과 자원 :

재원	비용(US\$'000)
a. KOICA	1000
b. 정부	
c. 기타	
Total	1000

저 자 약 력

이계우(李啓宇)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1998~2005)
세계은행 부장, 정책고문, 선임경제전문가 역임(1972~98)
한국 보건사회부 노동청 사무관(1963~68)
미시간주립대학 경제학 박사(197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행정고시 합격(1963)

박찬용(朴讚用)
현재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IEP de Paris), 경제학 박사
The 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본부 Economist

〈협력정책 2005-6-69〉

베트남을 위한 중장기 원조사업 계획

발	행	2005년 9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신라애드/(02)3444-0223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Tel:(02)740-5114 Fax:(02)744-1092

<http://www.koica.go.kr>